



성도의 벗 4  
1981



왼쪽에서 오른쪽 : 태너 부대관장, 톰니 부대관장, 킴볼 대관장

# 성도의 벗 4

1981

## 차례

###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 교회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월든 태너  
매리온 지 톰니

##### 십이사도 평의회

######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풀키

얼トン 페리

###### 데이비드 비 헤이트

###### 제임스 이 파우스트

#### 고문

##### 엠 러셀 빌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 표지

#####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본부 사무실 남쪽

정원에 있는 성당,

이번호의 사진 책임자는

엘든 케이 린스우던파

제드 에이 클라크

그리고 마리린 엘 애너드 이며

이번호의 사진은 총관리 역원과

방문 회원들에게 초첨을 맞춰서

대회 장면을 찍었습니다.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 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원 구독료는

400 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 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코드/지부와 키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0 반연차 대회 보고	2
가족은 영원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4
간증의 축복	엔 월든 태너 부대관장 ..... 7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엔 톰 페리 장로 ..... 8
주님의 짐	로버트 엘 심슨 장로 ..... 12
목자를 알라	로버트 이 웨즈 장로 ..... 16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낸 에이 맥스웰 장로 ..... 18
천사장 아담	마크 이 피터슨 장로 ..... 23
교회 본부 역원 지지	매리온 지 톰니 부대관장 ..... 28
선택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30
구세주의 손길	엠 러셀 빌라드 장로 ..... 35
말일성도 30주년	데릭 에이 커스버드 장로 ..... 39
“내 양을 먹으라”	렉스 시 리브 장로 ..... 43
“청컨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 47
환난의 때를 위해 준비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 52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 56
마음과 영을 청결케 함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 61
교회의 청남에게	로버트 에 밴데 장로 ..... 65
신권에 따르는 맹세와 성약	매리온 지 톰니 부대관장 ..... 70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74
회개	매리온 지 톰니 부대관장 ..... 77
회복의 주 하나님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 ..... 82
일곱가지의 위대한 사건	제이 토마스 파이어스 장로 ..... 86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90
역경과 우리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92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 할 것을 요구하노라”	고든 비 힙클리 장로 ..... 97
간증	리그랜드 드리자즈 장로 ..... 10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조지 피 리 장로 ..... 105
레이이멘인들에게 일어난 기적	진 앙 쪽 장로 ..... 109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게 하라	조셉 비 웨스틴 장로 ..... 113
결심	렉스 디 피네가 장로 ..... 117
“왕국의 열쇠”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121
“중도에서 지치지 마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125
십일조의 법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127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 134
기쁜 마음으로 따름시다	바바리 비 스미스 자매 ..... 139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더글러스 더블류 디언 장로 ..... 143
감독-복지 사업의 중심 인물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 146
복지 사업-구세주의 프로그램	매리온 지 톰니 부대관장 ..... 152
김복 대관장께서 도덕에 관해 강조하심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155
교회 교파 과정에 관련되는 대회 보고	164
〈상호 부조회 본부 대회〉	
배우고: 가르치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169
사랑의 끈	바바리 비 스미스 자매 ..... 171
독신: 상호부조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에디 뮤리언 ..... 175
모성애와 가족	메리에프 풀저 ..... 178
왕국의 교리	설리 더블류 토마스 ..... 180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매리온 알 빌이어 ..... 182
한 무리가 된 자매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185
지역 지도자 메시지	김 차봉 서울 서 선교부장 ..... 190
해외 소식	192
지역 소식	194

통 권 : 제189호, 제17권 제4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리-932

발행일 : 1981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시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건수

STOCK NO. PBMA0562KO PRINTED IN SEOUL, KOREA 4/81 International magazine

© 1981년  
제단 밀인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유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50 반연차 대회 보고

1980년 10월 4일과 5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내클에서 열린  
대회의 일정 및 말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10월 4일, 토요일 개회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처음부터 가족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단위로서의 가족의 토대가 이 땅의 기초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놓여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족 생활이 없는 사회는 기초가 없는 사회로서 붕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도덕의 표준과 계명은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그릇된 교사들이 웅변과 호색 문학,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가두 연설 등을 매체로 하여 도덕적 표준을 파괴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나는 도덕에 관한 주제로 출직하고 충분하게

다룬 기사를 성도의 첫 대회 특집호에 실기 위해 준비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말일성도들이 이 특별한 메시지를 읽어 보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이끌려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다운 성품, 영원성, 그리고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이니,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도덕성에 관한 킴볼 대관장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특별한 메시지가 155페이지에 나와 있다.

김볼 대관장의 말씀에 덧붙여서 67명의 총관리 역원 중, 29명의 총관리 역원이 다음 육 개월 동안 교회 회원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

영감에 찬 가르침을 대회에서 전하였다. 말씀은 10월 4일, 토요일에 4개 모임과 10월 5일, 일요일에 2개 모임 등 6개 모임에서 주어졌다.

대회 모든 모임을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감리하였으며, 진행은 킴볼 대관장과 제2보좌이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맡았다.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은 몇 개 모임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건강이 좋지 못하여 말씀은 간단히 하였다. 선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와 에스 딜 워스 영 장로를 제외한 나머지 총관리 역원 전원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대회에서 두 명의 총관리 역원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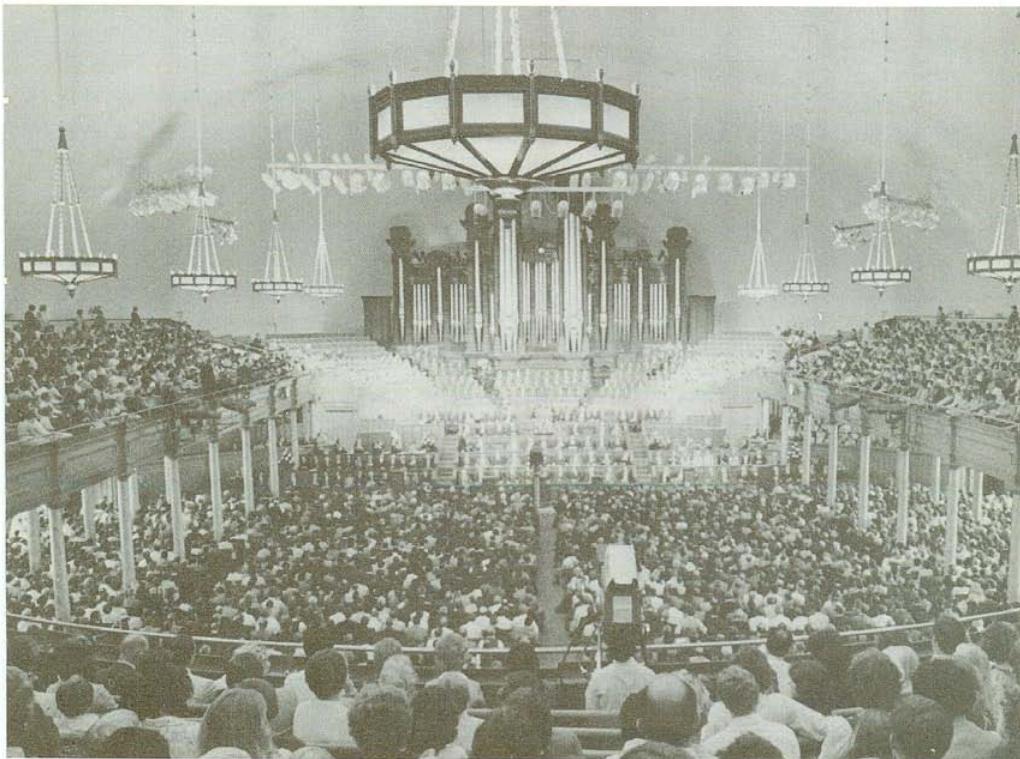
예 은퇴가 선언되었다. 그들은 베나드 피 브록뱅크 장로와 오 레슬리 스토운 장로이다. (91페이지 도표 참조) 이 조치로 인하여 칠십인 정원회에는 40명의 회원이 남게 되었고, 은퇴 총관리 역원은 9명이 되었다.

1909년에 태어난 브록뱅크 장로는 1962년 10월 6일, 53세의 나이로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되었으며, 총관리 역원으로서 18년간의 봉직 생활을 마쳤다.

1903년에 태어난 오 레슬리 스토운 장로는 1972년 10월 6일, 69세의 나이로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되었으며, 총관리 역원으로서 8년간의 봉직 생활을 마쳤다.

—편집자—\*

대회 광경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가족은 영원함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가족 관계를 믿는 사람들만이 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가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제 150차 반연차 대회를 시작하는 모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처음부터 가족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단위로서의 가족의 토대가 이 땅의 기초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놓여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족 생활이 없는 사회는 기초가 없는 사회로서, 붕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족과 같이 기본적인 것이 위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고의로 파괴하려는 자에 의하여 가족이 치명적으로 해를 받지 않게 되도록 경고의 말을 해야 할 엄숙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도덕의 표준과 계명은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릇된 교사들이 웅변과 호색 문학,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가두 연설 등을 매체로 하여 도덕적 표준을 파괴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나는 도덕성에 관한 주제로 출직하고 상세하게 다룬 기사를 성도의 벗 대회 특집호에 실기 위해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말일성도들이 이 특별한 메시지를 읽어 보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성약을 경시하며, 청소년 범죄가 점차 증가되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내의 이혼율은 1970년 이후 65퍼센트나 증가되었습니다. 미혼 동거인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157퍼센트로 증가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는 어린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979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5가구 중 한 가족의 자녀가 홀어머니 또는 홀아버지의 슬하에서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낙태는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낙태법이 통과된 이후 10년 동안 낙태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수가 세계 제 1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의 수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멜콤 머거릿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서방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꽂다운 많은 인구를 잃은 것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간적인 원리를 명목하에 같은 수의 아직 태어나 보지도 못한

생명을 파괴하였습니다.”(휴먼 라이프 리뷰, 1980년 여름, 74페이지)

더우기, 과거에 가정을 재강화시키고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던 많은 사회적 제약이 지금은 하나 둘씩 붕괴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가족 관계를 믿는 사람들만이 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가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무의식적이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다른 이유로 정부가 벌이는(가족을 돋겠습니다는 취지로 행하는) 사업이 때로는 가정을 더욱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전통적인 방법으로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족의 위치를 대신하는 노력이 실패하게 될수록 정부가 우선으로 행하는 전통적이며 근본적인 역할의 힘은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오늘날 가정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는 거의 모두 십계명의 일곱째 계명을 범함으로써 오는 것들입니다.(출 20 : 14 참조) 혼전의 온전한 순결과 결혼 후의 온전한 정절은 여전히 도덕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 기로에서 탈선할 때에는 죄와 비참과 불행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계명을 범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 범죄자는 소년 범죄자를 낳게 되는 수가 있으며,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헌법상의 범죄로 표준을 내림으로써 무서운 현실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족 단위는 현실 사회가 거쳐 나가는 특정한 발전의 단면에 어느 정도 얹매여 있다는 허울좋은 논란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키워나가는 움직임에 대하여 마음놓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가정의 문제가 잘못되면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도 잘못된다는 것을 압니다.

무지해서든 혹은 고의로 가족을 공격하는 자들은 무섭고도 불필요한 비참과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니, 저들은 그 대용품을 헛되이, 애써 찾고 있을 뿐이며, 이 세상에서 혼명한 자들의 지혜도 가족에 대하여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면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난세가 되면 수많은 가정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죄악을 관용으로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위기를 이겨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로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과 동록이 모든 세상의 보화를 썩게 하여 뜻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 기구인 가족이 오염되고서는, 정치적인 기구—국회, 정부—도 우리를 구해 줄 수 없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아닌 적개심이 가득 차고서는 어떠한 평화 협정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떠한 실업 대책도 우리를 구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신차려 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권위와 사랑으로 이끄는 훈련을 탐탁치 못한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세대는 다섯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출 20 : 12 참조) 부모가 스스로를 욕되게 할 때, 특히 일곱째 계명을 범함으로써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 관한 통계 자료는 대체로 슬픈 현실을 나타내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치고, 어디서 물줄기를 돌려야 하는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말일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는 가치를 치고 큰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권고드리거니와, 여러분의 개인 및 가족의 역사를 부지런히 기록하십시

오. 우리는 최근에 세계 계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1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개인 기록 작성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배웠습니다. 이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의 유산을 보존함으로써 더욱 강한 가족의 유대의 이점을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들께서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로 얻게 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자녀를 가르치며, 사랑하고, 양육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활동과 오락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한 여가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계속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나 학교, 대학 및 모든 인종이나 민족 또는 문화권에 속한 사려깊은 사람들의 도움을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보조 기구들이 제구 실을 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책임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셨으며,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원리를 가르쳐 고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임무를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이끌려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운 성품, 영원성, 그리고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이니,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나의 사랑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 간증의 축복

“나는 네 분의 교회 대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옆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회 모임에 여러분과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특권이요,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킴볼 대관장님을 따라 일해 온지도 이제 거의 7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해 올 수 있었다면 나 자신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여, 이 대회에서 항상 감도는 영을 느낄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버내를 합창단의 합창을 듣고 이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킴볼 대관장님께서 몇 마디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 친지, 사업가들, 그리고 온 세상의 주민에게 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네 분의 교회 대관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옆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우리를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영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

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이 창조되어 지상에 내려와 거하면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에 합당한가를 증명해 보여야 함이 논의되고 결정될 때 영의 자녀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 지구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로서 택함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세기와 다른 곳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대 예언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간증을 지닌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모범과 영향력이 선하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족에게 가족의 재정, 조직, 교회 봉사 및 지역 사회 참여  
등을 정비하라는 권고의 말씀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교성 104 : 17)

나는 해마다 주님께서 이 지상의 그의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위하여 마련하신 체제에 대하여 증거할 때마다 경탄하게 됩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나는 두 막대기 사이에 팽팽히 당겨 매어 놓은 줄을 따라 팽이를 들고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두세 알씩 떨어뜨려 가며 씨를 뿌립니다. 가을이 되면 나는 풍성한 수확에 벅찬 기쁨을 누립니다. 그 몇 개 안되는 씨앗이 크게 자라, 불과 몇 개월 전에 땅에 뿌려진 씨앗의 수백 배나 되는 황금빛 옥수수를 열매맺게 됩니다. 수확기에 는 누구나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도 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이같은 성장 주기의 예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적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과정을 잘 아셨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공규 체제를 예로 든 그의 가르침에서 많

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뿌리는 자(마 13 : 3-23 참조), 스스로 자라는 씨앗(막 4 : 26-29 참조), 가라지(마 13 : 24-30 참조), 열매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눅 13 : 6-9 참조), 무화과 나뭇잎(마 24 : 32-33), 숨겨진 보화(마 13 : 44) 등 많은 비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성역이 끝난 후 그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 : 7)

인간은 주님의 수학의 법칙의 위대한 메시지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체제는 성장, 증식 그리고 풍성한 보상을 산출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마다 이 같은 성장 주기의 축복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자신의 현세에서의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많은 자녀들에게 그의 특별한 피조물들, 곧 그의 아들과 딸들을 보살피는 기회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인간에게 위임하신 가장 큰 책임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의 좌절감을 듣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절박한 호소도 경청하고, 어린 아이의 응석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는 관심을 갖게 되는 사항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그러한 관심사는 모두 시조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문화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이며 안정되고, 즐거움을 사랑하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수집단에서 막대한 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통적인 가족 생활이 무시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경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정도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많은 예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대 왕이 니파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간악한 짓들을 스스로 자행하고”(야 1:15) 야곱은 백성들이 주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했습니다. 먼저 그는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고, 그 다음 보다 곤란한 문제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교만에 관하여서는 얘기를 끝맺으려 하나, 너희의 더 큰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다면 너희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심히 기쁘련만”(야곱서 2:22)

“보라 너희는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보다 더 한 죄를 범하였고 너희의 착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친구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망을 잃었으며, 저들의 흐느낌이 하나님께 우러러 너희를 고발하니, 너희를 치실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하심으로 많은 처자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죽었도다.”(야곱서 2:35)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질에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던 중에 나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놀랐습니다. “만일 시간이 내 생애에서 15년 정도 뒤로 돌아가 다시 실태의 자녀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1980년대의 상황에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도 이같이 어려운 시대에 전통적인 가족을 유지하는 데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는 15년간의 과정을 재연한다면 먼저 행하였던 것과는 어떤 면을 달리 해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4가지 문제점이 나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1. 가족 재정.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직장이 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생계의 표준을 유지하는 문제가 점점 더 커져 갑니다. 주거비, 광열비, 식비, 피복비, 또한 많은 휘발유를 소모하는 자동차 경비 등의 비용이 가족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족 재정에 대한 압박은 가족의 진장감을 점증시킵니다. 이같은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주요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다음과 같은 음성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나는 교회가 시련과 진장의 때를 위하여 나를 수년 동안 준비시켜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에게 선교 사업과 교육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가족 경제 계획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준비하고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경제를 합당

하게 유지해 나가려면 여러모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출할 때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돈을 들여 이렇게 좋은 집을 사야 하는가? 자동차 두 대가 필요한가? 나의 가족 중심의 활동으로, 돈이 많이 드는 상업적 오락을 대치할 수 있는가? 휴가는 집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는가?

일년 동안의 생필품 비축을 준비하는 것  
이 가정사에서 우선 순위 1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구입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축되는 양의 많은 부분이 우리 자신이 웃을 만들고 밟을 가꾸며 스스로 식품을 저장함으로써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축한 것을 현명하게 투자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희생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는 수입으로 변화무쌍한 80년대를 살아가는 가족의 요구를 충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현실적인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더욱 여러 모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2. 가족의 유대. 여러 주일 전에 나는 한 젊은 어머니가 간증 모임에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새롭게 이해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요일 집회 순서가 변경되었을 때 저으기 실망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일요일 집회 순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초등협회 역원인 그녀는 상호부조회와 주일학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같은 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활동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역시 그 같은 상태로 우울해 하고 있을 때, 영감의 빛이 그녀의 마음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가장 큰 책임—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to 수행하기 위하여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며, 계획함으로써 일요일이 한 주일 중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6개월 전에 소개된 이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계획 일정과 활동이 변경되어 그동안 좌절의 연속이었습니까? 텔레비전 앞에 더 오래 앉게 되어 우리의 머리를 오염시키는 결파만을 초래하였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함께 모여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여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내가 다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 된다면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나에게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배려해 준 특별한 시간을 엄격하게 따르고 올바르게 조직하여 보다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요일 집회 순서가 변경됨으로써, 나는 우리가 함께 수행해 온 특별 주례 가족 시간의 형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전통적인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특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의 자녀들만이라도 이러한 특권이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나는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생활하는 경험을 최대한으로 갖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영원한 가족이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가장 위대한 모든 은사는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일로 얻게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가족이 해야 할 일을 계획하기 위하여 가족 집행 위원회 모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매주 계획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는 가족 구성원에게 그들의 지도자적 역할을 다지기 위해, 서로 자리를 같이 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월요일 밤에 갖는 가정의 밤 시간을 가족 평의회로 하여 그 모임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족으로서, 그리고 장차 부모로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가족이 함께 저녁을 드는 것으로 시작하여, 평의회를 가진 다음,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신전 준비, 선교사 준비, 가정 관리, 가족 재정, 직업 개선 문제, 교육, 사회 참여, 문화적인 면의 향상, 부동산과 동산의 재산 소유 및 관리, 가족 활동 계획, 여가 선용 및 과제 지명 등입니다. 가정의 밤 시간은 특별한 후식을 나누면서, 부모가 각 자녀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세째, 토요일은 특별 활동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일하는 데서 얻는 축복과 집안이나 마당, 정원, 밭 등을 보살피고 가꾸어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가족이 함께 하며, 즐겁게 일하는 습관을 기르는 가족 활동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째, 일요일이 매주 특별한 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세 시간 동안 예배 순서를 갖기에 앞서 여러 면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은 편한 마음과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교회에 도착하여 함께 집회를 즐기게 되어야 합니다. 그 날의 나머지 시간은 영적으로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웃차림도 그 분위기에 어울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들이라면 청바지나 티셔츠 차림이 아니라, 좀더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하겠고, 소녀들이라면, 바지 차림이 아니라, 편안하고, 품위 있는 웃차림을 해야 합니다. 그날은 가족이 경전을 연구하며, 제보를 연구하고, 개인 일지, 가족 역사, 편지 쓰기, 선교사 만나기, 친척이나 친지 방문,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3. 교회의 직분을 수행함. 교회에서 부름 받은 직분을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연구하고, 훈련 받고, 명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봉사하는 일이 주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표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과제를 잘 준비해 나가면 나의 비능률성으로 인해 가족이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보좌들과 고등 평의원, 정원회 역원, 가정 복음 교사 및 각 가정의 아버지와 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 개인은 효율적인 한 팀보다 절대로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4. 사회 참여. 나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주위의 착한 이웃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소수의 탈선한 자기 중심적인 무리들에게 우리의 가족이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빼앗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므로 주께서 약속하신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족이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이루어, 합당한 부모가 지도자적인 위치를 굳혀 자녀를 가정으로 맞아들여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주님은 강하고 훌륭하신 영광의 왕이십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살아 계셔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큰 신앙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로버트 월 심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 주님의 집

“계시된 진리, 빛 그리고 영원한 확신의 궁극적인 내용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 시 동안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한 신령의 원리에 의하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뿌리를 박게 된 사실에 대하여 찬증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스스로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와 안정과 자유의 버팀대로 서 있습니다. 더욱 확고하게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된 진리, 빛 그리고 영원한 확신의 궁극적인 내용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전물들은 경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주님의 집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신전은 지금 이 시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신전을 약 이천여 년 전 예언자 또는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지어진 고대 성전만을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오늘날의 현대의 신전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이 현대의 신전은 고대의 성전이 그려했듯이 주님께 현납되었고, 하늘로부터 합당한 권능을 위임받은 분들에 의하여 거룩한 의식이 집행되는 특별한 전물입니다. 신전은 참으로 조용히 경배드리는 집입니다. 누구나 조용 조용히 말하며, 대

부분 귀엣말을 합니다. 신전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흰 옷을 입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합당하고 순결합니다.

신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으로 인해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신전 밖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신전은 교육의 집입니다. 실제로 신전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계획에 관하여 알게 되는 교육의 집입니다. 신전에서 우리는 창조주와 구세주와 갖는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높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 17:3)

신전은 계시의 집입니다. 참으로, 계속되는 계시의 집입니다. 그 계시가 예언자에게 오는 것이거나, 진리를 구하는 회원에게 오는 것이거나, 계시를 열기 위하여 신전으로

오는 자들은 모두 계속 배우고 교화됩니다.

신전은 서약과 회생의 집입니다. 회생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노래하고 있듯이 회생은 하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신전은 보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을 살기로 서약하는 엄숙한 성 약의 집입니다. 지상의 사십 여의 인구가 신전에 와서 이러한 성 약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전은 젊은이들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는 집입니다. 이리하여 공통의 유대, 곧 오해, 불신, 심지어 이혼의 세상적인 위험을 초월한 유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전은 영원한 관계를 맺는 집으로 가족이 영원한 가족 단위로 결합되기 위하여 그곳에서 일순간에 “영원히 함께”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가족간의 작은 마찰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전은 합당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그들의 선조들을 위하여 신전 의식을 침행하여, 경전에서 예언하고 있듯이(말 4:6 참조), 자녀의 마음이 아버에게로 돌아켜지게 하는 특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그렇듯이, 신권의 원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전의 궁극적인 축복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혼신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범을 보이고, 핵심 단위를 이루게 됩니다. 경전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전 11:11) 애정이 가득하고 성실한 부부 관계에 반대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로 올바르게 엔다우먼트를 받고 통화된 어머니, 아버지 및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를 영속케 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을 위하여 마련하신 주님의 계획과 조화

를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되시는 여러분은 남편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였습니다.

“활에는 줄이 있어야 하듯이

남자에겐 여자가 있어야 하니니,

여자는 남자를 움직이나

남자에게 순종하고,

여자는 남자를 끌어당기나

남자를 쫓는도다.

서로가 혼자서는 아무 소용이 없도다.”

(하이아와다의 노래, 롱펠로우 시집에서, 보스톤, 휴튼 미플린, 1922년, 135페이지)

이 짓귀는 신전의 가르침과 부합됩니다. 몇 년 전, 아이다호에 무서운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 모든 재산을 완전히 다 잃은 사람이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물질적인 재산보다는 사랑하는 아내와 네 명의 자녀들이 실종되어 의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에 더욱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채 못되어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가족이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인근 응급 처치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 이어진 그들의 재회는 즐거움과 행복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환희를 느끼며 한 말은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백만장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의 가족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족은 참으로 특별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전에서 혼세와 영원을 위하여 함께 인봉되었습니다.

어제 나는 아름다운 젊은이 한 쌍이 신전의 제단 앞에 무릎꿇고 앉아 있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부신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결혼 성약을 맺었는데 그 성약의 말씀 중에 “천세와 영원을 위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결혼의 분명한 본질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를 이루는 빛과 진리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영원한 결혼은 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신전 안에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땅에서 매연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합당하게 지닌 자에 의하여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결봉하면 하늘에서도 결봉될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땅에서 매연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늘에서 영원히 매이리라.”(교성 132:46)

대리 침례를 받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신전으로 온 스물 다섯 명의 십대 청소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감독으로부터 그들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감독은 고대의 감독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침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시 24:3-4) 주님의 집에는 항상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은 청결이며, 그것은 조금도 타협될 수 없습니다.

이들 십대 청소년들은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는 경건한 정신을 지니고 왔습니다. 한 십대 소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700년대에 살았던 나의 선조의 한 사람을 위하여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으면 무척 자랑스러워요.

그분이 바로 저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제가 그분을 위하여 행하는 이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리라는 것을 알아요.”

이들 십대 청소년들은 바울이 성역을 베풀 때 행하였던 의식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고전 15:29)

신약 시대에 분명히 행하여졌으며 바울에 의하여 증명된 이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주님의 사도가 가르친 중요한 의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한 간증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 1:11-12)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가며 지상 생활에서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침례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대리 의식을 받고 있습니다. 경전은 다음과 같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요셉 스미스 2서 : 39)

구세주께서는 온 인류에게 불사불멸을 주실 권능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번에 단 한 사람을 위하여 대리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똑같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한 것이며, 똑같은 권능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교성 78:7)

모든 사람은 이 생의 궁극적인 목표로써 신전의 축복을 열심히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화평을 찾을 것이고, 안전이 참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진실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배우게 됩니다. 그곳은 격동과 투쟁에서 벗어난 곳으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찾기 힘든 완전히 혼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구세주의 훌륭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어린 양떼들아,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교성 6:34)

신전보다 안전한 기초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인간이 공들여 하는 모든 일보다 더욱 큰 것입니다. 신전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장애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김복 대관장이 방문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 목자를 알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여야 합니다. ‘나는 목자를 알기에 충분할 만큼 사랑을 지니고 공부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언젠가 뉴욕시의 큰 극장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 준 연극 배우의 감명깊은 이야기를 후비 브라운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연극을 마치자 장내에서는 터져 나갈 듯이 박수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는 두 번, 세 번 거듭 박수에 답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에게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죠. 시편 23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연극 배우답게 조금도 결함이 없이 완전하게 암송하였습니다. 암송이 끝나자 다시 우뢰와 같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배우는 무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노인 한 분이 맨 앞줄에 앉아 계십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십시오.”

물론 이 노신사는 놀랐습니다. 그는 멀면서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장내를 꽉 메운 청중을 두려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집에 혼자 있는 듯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는 하나님께 기도 드린 후, 낭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편 23 : 1-3)

그런 다음 그는 구세주께 직접 말씀드리는 듯이 어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편 23 : 4-6)

노인이 낭송을 마쳤을 때 박수 갈채는 없었습니다. 다만 장내에 있던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우가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도 역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시편 23

편의 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휴 비 브라운, “추구”에서 인용,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61년, 335-36페이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사도는 우리에게 목자를 아는 사람이 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는 경건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간증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계시와 영감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가족, 국가 : 가장 큰 세 가지 충성심,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4년, 156페이지)

목자를 아는 알제틴의 머리가 백발인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그의 교회 그리고 그녀의 동료를 위하여 일생 동안봉사하였습니다.

멜로 자매가 처음으로 몰몬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을 때, 그녀는 선교사들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녀가 상당히 세련되고 교양이 있으며, 높은 교육을 받은 구도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랑에 찬 가정에서 몇 차례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일요일 교회 모임에 함께 참석하자고 초청하자, 그녀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예배는 낡은 건물에서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구도자에 비하면 다소 누추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는 초대한 손님에게 감명을 주기를 원하는 두 선교사의 생각대로 잘 진행되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부의 지도자들은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역시 그들이 할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연단 위에서도 무엇인가 약간 혼동이 되었습니다. 가장 성스러워야 할 성찬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말씀이 나오기를 조바심하며 바라는 선교사들의 소망과는 달리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둘 아다니거나 우는 바람에 경건성이 깨어지기

도 했습니다. 깊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한 울Ken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절잖은 구도자가 얼마나 좋지 않은 첫인상을 받게 될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주로 매우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모인 회중들도 대체로 상류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선교사가 당황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물이 누추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저희도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하여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사회를 맡고 있으며, 새로 부름받은 지도자는 아직 예배 진행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사가 또 다른 문제에 대하여 변명을 시작하려 할 때 헤르타 멜로 자매는 그에게 다소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장로님 사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당시의 교회도 이러한 일을 것 아니겠어요!”

그녀의 영적인 통찰력과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얻은 목자에 관한 지식으로 그녀는 수세기 전의 전통을 훼嵬어 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웅장한 예배당과 올Ken을 초월하여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부들이 사도, 죄인, 심지어는 문둥병으로 따돌림을 받은 자들과 함께 가졌던 목자의 모임을 둘이켜 보았습니다. 그녀는 세든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모인 초기 성도들의 모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구주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목자를 알았기 때문에 심오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그리스도 당시의 교회가 이러한 일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따른 다음과 같은 권고를 실천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고, 그리스도

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며,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로써 일생을 채우라.” 약 30년 전 벨로 자매가 처음으로 참석하였던 그곳에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며, 잘 훈련된 감독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진실로 목자를 알았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이 지상에 처음으로 있었던 살아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시현으로 그가 구세주를 처음 보았던 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헛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6-17)

이 어린 예언자는 이 전무후무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계속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물고자 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입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려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이 들자 곧 빛 가운데 계신 그분들께 어느 교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물었었습니다. 그런 데 나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대답을 받았으며……”(요셉 스미스 2서 : 18-19)

십 여 년에 걸쳐 예언자 요셉은 부활한 사람, 고대의 예언자 그리고 장막으로부터 넘어온 천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50년 전 그는 구세주로부터 그의 교회, 곧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정식으로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곧 이어 예언자는 부활하신 구속주의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관해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걷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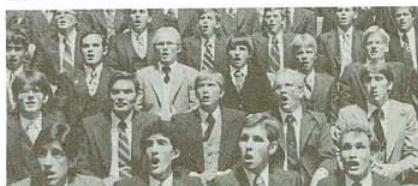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헛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교성 110 : 1-4) 이 같은 묘사를 기록한 예언자는 목자를 아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순교자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증언을 피로써 인봉하면서 그의 간증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모든 경륜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이며,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최초의 예언자로서 그에게 공적을 돌립니다. 그는 참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교성 135 : 3)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창립 150주년 기념 해에 요셉 스미스를, 목자를 직접적으로 아신 분으로서 그에게 명예를 돌립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하여야 합니다. “나는 목자를 알기에 충분할 만큼 사랑을 지니고 공부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구세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세주를 알게 되어 그를 면전에 대할 때, “내가 당신을 아나이다. 당신은 나의 목자 이시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새로운 회원을 효율적으로 맞이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 제 차례 여러분, 우리는 전세계에서 거의 모든 문화권과 환경으로부터 복음의 그물 안으로 모여 오는 수많은 “각종”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마 13:47 참조)

이들 중에는 세상적인 것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심계명이 없이는 파멸이라는 힘든 길을 걷기를 배웁니다.

다른 신회원들은 “행복하지 못한” 상태인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엘 41:11) 살기를 그쳤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살았던 세상살이는 “이류 여관에서 지내는 밤보다 나을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빌라의 성테레자, 맨콤 머거릿지 인용, “위대한 유언,” 임프리미스, 1979년 5월, 힐스데일 대학, 미시간)

어떤 사람들은 악마의 왕국에서 나온 자도 있을 것인데, 주님은 그곳에 속한 자들이 회개하도록 혼들어 깨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니이 28:19 참조) 이처럼 상처를 받았으나 신앙을 지닌 영혼은 세상에서 “모든 땅과 나라와 처소의 자유를 박탈하려는”(이더 8:25) 힘과 같이 영적인 자유를 찾아 어려움을 헤쳐 싸워 나갈 것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나 또는

그들의 훌륭한 문화를 저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영혼을 해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일상의 문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의롭게 생활하여 온 수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태도를 크게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먼곳에서 찾아온 분들이므로 우리는 그들과 십리를 동행해 주어 우정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없는 영웅적인 자질로써 믿음의 분계선을 넘어온다면 우리는 단연코 사람들로 봄비는 훌륭한 그들에게 다가가 우정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전학한 학교에 처음 간 날 느꼈던 불안이나,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또는 새로운 이웃에게서 느낀 서먹한 감정을 잊은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시온성에는 항상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권 지도자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주면, 우리는 그들을 친심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의

심에 찬 표정으로 맞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면에서 거부당할 것으로 알고 있을 터이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인정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가장 늦게 일하러 온 사람도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그들이 훨씬 전에 왔다는 것에 대하여 말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날을 가져 오기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마 20: 1-16 참조)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최초의 두 해병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몇 분 전에 배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해병대원이 갑판에 오르자, 그들은 해병대원이 된 것을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승선한 대원이 좀 늦게 승선한 해병대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네 좀더 일찍 이곳에 올 걸 그랬어 !”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하여 상류 계층에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고전 1: 26 참조) 그 밖에도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개인의 참된 자아를 가르쳐 주고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 똑같은 옷을 입게 하므로 교회에는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명 사전과 같은 책이 필요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냉혹하게 조롱당할 때에도 교회에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열심히 방주를 짓는 일에 꼴물한 노아에 대하여 텔레비전의 저녁 뉴스에서는 어떻게 묘사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우기 적들은 칭찬을 한다 해도 참아내기 힘들 정도로 냉혹한 관심을 보일 뿐일 것입니다.

새로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아도 교회만을 떠날 수는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적인 각광의 찬사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깊이 머리 숙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임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다니엘이 보았던 작은 돌이 굴러 내리듯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단 2장 참조)

다행히 수많은 “신입 회원”과 함께 탕자처럼 바른 정신으로 되돌아오는 소중한 사람들 이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 역시 따뜻하게 환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이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아들을 맞이하러 뛰어나가는 탕자의 아버지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자 혹시 그 아들이 다른 물건을 가져 가려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묻는 아버지를 비교해 봅시다.

새로 들어오는 신입 회원과, 탕자처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원은 찬송가의 현명한 가사의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 시온에 모일 때는, 근심 걱정 사라지고…… 순결과 거룩한 자신만이 보장됐다 생각말아라…… 성도 너희를 언제나 위로해 주며 네 복리만을 구하리라 생각말아라.” (찬송가, 43장)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그 사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곧 성도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참을성있게 함께 일해 나가는 시간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쳐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 (교성 81: 5)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속히 주님의 사업에 참여시키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것은 “오!”나 “아!”하며 감탄만 연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호미와 삽”을 들고 땀 흘려 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유명 인사나 지식인 또는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불러 들일 수 있게 합시다.

새로운 회원이 더듬거리면서 처음으로 여  
러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할 때나, 또는 자신  
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 합당치 못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기도 또는 말씀을  
사랑과 격려하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이  
조금도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에 만  
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  
해져야”(교성 82:14) 하기 때문입니다. 엘  
마 시대에도 몇몇 회원들의 그릇된 태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실상, 시온은 먼저  
우리가 징계받게 될 때까지 온전히 구속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성 100:13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점은 너무  
오래 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  
체에 가시를 받을 때, 곧 육신 생활이 고통  
스러울 때는 장미밭을 보고자 요구하지 말  
아야 하겠습니다. (고후 12:7 참조)

영원한 진보에 관하여 반에서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엄격하게 실천하  
여 항상하여야 합니다.

집 안이나 교실에서 배우는 복음 지식을  
교리상으로만 주고 받을 것이 아니라 실생활  
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가장 물의를 빚  
는 것 같아 보이고 별로 매력을 끌지 못하는  
교리와 임무가 곧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임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거나, 다시 돌아온 사람이  
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거나, 우리는  
모두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야 하며, 그  
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정표를 약간  
바꾸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  
5:2 참조)

우리가 낙심이 될 때 구세주께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구세주께 한 베  
드로의 불멸의 질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요 6:68)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행복의 계획”(엘  
42:8 참조)은 없읍니다.

우리는 긴장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 시  
대에 행하도록 부를 받은 기이한 일들에 대  
하여 조용한 결단력과 경탄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시온을……위로하  
시며……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  
사와 즐거움의 노래가 울”(니이 8:3)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한 시온을 지을 때, 우  
리는 “모든 것 잘 되리”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86장) 그러나 때때로 노래뿐 아니라  
확신에서 흐르는 눈물로 “슬픔과 탄식이 달  
아나”(사 35:10)는 약속된 날을 기다릴 것  
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방  
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  
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고후  
4:8-9)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다  
음과 같이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 공격을 당하여도 놀라지 아니하고, 거  
짓 고소당하여도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속임을 당하여도 그리스  
도인의 봉사로 대할 것이라.” 형제 자매 여  
러분, 우리는 스스로 걸어나니는 증인, 굳  
굳한 설교자가 되어 방판자들이 조용히 아  
멘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무화과나무에 잎  
이 돋으면 여름이 까까이 온 줄 알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그와 같을  
것입니다. (눅 21:28-30 참조) 예견되어 온  
여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더운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불평하지 마십  
시오!

구세주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두려워 말라. 어린 양떼들아”(교성 6:34)라고 말씀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자비로운 중재로 인간의 타락이 중지될 때까지 비록 우리가 잘못된 처우를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그를) 보”(교성 19:23)며 “열국 국민이 (그) 앞에서 멀겠”(교성 133:42)고, 그의 오심이 “모든 나라의 완전한 종막”(교성 87:6)이 될 것이고, 그의 율법 외에는 다른 율법이 없을 것입니다. (교성 38:22 참조)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인 신빙성에 관한 추호의 의문도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그물로 모여든 “각종” 충실한 자들에게는 의심은 사라지고 다만 해답만 있었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교회로 자비롭게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회원과 시온으로 다시 돌아온 회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문, 곧 예수께서 친히 지키시는 문에서 또 하나의 장엄한 환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우리를 맞이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가 친히 나오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니이 9:41)십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친절한 빛으로 인도하실 때 그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방문 회원들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천사장 아담

“마지막 날에 그의 나팔 소리가 부활을 알릴 것이고……  
주님의 군대장관이 될” 미가엘에 대한 연구

어느 여름날 나는 미주우리주에 있는 아담—온다이—아만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처음 가보는 길이었으므로 그 여행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웠습니다. 들판은 푸르고 언덕이 굽이쳐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이었읍니다.

그러나 풍경보다 더 감명을 주는 것은 그곳이 바로 아담이—이브와 함께—그의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이라는 의미 때문이었읍니다. 그처럼 엄청 나게 중요한 의미에 나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서 1 : 34 ; 교성 107 : 53 ; 84 : 16 참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성역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미 그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전세에 이미 구세주로서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이 이들 첫번째 인간인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제정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가

르쳤습니다. 그들 가족은 그것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서 5장 참조)

경전에는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가축과 양을 다스릴 때 이브는 “그와 함께 일하니라.” (모세서 5 : 1)고 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유인원이나 혹은 흑자가 주장하는 동굴 속에 살던 혈거인과는 전혀 달리, 매우 예지가 높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육이며 교육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 (교성 93 : 36)는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사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어때한 인간도 그들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초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업은 주님과 그의 천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읍니다. 그중에는 매사에 주님께 충성스러웠던 셋과 아벨이 있었으며, 개인도 있었읍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

은 언어가 보존되”(모세서 6:6)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사회에서는 아담의 언어로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모두 영으로써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언어로 쓸 수 있었습니다. (모세서 6:5-6 참조)

“이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천사가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몸소 하시기도 하고 성신의 은사로써 선포하기도 하여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느니라.” (모세서 5:58)

“그 때로부터 아담의 아들딸들은 둘씩 땅에서 나뉘어 토지를 갈며 양을 치기 시작하더니 저들도 아들딸을 낳았더라.” (모세서 5:3)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영광스러운 기간이었읍니다. 악마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아담의 자녀에게 “이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족 중에서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서 5:13 참조) 그들은 진리에서 어긋나갔읍니다.

이들 배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잊었으며 그 결과로 육체와 육욕의 악마를 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세서 5:13 참조) 이같은 악의 속성에는 반드시 퇴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될 때 혈거인이 살았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해서 놀랄 것은 없읍니다.

이러한 배도자를 중 한 사람은 가인이었읍니다. 그는 루시퍼와 무서운 성약을 맺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가인과 그 동생으로 인하여 주 앞에서 슬퍼하니라.” (모세서 5:27)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의 가축을 탐냈읍니다. 그는 동생을 죽여 동생의 소유를 장악하면 아벨의 양을 소유할 수 있다고 꾀이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읍니다.

최초의 살인이 발생하게 되었읍니다. 가인은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의 비극적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아담—온다이—아만을 떠나 놋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살게 되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아담의 시대에 이미 훌륭하게 세워졌읍니다. (요셉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편, 153, 165페이지 참조) 셋째 이노스와 같은 사람들은 장성하여 교회의 축복사가 되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신권 지도자의 권능선이 이룩되었습니다.

아담은 대관장단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구세주 바로 다음가는 권능을 지니고 있었읍니다. (가르침, 164페이지 참조) 그는 이 열쇠를 천지 창조 때에 받았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크신 대제사장이요, 아담이 둘째며” (가르침, 154페이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처음 놓이게 된 특권을 받은 아담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전세에서 매우 특별한 인격체로 있었읍니다.

사실로, 아담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현세에서 나오기 전에 그는 미가엘로 알려졌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아담과 미가엘을 분명히 똑같은 한 사람으로 동일시했으며 천사, 또는 하늘의 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별한 종임을 알았읍니다.

미가엘이 전세에서 이 세상으로 왔을 때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알려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의 자아를 지니고 있었읍니다. 비록 그에게 아담이라는 다른 이름이 주어졌으나, 그의 개체성은 변하지 않았읍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의 사망을 겪은 그는 다시 하늘의 천사로서의 그의 위치를 되찾았으며, 다시 그는 천사장이 되어 과거의 이름인 미가엘로 불리웠읍니다.

아담 또는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그가 지닌 역량으로 복천년이 있기 전과 후에 그

의 막중한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경전에 그렇게 써어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임무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천사가 되는 일입니다.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나의 천사장 미가엘이 나팔을 불것이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모두 깨어나리라. 이는 저희 무덤이 열리며 저들이 나올 것임이니, 참으로 모든 자가 다 나오리라.” (교성 29 : 26)

아담 또는 미가엘에게 주어진 이 부름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이 임무에서 그는 여전히 천사일 것임에 유의하십시오. 천사장이라도 천사는 천사입니다.

1835년 3월 28일에 주어진 교리와 성약 107편에서 그가 그날—약 100여 년 전—의 천사로서 그를 지칭하고 있으며, 그를 “미가엘이요, 왕자요 천사장”(교성 107 : 54)이라 불렀습니다.

복천년 동안 악마가 둑여 있을 것이나, 복천년이 끝난 후에 잠시 동안 악마가 풀려 나올 것이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그의 악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방위 군병을 이끌겠습니까? 미가엘 이외는 아무도 없으니, 천사장으로서 그의 위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가 루시퍼를 대항하는 전장에 그들을 이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천사장으로서 그는 이 지상에서 주께서 관심을 갖는 면에 계속 봉사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가 결국에는 승영에 이르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그의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구세주의 재림이 있기 전 일련의 사건을 알리기 위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것입니

다. 그 일곱 천사 중에 미가엘이 제일 마지막 천사가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 곧 천사장이신 미가엘”—여기서 주님께서 그를 분명히 천사라고 명시하고 계신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곧 그의 신분입니다—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 곧 천사장이신 미가엘이 자기 군세 곧 천군을 모으리라…… 그때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싸움이 벌어지리니, 악마와 그 군세는 전에 있던 곳으로 던집을 받아……”(교성 88 : 112, 114)

아담 또는 미가엘의 신분을 잘못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천년의 천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천사—천사장—요 부활된 인간으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1842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를 방문한 미가엘 또는 아담과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때에도 그를 천사—천사장—라고 말하였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의 음성이요…… 미가엘 곧 아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천사의 음성이니……”(교성 128 : 21) 이와 같이 그는 미가엘 또는 아담을 다른 천사들과 함께 열거하였습니다.

이처럼 1842년에 미가엘 또는 아담은 여전히 천사였으며, 이 지구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천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의 구세주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천사라는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구세주의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세주와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제일 먼저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으로는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담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나, 예수는 태초로부터 육신의 몸으로서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아담이나 다른

누구도 독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서 5:9 참조) 주님은 몸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아담에게 주어진 날, 성신이 그에게 입하였고 당시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성신의 능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독생자라.” (모세서 5:9)

그렇다면 누구든지 아담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탁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태초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경전에 명백하게 밝혀진 이 교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썼습니다. 그는 구세주에 대하여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을 지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하였다느노” (히 1:5) 그 대답은 물론 분명합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천사 중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천사장인 미가엘, 즉 아담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버지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위의 성구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에 대하여 계속 말하면서, 바울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맙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선포하였으며,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에 아담도 포함되며, 아담은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항상 그에게 복종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성구에서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멀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누가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도록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누가 갈보리 위에서 구속을 행하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태초로부터 죽임을 당한 번째 어린 양이셨습니다. 아담은 그가 온 인류의 조상이라는 의미에서만 구세주의 선조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아들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가인, 아벨, 셋 등을 포함하여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천년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의 자녀는 수백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독생자”를 가졌다 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다른 모든 자녀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둘려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육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과 그 밖의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 고아입니까? 아버지없이 태어난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담이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으로서의 독생자를 가지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였습니다. (행 17:29 참조) 예수는 영으로 제일 먼저 난 자이며, 육으로는 하나님께 난 단 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듭 예수를 그의 장자요 그의 독생자라고 일컬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구입니까? 그는 꿀벌의 상태로서의 인류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임명받은 천사장 미가엘이입니다.

1980년 바로 이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천사장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의 나팔 소리가 부활을 알릴 것이고, 루시퍼의 마지막 전쟁에서 주님의 군대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듯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이며,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아담—온다이—아만 골짜기에서 충실했던 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단 7:9-22, 교성 116편 참조)

이 경륜의 시대가 끝날 때 그가 자신의 청지기의 직분에 대한 보고를 그의 주님이 시요 구세주이신 여호와 그리스도께 보고할 것이며, 구세주께서는 다시 우리 모두에 대한 보고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가르침, 118, 164-65, 231페이지)

지)

여러분 중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진 적이 있거나, 그릇된 교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신권 지도자와 상담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간증드리노니,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킹 볼 대관장님은 그의 예언자이십니다.

우리는 회복된 진리에 대한 합법적이며, 하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방문 회원들



매리온 지 룸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 교회 본부 역원 지지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킹불 대관장을 예언자요, 선견자요, 제시자며,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지지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회중 가운데 몇 명의 반대 의사]

백콩기 장로 : 룸니 부대관장님, 세 분이 반대 의사표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반대 의사표를 표시하신 분들은 이 모임이 끝난 후 십이사도 평의회의 고든 비 힙클리 장로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룸니 부대관장 : 감사합니다.

네이단 엘든 태너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매리온 지 룸니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더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베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이상의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제시자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프랭크린 디 리차즈,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닐 에이 맥스웰, 칼로스 이 애시, 엠 러셀 벨라드, 던 엘 라슨, 로이든 지 레릭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 밖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매리온 더 행스, 에이 디어도어 터틀, 디어도어 엠 버튼, 폴 에이치 먼,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 시 먼, 로버트 엘 심슨, 렉스 디피네가, 윌리암 그랜트 뱅가터, 로버트 디헤일즈, 애드니 와이 고마쓰, 조셉 비 워스린, 진 알 쿡, 찰스 더데이, 윌리암 알 브

래드포드, 조지 피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더오거, 본 제이 페더스토운, 로버트 이 웰즈, 지 호머 더럼, 제임스 앤 패러모어, 리차드 지 스코트, 후 더블류 피녹크, 에프 앤지오 부쉬, 요시히코 기구찌, 로널드 이 포울맨, 레릭 에이 커스버드, 로버트 엘 백맨, 렉스 시 리브 일세, 에프 버튼 하워드, 테디 이 브루어튼, 짹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이상의 형제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판리 감독단의 판리 감독으로 빅터 엘 브라운 형제를, 제1보좌로 에이치 버크 피터슨 형제를, 제2보좌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명예 총판리 역원으로서 엘 드리드 지 스미스, 에스 딜워스 영, 스터얼링 더블류 살, 헨리 더 태일러, 버나드 피브록뱅크, 제임스 에이 첼리모어, 조셉 앤더슨, 존 에이치 반멘버그, 오 레슬리 스토운, 이상의 형제를 지지하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역 대표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 대표 전원.

주일학교 회장으로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제1보좌로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 제2보좌로 짹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남 회장으로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제1보좌로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제2보좌로 렉스 더 피네가 장로,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제1보좌로 매리언 알 보이어 자매, 제2보좌로 셀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녀 회장으로 엘레인 에이 캐년 자매, 제1보좌로 알린 비 다저 자매, 제2보좌로 노마 비 스미스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초등협회 회장으로 드웬 제이 영 자매, 제1보좌로 버지니아 비 캐년 자매, 제2보좌로 마이컬린 피 그래슬리 자매.

이상의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퀴볼 대관장님, 본부 역원과 총판리 역원에 대한 지지가 앞서 말씀드린 예의를 제외하고는 만장일치로 끝났습니다. \*

연차 대회를 갖기 위해 태버내클에 들어가는 방문자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선 택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것은 명성이나 평범 중에서, 또는 부와 가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4 월 연차 대회가 끝난 후에 총판리 역  
원이 동부인하여 참석한 문화 행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의 중  
점적인 행사는 교회 회복 100주년을 기념하  
기 위하여 브리감 시티의 박스 엘더 스테이  
크 상호부조회가 마련하였던 50년제 상자를  
개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자에는 신문, 메모,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는 나의 할머니이신 사  
라 아렐라인 와이트 패커 자매님이 쓰신 것  
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1902년에 유태주 코린에 있는 농  
장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당시에 그곳에는  
교회의 지부가 없었습니다.……나와 한나  
보슬리 자매는 코린과 인근 지역에 있는 모  
든 자매들을 방문하여 상호부조회를 조직하  
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처럼 방문을 하는 중에 우리는 자매들  
이 기꺼이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것을 알  
게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서두르  
게 되었습니다.”

그 문화 행사에는 또 다른 50년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각 부부가 초상화의 모델로 포  
우즈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이 한장을

받았는데, 그 종이 위에 메시지를 적어 초  
상화와 함께 상자 속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상자는 금년 말에 봉해져, 2030년에 개  
봉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메시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오늘  
이 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포함하여 합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말  
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내가  
가정 모임에서 그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연단에서 하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  
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  
하여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는 권고의 말씀은 가르치기도 어  
렵고 배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  
권고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상식적이고,  
창의력이 없는 지루한 것으로 간주해 버릴  
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언자를 통하여 그의 복음이 회복되었고, 충만한 복음이 이 지상에 있게 되었다는 기본적인 진리 이상으로 더 깊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본되는 진리 다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 주일 전에 나는 아내와 함께 런던의 호적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매리 헤일리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읍니다. 선교사들이 살아 있는 사람을 찾듯이 우리는 오래된 호적부를 뒤졌습니다. 우리가 열어 본 책들 중에는 수백년 동안 한번도 열려 본 적이 없는 책들도 있었읍니다.

나는 은총일 구제원의 감독의 기록서를 읽었습니다.

어떤 기록은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어느 여인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그녀는 자기 자녀가 공장 학교에서 심하게 혹사당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조사해 보기 위해 떠나도 좋다는 승낙을 얻지 못하였읍니다. 크게 낙심한 그녀가 “고의로 창문을 깨뜨린 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학교 점검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를 따라 대변이 쌓여 있어 배수로가 막힌다고 불평하였읍니다. 물과 오물이 학교 마당으로 들어와서 발목 깊이의 수렁이 되었읍니다. 어린이들의 신이 좋지 못하고 날씨는 추웠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해고 기록에는 “사망”이라는 이유가 여러 번 나왔는데 “만성 우환”, “열병”, “결핵”, “수종” 등의 설명이 침가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매리 헤일리의 기록을 찾았읍니다. 그녀는 에드워드 세이어즈와 결혼하여 열 한 명의 자녀를 두었읍니다. 그들 중 여섯 명이 일곱 살도 못되어 사망하였읍

니다. 그중 한 명은 화상으로 사망하였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열 한 명의 자녀 중 장성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읍니다.

그 사람이 엘리노어 세이어즈, 곧 내 아내의 증조 할머니이십니다. 그녀는 노포크 폴햄의 림웨이드 유니온 워크 하우스에서 태어났읍니다. 그녀는 그 가족 중에서 최초로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쓸쓸한 런던의 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하였읍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과 낮은 신분으로 특징지어져 있습니다.

엘리노어 세이어즈 하만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딸 에디스에게 주면서 미국으로 건너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에디스는 교회에 가입하여 남편으로부터 쫓겨났읍니다. 그녀는 여덟 살 난 딸 넬리와 함께, 한 선교사가 아이다호에 살고 있는 그의 가족이 그들이 자리잡을 때까지 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말에 조그만 희망을 걸고 영국을 떠났읍니다.

넬리는 나의 아내의 어머니였으며, 에디스는 할머니이십니다. 나는 그분들을 잘 압니다. 그들은 특별한 기품을 지닌 여성들입니다.

나의 본가는 영국 장원 영주의 후손으로 왕가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교양과 재산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 선조들의 위엄이나 가치는 엘리노어 세이어즈의 그것보다 더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에 못미칠 것입니다.

새라와 엘리노어, 에디스와 넬리, 이들은 특별한 기품, 곧 의로운 충성심을 지닌 여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계가 노포크 폴햄에 있는 구제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진실로 선하고 충실한다면 우리는 넬리 알려지고 또한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그릇된 관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성공이란 명성과 행운

을 마치 필수적인 요소처럼 수반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설 아래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설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달리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성공하고 진실로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것이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은 그러한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재산도 많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명성이나 행운이 성공에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스스로 터득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가 자기 방어적인 말을 한다고 일축해 버리기 쉽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 아님을 달리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명성과 재산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 그러한 요소가 성공이나 행복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의 발언도 역시 자기 만족에서 나온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성과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믿을 만한 권위자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명성과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 모두 객관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느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명예냐 부귀냐, 아니면 그 반대냐에 대하여 스스로 경험하여 배우는 시행착오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우리는 일생 동안 명예와 재산을 모두 잃을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참으로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소유한다 해도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참다운 성공과 행복의 기본이 될 수 없음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서서히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은 친절한 학교와 같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배울 수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벤자민 프랭크린의 자서전, 230페이지)라고 벤자민 프랭크린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얻고 시험받고 선택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이 현세로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세상 사람들의 자녀가 알아야 할 점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명성이나 평범 중에서 또는 부나 가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러한 교훈을 이해할 때, 행복이 결코 물질적인 것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물질적인 것이 있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와 명성은 항상 그것들을 염음으로써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명성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총판리 역원이라 는 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간증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총판리 역원이란 직책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짐을 지워주는 부름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수없이 되풀이 되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같은 작은 선택이 서로 묶여져 우리의 가치를 뚜렷하게 보여 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인생의 결정적인

시험은 명성과 평범 사이나 부와 빈 사이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은 선과 악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불행과 괴로움, 심지어 역경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반드시 진노하신 창조주가 가하는 형벌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것은 오히려 인생의 교훈이며 시험의 일부입니다.

전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체의 불구 또는 추하게 생긴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생긴 얼굴과 건강한 신체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청년기의 정열이나, 노년기의 쇠진으로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나 가족의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난과 비천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아마도 이것이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일 것입니다.) 앙이하고 호화스러운 생활로 시험 받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시험의 일부이며, 이러한 시험에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평등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하게 되는 동시에 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타와 바늘 구멍에 대한 이야기로써 그것의 어려움을 경고하였습니다. (마 19:24 참조)

이 메시지는 경전에 중심을 둔 것입니다. 물론 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니이 2:5)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첫째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둘째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죄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니파이이서 2:27)

구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잠언 22:1)

신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또한 물론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라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쫓으리니, 헐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펴 구제하게 되리라.”(야곱서 2:18-19)

교리와 성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지혜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니, 그리하면 부한 자가 되리라.”(교성 6:7)

“보라 영생을 가진 자는 부자なり라.”(교성 11:7)

우리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복음을 공부하십시오.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십시오.

의식을 받으십시오.

성약을 지키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나누어 질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러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부모는 자녀들 가운데 어느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각기 똑같은 사랑을 받습니다.

지위나 부가 없다고 해서 현세에서의 행복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것이 현세에서의 참된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생활을 해 나갈 여러분세대의 앞날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유명해지거나 부유해지지 않고도 이 현세의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 것에 무릎꿇고 감사드리는 나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간증을 가지십시오. 시온을 건설하십시오. 그리하면 진정한 성공과 완전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엠 러셀 밸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 구세주의 손길

“우리가 봉사함으로써 누군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게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지난 대회 이래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자녀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관의 역원 앞으로는 도움을 청하는 편지가 수백 통씩 날아 들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간청하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 딸을 위하여 어머니가 보낸 편지, 부모를 위하여 자녀가 보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편지의 내용은 모두 비통한 것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좀더 힘들여 영향을 미칠 때 영적인 고통을 겪는 그들의 상처가 나을 수 있게 됨을 개인적으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병과 신체적인 병을 모두 고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어느 여인은 다만 그의 옷자락을 만집으로써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이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출을 알고 멀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팔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누가복음 8:46-48)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행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어느 가정 복음 교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세주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1980년 7월 8일자로 내가 받은 편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1973년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임에 참석하려 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확인하지 않았지요.

“1975년에 저의 가정 복음 교사가 제 남편의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삼년 여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밖에 방문을 거르신 적이 없었답니다. 제 남편은 가정 복음 교사를 말동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의 침울과 불행의 짐을 풀었습니다. 남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친구를 가져 본 일이 없답니다.

“1978년 8월에 저희 가정 복음 교사는 이 사하게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더군

요. 저희들의 마음은 젖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방문하면 날 그 가정 복음 교사는 남편의 허락을 얻어, 간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었습니다.

“밸러드 형제님, 형제님께서 11월에 저희 스테이크에 오셔서 특별 노변의 모임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요. 저는 남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모임을 마칠 때 장로님은 저의 남편의 어깨를 껴안으셨으며, 주님은 장로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침례받게 되기를 바라시며 교회는 그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저의 남편은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루이지애나에 살고 있는 전 가정 복음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침례를 줄 수 있겠는지 물었읍니다. 그가 와서 침례를 베풀었읍니다. 일년 후에 저희 가족이 워싱턴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될 때에도 역시 그가 참석해 주었읍니다.

“장로님께서는 매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희들을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감화를 받았읍니다. 저희는 특별히 충실하신 가정 복음 교사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느 청녀 반 교사가 맡은 반의 한 반원은 맹인이었으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 반 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았읍니다. 교사가 소녀의 집으로 가서 크게 읽어 주면 소녀는 그것을 자신의 개인 발전 기록부에 점자로 옮겨 적었읍니다. 이같은 일을 2년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교사는 또한 다른 반원들에게도 그녀를 돋보였습니다. 교사의 지도를 받아 반원들도 맹인 소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에게 교재를 읽어 주어 결국 교재가 점자로 완성되었읍니다.

주님의 손길은 이 교사를 통하여 전달되

어, 이 소녀에게 뿐만 아니라, 맹인인 다른 많은 소녀들에게도 축복이 되었읍니다. 왜냐하면 본부 청녀 조직 사무실에는 그 점자 교재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구세주의 손길은 체구는 작으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여인은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 침례받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어느 일요일에 그녀는 그녀가 잘 알지 못하는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하기로 작정하였읍니다. 그녀는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곳에 있고자 했읍니다. 그녀는 어린 소년 옆에 앉았읍니다. 성찬이 전달될 때 소년은 여인이 성찬을 들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성찬이 소년에게 전달되자 소년은 자기의 뺨을 둘로 메어 반을 그녀에게 주었읍니다. 여인은 어린 소년의 이처럼 의미 깊은 친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 날 그녀는 선교사를 만나 “이 교회에서 어린 이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친다면 저도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읍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읍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세상을 비치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들 빛이니……”(니 삼 18 : 24) 주님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빛이 미쳤던 최근에 있었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반려자와 사별한 지 며칠 안된 나의 절친한 친구를 내가 방문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그에게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라고 묻자 그는 “아들 아이가 이해하도록 해주게나.”라고 대답하였읍니다. 그의 아들은 어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했었읍니다. 어머니가 여러 달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은 기도와 신령의 축복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그의 신앙이 혼들리게 되었고, 그의 생활에서 주님의 빛을 잃게 되었읍니다.

“아들 아이가 이해하도록 해주게나.”라는

친구의 말이 컷전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교회 본부로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하였습니다. 그가 도착하여서 우리가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는 동안 참으로 이상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많은 총판리 역원들이 우리 식탁 옆으로 지나면서 우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그가 바로 이 연단에 앉아 계신 십이사도 중 여덟 분과 악수를 나누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식당에 한꺼번에 그처럼 많은 십이사도가 들어왔던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무실을 떠날 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킴볼 대관장을 보게 되었는데, 나의 어린 친구가 “김볼 대관장님이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혼자 않은 상황이 또다시 우리와 킴볼 대관장님 사이에서 몇 분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와 함께 한 짧은 순간은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은 영원한 것이었고, 이 짧은 청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의 친구와 나의 마음은 이 짧은 순간 동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이 짧은 청년을 따뜻하게 감싸 주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나의 친구를 크게 감싸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걸세.” 그날 하나님의 예언자는 예언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구세주께서는 나의 친구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 주님의 빛으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네가 오늘 여기에 온 줄을

아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머니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혈신, 그리고 너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오늘 느끼게 해주셨다고 확신한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태도가 바뀌였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졌고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불과 몇 달 후에 킴볼 대관장님께 이 훌륭한 청년이 복음 선교사로서 충실히 근면하게 봉사하고 있음을 보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들의 가정에 온 예쁜 여자 아기는 겨우 오개월도 채 못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아기를 극진히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어린 손녀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아기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우리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하여 로간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와 나는 아들과 함께 무릎을 끊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병원으로 돌아와서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을 때, 나는 구세주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마치 손녀가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을 거예요.” 마음속이 평안해졌습니다. 구세주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곧 손녀는 하늘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같은 하늘의 손길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탕한 청소년, 비 활동 성년, 과부, 노인, 병자, 그리고 도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축복과 주님의 평화를 개별적으로 각자의 생활에서 느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와드나 스테이크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기술적인 면에서 잘 진행되는가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부모, 교사 및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구세주의 손길로 집행할 때 우리는 각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필요 사항을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과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

리가 봉사함으로써 누군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게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권고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활에 영향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충만한 복음이 이 지상에 회복되어 온 인류의 축복과 인도가 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태버내를 연단에 있는 태버내를 합창단과 총관리 역원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 말일성도의 30주년

“우리 생활이 보다 유익하고 행복하게 된 열 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는 아내와 함께 30주년을 자축하였습니다. 꼭 30년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젊은 선교사들이 영국 노팅엄에 있는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던 두 사람에게 그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는 대대로 영국 국교 신자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두 자녀가 있었고, 큰 기업체의 새 직장은 나에게 의욕과 보람을 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에 어떤 것이 더 추가될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생활에 빈 곳이 있다는 것, 즉 아직 충족되지 않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충족됨에 따라 우리 생활이 보다 유익하고 행복하게 된 열 가지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생활에서,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에서, 이러한 필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강하지

도 못하고 빈번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개인적인 기도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교사들로 인하여 정규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함께 기도드리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가족간의 친밀감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격체이며, 문자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었으므로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우러나오게 되었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되신 사랑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며, 함께 걷고, 그가 오늘날에도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진실로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역사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과 그후 여러 해 동안 신약에 관하여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융처럼 구속주께서 살아 계시다고 간증

하기 전까지는 구세주의 생애와 현세에서의 성역이 나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와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나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로서 알게 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어서 더 큰 사랑이 없다”(요 15:13)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친구이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째, 우리는 젊은 부부로서 불안정한 세상에서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와중에서 사춘기를 보았습니다. 나는 16세에 영국 근위대 대원이 되어, 그곳에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으며, 17세에 황실 공군에 지원 입대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년이 지난 그때 까지도 여전히 거리에는 파편이 남아 있었고, 상점에서는 식량 배급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선교사의 메시지에서 안정되고 보호받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며, 그가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의 교회와 그의 충만한 복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격동의 시대인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할 예언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자를 갖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바로 이 태버내를 안내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주님의 교회이자 이 지상의 왕국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관리하십니다.

네째, 우리는 선교사의 초청을 받아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임에서 참으로 우정어린 영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곧 참된 우정이 어떤 것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진정

한 형제 자매애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흔족”(엡 22:9)입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갖고 또 우리가 필요하며,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과거의 어떤 느낌보다도 훌륭하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학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의 다른 회원들을 방문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봉사 프로그램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일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배움으로써 얻은 급속한 영적인 성장에 발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연극, 무용, 운동 등—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계속해서 따뜻한 우정과 행복한 사회 활동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가정의 밤을 시작하면서 나의 가족과 가족 생활은 나에게 보다 의미 있고 값진 생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서 교회의 모든 회원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가족이 함께 모여 영적인 가르침, 즐거운 놀이 및 재능을 발표하는 저녁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며, 선교사를 통해서, 침례가 죄 사유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마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 이전에 죽은 어린이는 모두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되므로 유아 침례는 필요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우리는 유아 침례라는 반그리스도적인 교리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사망한 자녀 때문에 비통해 하는 부모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조부모, 증조부모 및 모든 조상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앤리克斯 헤일리의 표현처럼 “우리의 유산을 알고자 하는, 골수까지 스며든” 욕구입니다. (“뿌리가 나에게 주는 의미”, 리더스 다이제스트, 1977년 5월호, 73페이지) 누구나 가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까이, 어떤 이는 멀리, 어떤 이는 현세에 또 어떤 이는 사망하여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족으로부터 오는 힘은 모든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며, 선교사로부터 배운 프로그램과 원리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누구나 건강을 원하며, 가능하면 자신의 영이 전전한 신체에 깃들게 하고 싶어합니다. 나는 여려 해 동안 신체 내부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건강 신조, 곧 지혜의 말씀은 그 병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담배, 술, 흥차, 커피 등의 습관적인 각성제를 버린 것이 나의 생활과 아내와 자녀의 생활에 큰 축복이 되었음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약 1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힘을 가져다 주는 이 계시를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곱째, 나는 젊은 가족의 부양자로서 신체적 및 영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의 개인적인 진보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에는 이러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모든 종류의 자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가서 나는 교육 활동과 지도력 훈련 및 여러 종류의 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사내에서 발전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진보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으니, 우리는 선교사와 복음을 공부하던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하여 계획하신 영원한 진보의 계획을 배웠던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진보하고, 향상하고, 발전하고, 교양을 갖추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덟째, 이와 같은 필요 사항들과 함께 우리 대부분은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발전하고 탐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험담을 읽거나 새로운 곳을 여행 함으로써 이 같은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나는 항상 중동의 고고학, 특히 고대 애굽 문화에 대하여 큰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친구가 전해 준 메시지는 이러

한 욕구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 중동 지역에서 온 민족이 새겨 놓은 금판 기록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이 예언자와 고유의 문화와 함께 구세계를 떠나 신세계로 와서 현재의 미대륙에서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기쁨이 어찌했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록은 숨겨져 있다가,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대 소년에 의하여 발견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신앙과 합당성으로 인하여 이 판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형 문자의 기록을 번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손으로 복사한 개정된 애굽어 문자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진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전, 이 물본경을 손에 들고, 열심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영적으로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발견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물본경을 통하여 충족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고대 백성들의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물본경이 세상의 구세주, 곧 부활하신 후에 이 대륙을 방문하셨던 주님에 대한 현대의 증거임을 간증드립니다.

아홉째, 완전한 삶을 살지는 않았으나 양심을 괴롭힐 만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도 않는 나로서는, 나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나는 신앙,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및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불건전한 고리, 헛된 전통 및 왜곡된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한 상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이것은 청결하고 무죄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진 모든 인

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열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온 이래로 내적인 평화,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 4:7)을 느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암으로써 옵니다. 이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요 8:32 참조)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며, 참된 원리와 참된 의식을 가르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잘 들음으로써 가장 간절히 원했던 열 가지가 모두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나는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써 이 현세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음에 올 영원한 세계에서의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과 전세계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태버내를이 꽈 차서 들어오지 못한 방문자들이  
따사로운 가을 날씨에 태버내를 밖에서 대회 모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렉스 시 리브 일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 “내 양을 먹이라”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두려움의 장막을 젖히고 사랑으로써 친구와 친척과 이웃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가 진실로 그들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국과 아프리카에 있는 훌륭한 성도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사랑과 특별히 킴볼 대관장님과 이 단에 계신 총판리 역원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을 느끼고, 새로 침례 받은 회원들을 포함하여 충실히 회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차원의 혼신과 서약을 아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는 2만 명의 선교사의 부모들과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부부 선교사들의 자녀와 가족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행하신 것과 지금 그들을 지지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감수한 회생과, 매주 그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와, 매일 밤낮으로 그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선교사업은 가족이 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하는 이 시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더해 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이 위대한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은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초등협회 어린이들의 노래 가사가 이 위대한 진리를 말해 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다 함께 노래를, B-76)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출직하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불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어 그의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간증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간증을 구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상담하려는 사람은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길을 찾는 것

을 돋기 위하여 이 시대에 놀라운 기록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서반구에 살았던 백성들에게 행하신 행적에 관한 기록이며, 성경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물론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금판에 새겨진 기록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 거룩한 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 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 10:4)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시험하여 보고 문자 그대로 이것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간증을 얻었습니다. 이 간증은 그들의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고, 인생의 목표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령으로부터 이 간증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할 거룩한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선교 사업의 시대입니다. 삼만 여명의 젊은 남녀와 충실히 혼신적인 부부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의 모든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처럼 노력을 기울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기타 수많은 사람들 이 이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과 재산을 바친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충분하려면 너무나 멀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선교사이며 예언자이신 지도자가 지시하신 바와 같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면,

선교 사업에는 아직 눈이 뜨이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우기를 기다리고 있는 잠자는 거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잠자는 거인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날 때 낮으로 수확하는 날이 끝나고, 콤바인으로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천 명의 수확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 사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모든 회원—주님의 이름을 지고, 간증을 지닌 모든 회원—이 두려움의 장막을 젓히고 사랑으로써 친구와 친척과 이웃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가 진실로 그들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여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있고, 그들도 이 훌륭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모사이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 성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도록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 18:9)는 것입니다.

침묵의 증거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으니라.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구실이 있을 수 없나니, 저희 죄는 자기 머리에 머물러 있으니라.”(교성 88:81-82)

그는 또한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재능을 숨겼음이라.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나니, 내가 저들을 향하여 노여워 함이니라.”(교성 60:2)

“입을 열라. 그리하면 가득 채워지리니…

“참으로 입을 열고 아껴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등에 꼭식 다발을 더하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너희 입을 열라. 그리하면 가득

채워지리니, 이르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끝내 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이니라.”(교성 33:8-10)

주님은 다른 계시에서 교회 회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해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달의 왕국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회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교성 76:79)

마가는 구세주의 말씀을 이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막 8:38)

구세주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매려오기 위하여 노력할 때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때는 없읍니다. 시인 휘티어는 이 진리를 이렇게 읊었읍니다.

혼자서 오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나니,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할 때 그대의  
영혼도 구원되리라.

(“두 사람의 윤법학자”, 휘티어 시선, 보스턴 : 휴튼 미플린사, 1894년, 91-92페이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식, 채무 증서 및 소유물을 기재한 장부를 갖고 있습니까?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읍니다.

사람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해야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겠는지 주님께 여쭈어 달라고 청했을 때, 그는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성 15:6)고 대답했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값있는” 일을 기록해 둘 선교사 장부를 갖고 있읍니까? 여러분은 이런 개념에 흥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도움도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 선교사 장부를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예언자인 스펠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붙인 보통 장부입니다. 우리는 킴볼 대관장님의 사진을 그곳에 붙였고, 그 밑에는 그가 말씀하신 “결음의 폭을 넓히라! 지금 행하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사진을 붙였읍니다. 그런 다음 나는 이렇게 나의 서약을 썼읍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에 관하여 바로 지금 무엇인가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부에 일상 생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아직 교회 회원이 되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 놓았읍니다. 각 이름 밑에는 그들을 만났던 날짜와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바를 기록하였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를 보여 드리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암과 메이 브라운 부부의 경우입니다. 1979년 1월, 우리가 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전례없이 많은 눈이 내렸읍니다. 우리에게는 눈 치우는 삽도 없었고, 그것을 파는 곳도 없었읍니다. 나는 눈을 쓸려고 했으나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려웠읍니다. 필립 브라운이라는 젊은이와 그의 친구가 엄추더니 마당을 치워 주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들은 눈을 깨끗이 치워 주었읍니다. 내 아내는 필립 브라운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그 아들이 다음에도 다시 와서 마당을 치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을 잘해 주었다는 치하의 말을 전하였읍니다. 브라운 여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웃 사람들과 사귀어 보시지요?”

아내는 그녀의 집에 갔으나 오렌지 주스를 마셨읍니다. 그리하여 커피를 마시지 않는 이유, 즉 우리가 물론이라는 것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브라운 여사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물론 선교사들을 몇 명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은 확실히

훌륭한 젊은이들이더군요. 제가 교회를 바꾼다면 물론 교회로 가겠지요.”

결혼 42주년 기념일인 2월 19일에 우리는 초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과 메이 브라운 부부를 부르면 어떨까?”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화하여 “오셔서 함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청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즐거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론평과 말일 성도 찬송가를 갖게 되었습니다.(브라운 여사는 교회에서 을전을 반주합니다). 우리는 여행할 때 카드를 보냅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누구나 선교의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젊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장부에는 스물 아홉 명의 이름이 기재되었습니다. 그중 세 명이 이미 침례를 받았고, 한 명은 10월 3일에 침례를 받을 예정이며,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가가호호 방문할 때 한 사람의 구도자를 찾으려면 약 3천 개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90퍼센트 이상의 시간을 구도자를 찾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가족이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 버리고 사랑과 우정으로 이웃과 친구들에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수확이 클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참여한 가족은 모두 선교 사업의 큰 축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 창고에 쌓아 두는 자니, 파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라.”(교성 4:4)

“나가서 왕국의 이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일에 변함없이 꾸준히 충실한 자는 마음에 피곤을 느끼지 않겠고 어두워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몸이나 사지나 판철도 피로하지 아니할 것이며, 머리털 한 오라기도 아무도 물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교성 84:80)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88)

스테이크부장과 감독 되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관찰하에 있는 회원을 성결케 하고 싶으면—와드와 스테이크를 강화시키고 싶으면—그들을 선교 사업에 참여시키십시오. 젊은이는 누구든지 선교 사업을 수행 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오십년 걸릴 영적인 성장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젊은이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은 우정 증진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가족을 강화시키고 축복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우정을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와 구세주이시고, 그가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킹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사 정신이 깃들게 되고, 아직 우리가 지니고 있는 큰 축복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의 사업을 행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손은 바로 우리의 손이며, 그 음성은 바로 우리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증거 하거니와, 복음을 전파하면 크나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 “청컨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아직 고백하지 않은 큰 죄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감독님에게 가십시오.  
그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넘치는 축복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수년간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및 총판리 역원으로서 현대의 이스라엘에서 보통 판사로 봉사했던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오랜 경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원리, 즉 회개와 용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부인이 남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말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이 병든다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진정한 치유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영이 건강하면, 신체적인 손상은, 가령 신체를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일지라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 받으리라.”(교성 1:32)

“보라, 무릇 죄를 회개 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 : 42)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주 앞으로 나아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죄를 버리며,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58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 : 43)

우리는 항상 잡으로 진실하여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허클베리 핀”的 모험에서 허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멀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여 과거의 나를 청산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숨기려 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읍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식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벼리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제일 커다란 것을 불들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바르고 깨끗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려 하였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그것이 거짓 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거짓된 기도는 할 수 없다.……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뉴욕 : 플랫 앤드 링크, 1960년, 445-46페이지)

허클베리 핀이 웃았습니다. 거짓된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판사가 어찌한 판결을 내리든지 참된 회개가 선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실질적인 용서가 있을 수 없읍니다. 보통 판사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봉사합니다. 감독을 속일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성신을 속일 수는 없읍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는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감독의 사무실로 갔으나, 죄의 일부만을 고백하고 나온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자는 병든 양을 버려서는 안됩니다.”(빅틀 유고, 템파제라블, 뉴욕, 랜덤 하우스, 32페이지) 이 왕국의 감독은 높은 곳에서부터 지혜와 판단력과 자비의 은사를 축복받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죄인의 짐을 덜어 줄 수 있읍니다.

여러 해 전 늦은 밤에, 어떤 남자가 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혼자이신가요? 나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네 번이나 스테이크 사무실까지 차를 몰고 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읍니다. 하지만, 어제 밤에 용서가 놓는 기적을 읽으면서 모든 범법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범법을 고백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두 번이나 고등 평의회에서 봉사하였고, 감독으로 봉

사한 것도 두 번이나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동의하였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2년 전에, 아내와 나는 결혼하기 전, 즉 신전으로 가기 일주일 전에 순결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 때 감독님이 바로 아내의 아버지이셨는데 우리는 감독님께 사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신전 추천서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스테이크 부장에게 갔는데 그는 접견도 하지 않고 추천서에 서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신전에 갔습니다. 신혼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께 보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십분지 일보다 더 많이 바치고, 건축 기금도 우리에게 할당된 금액보다 더 많이 바치며, 복지 농장의 임무도 모두 수행하고, 부탁받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수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전에 가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여 일년 동안 신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범법한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용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나라이이서 9장 41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사람 앞에 바로가 놓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문을 지키시느니라. 주께서 그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며 그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 길에 이를 자가 없나니,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시매, 아무도 그를 속이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백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 아니고,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행하고 나서 구세주를 뵙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고백을 열심히 경청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고백이 끝났을 때 나는 교회를 대신하여 그가 용서 받았다고 말해 주었읍니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을 거론할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열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는 이것에 관하여 내게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또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그 사건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가 누구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함께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부인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차 안에 있어요.”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실까요?”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오. 아내는 생각도 하기 싫답니다.”라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부인에게 제가 지금 부인과 이야기하고 싶어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인의 마음에서 짐을 덜어 드리고 싶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이미 행한 일을 알지만 지금 그 일을 덮어 주고, 다시는 열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고 말해 주십시오. 부인에게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해 드리겠다고 말해 주십시오.”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것 같지 않군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여기 앉아 있어야 한다면, 부인이 들어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해 주십시오. 사십 이년으로 충분합니다. 부인께서 하루라도 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말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나가고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5분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집에 간 것이 아닌가 하고 주차장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꾹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고 약

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으로 가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겠지요. 그는 그녀에게 내가 밤새도록 사무실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결국 45분 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의자에 앉힌 다음, 책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께서 사십 이년 전에 부인과 함께 범법하신 것에 대하여 고백하셨습니다. 자매님의 짐을 덜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범법이 무엇인지 압니다. 모든 큰 범법은 고백해야 합니다. 자매님께서 직접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매님의 마음에서 그 죄의 짐을 떨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은 야생마를 끄는 것 같았습니다. 약 15분 후에 마침내 고백하였습니다. 나도 울고 그녀도 울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나는 그 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 그녀도 잊어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일어서서 그녀의 팔을 붙잡고 함께 진복도를 지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문 가까이까지 왔을 때 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나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42년만에 처음으로 깨끗함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발행한 소책자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어린양의 피로써 자기 웃을 셋기움을 받으면 더 이상 더러움이 없게 됩니다.”(스펜서 더블류 킹볼, 소책자, 친구로부터의 편지, 23페이지)

어느 날 어떤 자매가 나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는 내 책상에 바짝 다가앉아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장님, 저는 34년 동안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장님이 부드러운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부장님의 영혼에 조금도 짐을 더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복음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님이 자기 영혼에서 짐을 덜 때 신권 지도자의 영혼도 가벼워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내쫓기리라는 것을 알아요. 파문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파문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34년 전에 첫번째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낙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살인자라는 관념을 벗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낙태시키자는 것은 남편의 의견이었어요. 저도 반대하지 않고 낙태시켰어요. 후에 우리는 결혼하였어요. 그이는 결혼 후 2년 동안 내내 불충실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하였고, 후에 이 교회의 개종자인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저와 인봉되고 싶어해요. 부장님, 우리가 현세나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인봉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파문당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나요? 그녀의 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는 가장 기독교인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웃을 위하여 빵과 파자를 주었습니다. 와드 파티가 있어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청소할 때에는 언제나 바닥을 걸레질하는 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자매들과 나란히 서서 설것이를 하기에는 합당치 않으며 다만, 그들이 걸어다니는 바닥을 문지르는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번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평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감히 남을 비평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의 고백을 들은 다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낙태의 경우를 다루어 보지 않았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킴볼 사도님께 편지를 해서 그분의 권고를 따라야겠습니다.”

나는 킴볼 사도님께 편지를 써서 모든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 자매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기독교인다운 여인의 한 사람이고, 사도님의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2주일 후에 답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스테이크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스테이크 본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하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전화를 받은 후에 틀림없이 여러 차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책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께 일초도 더 지체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주지 않겠습니다. 킴볼 사도님에게서 온 편지를 읽어 드리지요.

“페더스토운 부장에게, 형제님은 34년 전에 낙태를 한 자매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형제님의 설명으로 보아 그 자매님이 오래 전에 이미 회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에게 교회를 대신하여 그 자매님이 용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은 그녀와 칠저하게 접견한 후에 신전 추천서를 발부하여 그녀가 신전에서 현재의 남편에게 인봉될 수 있게 하실 수 있읍니다.”

구세주께서 그 여인이 앉았던 곳에 앉으셨더라도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계셨으면 행하였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훌륭한 여인의 마음에서 천 근이나 되는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그 여인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범법에 대하여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최소한도의 벌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가능한 한 최대의 상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네가 뿌리는 대로……”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 올해의 말씀, 1955년 5월 3일, 7페이지) 나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그렇게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동안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번체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크게 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돌판을 내면 져서 그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태우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자(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다시 주님께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지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 : 32)

나는 아마 심각한 범법의 사례를 천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한 범

법자가 사무실을 떠날 때마다 나도 책상 뒤에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들은 내가 만난 가장 기독교인다운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없는 곳에는 있고 싶지 않나이다.”

그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흘날리는 눈과 같이 회개 될 것이며(사 1 : 18 참조), 주께서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성 58 : 42 참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교회를 대신하여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대리인이 되도록 위로부터 권능과 열쇠를 부여하신 그리스도 같은 교회 지도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간곡히 권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 고백하지 않은 큰 죄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감독님에게 가십시오. 그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넘치는 축복을 줄 것이며, 현대의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영혼인 여러분의 마음에서 죄의 짐을 덜어 줄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환난의 때를 위해 준비함

“주님은 큰 환난의 날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고에 귀기울여 왔습니까? 우리는 1년치 식품을 저장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사십년 이상이나 근면하고 자급 자족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빚을 지지 말고 십일조를 바치며, 금식 현금을 바치고 부자련하며, 적어도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식량, 의복 및 연료를 비축하라는 권고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권고의 말씀을 재삼 강조해야 할 이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복지 모임에서 우리는 이 권고의 말씀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 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경기 후퇴에 따른 물가 상승과 높은 세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자동차세, 일반 관리비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감독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의 재산을 현명하지 못하게 낭비하여 궁핍하게 되면 교회나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우리의 일부 회원들이 잊고 있는 것은 교회 복지 계획의 근저를 이루는 원리, 즉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 자신의 부양 책임을 교회로 전가하려는 사람은 참된 말일성도가 아닙니다.”(매리온 지 톰니, 대회

보고, 1973년 10월, 106페이지)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에게 제시된 첫째 원리의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열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펠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창 3:19) 물질적인 자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노동의 산물입니다. 생활 필수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노동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나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굽급한 많은 젊은 가족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활의 3대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가족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미망인과 다른 자매들에 대하여도 동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주님은 계시로써 그들을 보호하고 돋는 규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교성 83:1-2, 4-6 참조)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차림의 원리를 배워서 실천할 필요가 있읍니다. 언제 질병이나 실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 수 없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으며,

재앙에 대비하라고 경고하신 것을 압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총관리 역원들은 거듭 거듭 물질적 및 영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강조하겠습니다. 즉, 가정 생산 및 비축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사회나 국가의 교통이 마비되거나 전쟁이 나거나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이웃이 어떻게 식량을 얻겠습니까? 식료품 가게나 슈퍼 마켓이 얼마나 지역 사회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세계 제 2차 대전 직후, 나는 대관장단으로부터 유령으로 가서 선교부를 재건하고, 성도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배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이면 교외로 나가, 식량과 바꾸려고 작은 골동품을 한 아름씩 들고 기차를 타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녁 때면 기차역에는 채소와 파일, 풀풀거리는 쇄지와 닭 등을 들고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소음을 들어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식량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에서 잊을 수 없는 원리는 가정 식품 생산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가게에 가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취하는 식품을 생산함으로써 물가 상승이 우리 화폐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감소시키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식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족 모두가 유익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킴벌 대관장님께서 자신의 밭을 가꾸라고 재삼 강조하시는 권고는 참으로 시기 적절한 권고입니다. 지난 철년 동안 그가 강조하신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심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심어서 경

작할 것을 권유합니다. 딸기, 포도, 과일 나무 중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 적합한 것을 택하여 가꾸십시오. 마당에는 야채를 재배하여 먹도록 하십시오.”(성도의 벚, 1976년 8월호, 117-118페이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킴벌 대관장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실천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핑계로 합리화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여러분도 행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공터를 밭으로 이용하도록 허락을 얻거나, 땅을 임대받아서 밭을 가꾸십시오. 어떤 장로 정원회에서는 정원회 단위로 밭을 가꾸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채소와 파일을 수확하고, 협동의 축복과 가족 참여 등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잔디밭의 일부를 일구어 밭으로 만든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좀더 자립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에게 환난이 닥칠지도로……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교성 78:14) 되도록 격려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립하고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환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하여 경고하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식량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지혜를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지탱하는 물질이 적어 애쓰는 날에 자신을 돌보고 그려한 환난에서 구해 낼 수 없다면 여러분의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대회 보고 II : 51)

식량 생산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적어도 1년치 식량을 비축해 놓도록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식품을 비축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

회에서 발행한 소책자,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본질”(PGWE0392KO)에서 몇 가지 훌륭한 제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품 생산, 비축, 관리 및 주님의 최고의 견지에서 볼 때 밀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정략보다도 한 줌의 밀에 더 큰 구원과 안전이 있읍니다.”라고 올슨 하이드 장로가 말하였습니다. (설교집 2:2 07) 물론 물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 밖의 필수품에는 꿀, 설탕, 콩, 우유 제품, 또는 그 대용품, 소금 또는 그 대용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품을 생산하고 비축하라는 계시는 노아 시대에 백성들에게 방주에 오르라는 계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실적인 복지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일년 분의 양식을 비축할 때, 보통 때와 같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비축한다면 일년 분의 식량을 비축하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기 위한 식량이 아니라, 연명하기 위한 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소에 먹는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식품을 모두 비축하는 대신에 (이것은 대개 일반 가정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식의 1년치 비축을 생각할 때 우리는 1937년에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권고하신 방식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복지 대회, 1966년 10월 1일)

흙을 가까이 하여, 비록 소체원이 하나밖에 없고, 한두 그루의 과실수밖에 없을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양식을 생산하는 데 축복이 따릅니다. 자신의 식량을 생산할 줄 아는 능력과 선견지명으로 인하여 알맞은 식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복될 것입니다.

교회 총관리 역원들의 권고는 수년 동안 동일하며,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읍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의롭게 삽시다.

“전염병을 피하듯 부채를 피하십시오. 현재 갖고 있는 부채를 갚도록 합시다. 오늘 할 수 없거든 내일 하도록 합시다.

“수입의 범위내에서 생활하고 조금씩 저축합시다.

“모든 가장은 최소한 일년 분의 식량과 의복 그리고 가능하면 연료까지 비축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식량과 의복을 구입해야 하며,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돈을 결코 투기하는 일에 쓰지 않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모든 가장은 자기 소유의 집을 가져야 하며, 집이 저당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원이 있는 사람은 정원을 잘 가꾸고,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잘 가꾸시다.”(제이 루벤 클라크, 대회 보고, 1937년 4월, 26페이지)

일년 분의 생필품을 비축하기 위하여 부채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식량 비축도 저축처럼 계획을 세우십시오. 매달 봉급을 받을 때마다 비축할 돈을 조금씩 남겨 두십시오. 여러분의 체소밭과 과수원에서 나온 채소와 과일은 병조림이나 통조림을 해 두십시오. 식품을 건조시키거나 냉동하여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비축을 가계부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씨앗을 비축하고, 연장은 일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자동차나 텔레비전 등과 같이 조금 더 편하고 즐기기 위한 물품을 사려고 비축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순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우 긴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환난의 날에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목격했읍니다. 나는 유럽에서 극심한 기아 상태를 목격하였읍니다.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목격하였읍니다. 군인들의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 찌꺼기를 먹는 여인과 어린이들을 보았읍니다. 그런 장면과 그 이름 모를

이들의 얼굴은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함부르크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식량 주머니를 털어 주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량을 본 적이 없었읍니다. 또한 임산부들에게 오렌지를 하나씩 주었을 때 그들이 울던 모습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굶주림과 영양 실조로 인한 무서운 신체적 및 사회적 부작용도 보았읍니다. 어떤 자매는 폴란드의 집을 버리고 4명의 자녀를 데리고 1600킬로미터를 걸어왔읍니다. 그녀는 기아와 추위로 네 자녀를 모두 잃었읍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피골이 상접하고, 옷은 다 해쳤으며, 다 떨어진 신을 신은 모습이었으나 우리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축복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나는 빵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절을 성찬의 상징물로 삼던 프랑스의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읍니다. 기아 상태를 면하도록 갑자를 재배하라는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첫번째 수확의 일부를 잔악한 적이었던 독일 사람들에게 보내 준 화란 성도들의 신앙도 잊을 수 없읍니다. 그 다음해에는 수확물을 모두 독일로 보냈읍니다. 교회 역사상 이보다 더 그리스도다운 사랑과 봉사의 행위가 행하여졌던 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안일한 생활에 만족하고 빠져 들어서 이곳에는 전쟁의 파괴, 경제적인 재앙, 기근, 지진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계시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극도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서, 이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재앙을 면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같은 망상에 빠져 있었던 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환난의 날에 대하여 경고 하시고 또 경고하셨으며, 그의 종을 통하여 이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고에 귀기울여 왔읍니까?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주님의 영감을 받아 복지 프로그램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대관장단에서는 주님의 영감을 받아 1936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으며,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들풀게 하기 위함”(대회 보고, 1936년 10월, 3페이지)이라고 선언하였읍니다. 나는 1936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일년 치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스펜서 더블류 캠불 대관장님도 회원들에게 채소와 유실수를 심어서 자신의 식량을 생산하라고 권고하셨을 때, 주님의 영감을 받으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권고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백성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현재보다 더 훌륭해져야 합니다. 가정 생산과 비축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도 먹일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 가장 무서운 날들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교회 지도자 및 미래의 지도자를 위한 원리 및 제언

나는 오늘 저녁,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겸손해집니다. 나는 교회 지도자, 특히 장래의 지도자들인 젊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지도자의 책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집사 정원회 회장이 된 것도 그다지 오래 전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해 나가는 교회의 입장에서 지도력은 가장 큰 목표의 하나입니다.

나는 약 1년 전에 장로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단의 형제들은 모두 훌륭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원회 책임을 분담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순서에 이르자 그들은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책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째되는 원리의 하나는, 주님의 사업은 임무 지명을 통하여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임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위임의 원리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스스로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

여 나만큼 감사히 여기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님의 사업은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만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나는 종종 천지창조 때, 주님께서 그의 사업이 지원자에 의하여서만 수행되게 하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명을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또한 특권이자 명예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정원회의 모든 회원에게 임무와 목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에는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비활동 형제들과 부분적으로 활동적인 회원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항상 큰 사랑과 배려와 친절로써 임무를 맡겨야 합니다. 임무를 받은 사람은 존경과 감사로 대하여야 합니다.

총판리 역원은 정규적으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부터 임무를 지명받습니다. 그같은 임무 지명은 항상 그려하듯이 서신으로 오든지, 개인적으로 주어지든지, “좋으시다면” 또는 “편하시다면” 또는 “이러저러한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 지명이 명령조로 내려지는 경우는 결코 없

옵니다.

나는 세계 제 2 차 대전 때 처음으로 애급에 가본 이후로 고대 유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기둥은 여전히 서 있는 데 다른 기둥은 무너졌는지 관찰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 서 있는 기둥은 대개 그 꼬마기에 무거운 것을 엎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도력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권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무거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혼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정원회 지도자는 정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처지에 알맞은 부름을 받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도력을 쌓기 위한 가장 포괄적인 지름길을 구세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마 4:19) 지도자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부탁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는 교회 대판장이신 예언자의 치시에 귀기울이고 따름으로써 안전하게 됩니다.

몇 년 전, 나는 아르헨티나의 북부에 있는 로자리노 아르헨티나 선교부로 여행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이동 중인 수많은 소떼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소떼는 평화롭고 아무 어려움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소떼는 조용하였습니다. 소를 모는 개도 없었습니다. 소떼 앞에는 말을 탄 세 목동이 각자 15미터 내지 20미터 가량 떨어져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 목동은 소떼가 따라올 것을 완전히 확신하면서 말 위에 앉아서 편안히 가고 있었습니다. 소떼 뒤에는 한 명의 목동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짐을 차고 있는 듯이 안장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소떼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지도력이란 사분지 삼은 길을 보이는 것이고, 사분지 일은 확인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는 지시할 때 혼자 폭발하듯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자는 두목이나 독재자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되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자기 자리를 이어 받고, 그들이 교사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크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자기가 인도하도록 부름 받은 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도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하고 생활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무언가 감동을 받고 변화해야 합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는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거기에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훌륭한 경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권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에 기록된 지도력의 원리를 확실히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어떠한 신권 지도자도 효율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리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교성 121:41-43)

내 경험으로는 날카롭게 꾸짖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꾸짖을

때에는 항상 꾸중듣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꾸짖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부드럽게 행해야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높은 특성 중의 하나는 용기의 표준입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에게 용기가 요구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 용기란 육체적인 위험에 맞설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의 용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분명하고 정직한 확신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의 용기입니다.”(복음 교리, 141 페이지)

신권 지도자는 주님을 믿는 신앙과 겸손을 간직함으로써 확신을 갖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통과 깊은 사색이 요구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상은 분명합니다. 그 응답은 이노스에게 임한 방식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이노 1:10)라고 말하였습니다. 또는 교리와 성약 제 9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지도자는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이 같은 확신을 받은 후에, 마음속에 지금 행하는 일이 바른 일이며, 주께서 친히 행하신다 해도 그가 바로 죄하실 방법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확고한 방침을 짜를 수 있습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의 겸손한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 전, 그는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름만큼 위대하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했던 어떤 경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 전, 페실베니아주 포코노 산중에 있는 호텔에서 국제 로타리 클럽 회장이 지구 책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한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칭찬하였으며, 여러분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고, 갈채를 보내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개인에게 행한 것으로 오해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내년에 클럽에 가 보십시오.”

“이 말은 나로 하여금 나의 성스러운 부름 앞에 겸손해지게 만들었읍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나에게 명예가 돌려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이 나 개인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징일 따름입니다.”(대회 보고, 1958년 10월, 57페이지)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대부분이 무경험, 능력의 결핍, 학식이나 교육의 미숙 등을 이유로 자신이 그 부름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에 관한 설명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 12:3)

여러 해 전에, 당시 포트워스 텍사스 스테이크를 관리하던 존 웰리 스테이크 부장이 페리스 벨라스퀘즈 형제에게 스페인인 지부 지부장의 부름을 주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내 기억으로, 이 훌륭한 형제는 철도에서 기차 점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웰리 부장이 이 직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자 그는 “부장님, 저는 스페인인 지부의 지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글을 못 읽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웰리 부장은 그가 그 부름을 받아들여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지지할 것이며,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겸손한 형제는 하나님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부장으로 훌륭하게 봉사하였고,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또한 지금도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종들을 축복해 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

권 소유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도 있으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 예지와 이해력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신권 정원회는 그 구성원들이 튼튼한 정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재능을 바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신권을 통한 교회 행정에 있어서 지도력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도는, 우리 교회 행정의 특징은 평의회를 통한 행정입니다. ……나는 평의회를 조직하신 것을 보면서, 왕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지 못하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갖는 정신 안에서 전혀 다른 관점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정신을 발휘하고 함께 협의함으로써 일치할 수 있습니다.”(대회 보고, 1953년 10월, 86페이지)

지도자로서 함께 협의하는 것이 부장단, 회장단 또는 감독단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결정을 내릴 때 통일하기 어렵거나 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주셨습니다.

“감독과 보좌가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혹은 부장과 보좌가 그들의 감정과 정책에 차이가 있다면, 함께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얻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진리를 볼 때까지 스스로를 겸손히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복음 교리, 142페이지)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개인적인 의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과 가정을 질서있게 하여야 합니다. 정직하고, 모든 청구서의 청구액을 즉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모든 땐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할 만하고, 고결한 인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신의 인도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남미에서 지역 관리자로 봉사할 때,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였습니다. 당시 나는 브라질에 살고 있었으므로 돈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스 프랫 형제가 몬테비데오 시내에 있는 환전상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나를 직원에게 소개하고, 그 직원은 1,000불을 바꾸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현금으로 1,000불이 없고,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발행한 수표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환전상은 한번도 나와 거래해 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나를 본 적도 없었고, 다시 나를 만나리라는 기대도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의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내 명의로 1,000불이 예치되어 있다



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내가 물론이며, 과거에 물론들과 거래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수표를 받아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의 신임에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회장의 임무는 감리하고 평의회에 참석하며 “성약에 따라”(교성 107 : 89)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약은 많이 있지만 교리와 성약 84편에 있는 엘기세덱 신권의 맹세와 성약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권 소유자와 주님 사이의 계약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신권의 율법에 따라 생활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능력내에서 모든 축복을 주어 나처럼 될 수 있게 해주리라는 것입니다. (교성 84 : 33-39 참조)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의 지도력을 훈련시킬 때 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 : 32)

신권 모임을 갖기 위해 태버내클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

주님께서 굳게 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훌륭한 대화자가 되지 않고서 굳게 강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계획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서로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예가 흔합니다.

지난해 나는 중미의 새로운 스테이크에 새로운 축복사의 부름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젊손한 사람의 큰 신앙과 의로운 생활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아내는 신전 여행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성자 같은 형제에게 이 큰 부름을 줄 때 그의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매우 특별한 것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의 교회에서 부름을 줄 특권을 지닌 분들에게 권고하거니와 부름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를 참여시키십시오. 또한 가족의 일원에게 부름을 주기 전에 그 가족의 가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제 1 보좌

## 마음과 영을 청결케 함

음담 패설, 춘화, 외설 서적, 음란한 농담과 말, 텔레비전  
쇼나 영화를 멀리하라는 권고의 말씀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밤, 지명받은 것으로 그만한 권리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전투에 대비하라는 경고의 음성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권고는 전세계의 모든 신권 소유자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열 두 살의 집사뿐만 아니라, 장로나 대제사인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파괴를 일삼는 사탄의 군대는 전세계의 어른과 어린이들의 심장부에 점점 더 혹독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권 군대의 홀륭한 정예 부대의 많은 형제들까지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스러운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이곳에 그런 습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예화될 수 있었거나 되었을 사람도 있다는 점에 걱정이 앞섭니다. 나는 아리조나주 동 중앙 지부의 환경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거기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눈으로 덮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얀 산이라고 합니다. 중앙 아리조나의 농업용수와 가정용수를 충족시켜 주는 주요 물줄기는 대부분이 산정에서 시작됩니다. 피닉스시의 가정에 공급되는 물도 이 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겨울에는 눈으로 덮이며, 때로는 수미터씩 덮이기도 합니다. 그 시냇물은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깨끗하여 생동감을 줍니다. 이런 시냇물은 산 아래로 흘러 계곡을 통하여, 결국에는 가뭄에 대비하여 저장하게 되어 있는 큰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또한 동부 아리조나에는 매장량이 풍부한 광산이 많이 있어서 수년 동안 주요 금속의 하나인 구리를 캐내었고 지금도 캐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냇물은 하얀 산에서 시작하여 이 광산촌으로 흘러서 광석 제련을 위해 공업용수로 쓰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이 시냇물에 섞여서 물을 퇴색시키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런 시냇물도 역시 큰 저수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어떤 계절에는 템 상류의 산에 폭우가 쏟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내려올 때에는 엄청난 흙이 셧겨 나갑니다. 수풀과, 때로는 나무도 셧겨서 강을 따라 그저수지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저수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큼 엄청난 수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덩이에서 나오는 시원하고 깨끗하며 맑은 물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여름 장마로 인한 홍수 물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바위와 콘크리트 뼈 뒤에 쌓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의 일부는 백만 명 이상의 가정 용수로 공급됩니다.

물론, 이렇게 뼈 뒤에 저장되어 있는 물은 쏟아져 들어온 불순물 때문에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과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뭇잎과 가지, 죽은 동물을 걸러내는 커다란 체와 굵은 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과 장치는 절절 세밀해져서 다른 유해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와 같이 정밀한 여과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계곡의 사람들이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정화되어 도시의 송수관으로 보냅니다.

이 지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생의 경험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우리 주위의 유해한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은 채 맑고 선하고 정결했습니다. 어릴 적엔 우리 마음이 사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에 물들지 않고 순진했으며, 유해한 일이나 사탄의 영향에서 멀어져 있었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대한 저수지와 같아서, 옳은 생각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지저분하거나, 쓸모없는 것 까지도 받아들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따라 음담 패설, 춘화, 외설 서적, 음란한 농담과 말을 접하게 되며, 좋지 않은 텔레비전 쇼나 영화를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수용할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영원히 잔적됩니다. 불결한 생각으로 오염된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더러움과 부도덕으로 꽉차게 되어 온 인류는 고사하고, 자기 가족

이나 자기 자신에게 조차 영적인 힘이 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하는 과정이 옳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혀 하지도 않았을 것을 말하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유해하고 불건전한 경험과 생각의 흐름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사악한 행동은 옳지 못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옳지 못한 생각은 저속한 이야기, 춘화, 음담 패설 등과 같은 악마의 여러 가지 산물로부터 생겨납니다.

저속한 것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불경함과 저속함이 행동 수단이나 표현 수단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활 수단으로 통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일단의 남성들과 사업상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고, 자기 직업 분야에서 유능하며, 서로 친절했지만 그 대화는 불경스러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보이드 케이 패거 형제님은 “불경스러움이 흔하게 산재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묵인 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뉴이라, 1976년 1월호, 5페이지)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의 회생자입니다. 조악하고 무례한 말을 노골적으로 사용할 때만 저속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속함이란 그렇게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속함을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약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적인 나약함을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약점을 나타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와 그 기능에 대한 농담이나 이야기를 할 때, 여자들에게 대한 농담을 하거나 말을 껴낼 때, 또 신성한 것을 함부로 말할 때입니다. 신체 부분이나 성적인 문제

에 관하여 함부로 말할 때 저속하게 됩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일상적인 속어나 가장 저속한 말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라도 나쁜 말을 하거나 저속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설 잡지나 저속한 영화나 텔레비전 쇼를 보거나 부도덕한 대화가 오가는 사람들 틈에 있을 때에 이런 개인적인 약점이 조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모두 영성을 약화시키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엡 6:16) 방어하기 힘들게 할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미성년자 판람 불가의 영화나, 저속한 영화를 보거나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외설물이나 춘화나 음담 패설이나 부도덕한 농담이나 유익하지 못한 경험담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가끔 우리는 잠시 멈추고 “내가 어떤 군대에 속해서 싸우는가? 누구의 전선을 방어하고 있는가?”하고 자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히 저속한 영화를 보십니까? 또는 보고 들으며 “이런 것은 곧 용납될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흥미거리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음란한 성적 대화나 심지어 그런 행위가 나오는 텔레비전 쇼로부터 자기 가정을 지킬 만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러한 쇼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강력한 영성을 파괴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찌꺼기를 먹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정지시켰다고 가정할 때—감소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정지시켰을 때—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이라는 큰 저수지를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생각이 다시 깨끗해지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여과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과

장치의 효력 여부는 우리의 생활 양상에 달려 있습니다. 순결한 우리 마음보다 더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학교나 신권회에서 가르치고 보고서를 준비하며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많은 임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이 조화를 이루어 성령의 지시대로 말하고 가르치며, 행동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값진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아무리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밤 기도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나쁜 습관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절과 불행과 무기력함과 실망이 계속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여파 장치에 정화 장치를 부가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매일—긴 시간이 아니라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경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영적인 순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소년이라면, 오늘 밤부터 경전을 읽기 시작하여 하루도 경전을 읽지 않고 보내는 날이 없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킴볼 대관장님께서 70여 년 전 여러분 나이에 실행하신 것입니다.

세째로, 남을 위하여 그 사람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을 할 때에 오는 즐거움으로 자신의 영을 채우십시오.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매일 행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상냥하게 인사를 하거나, 잠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짧은 편지를 띄우는 것입니다. 또는 지지분한 양말을 정돈하는 정도로도 어머님이나 부인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 20:27 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자신에게 문제 가 되는 계명을 택하여서, 그 계명을 통하여 축복받을 수 있게 진심으로 노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과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한 보상을 받는 비결입니다.

첫째, 좋지 않은 생각의 흐름을 정치시키 십시오. 우리 마음의 큰 저수지를 채울 체 험을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둘째,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영성을 순화 시킬 효과적인 여파 장치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세상적인 웃을 벗 고 의의 병기로 무장하십시오. 자기가 소유 한 신권의 권능이 자기 가정과 와드와 정원 회와 사회와, 조국 안에서 영원히 힘찬 영향 力을 미칠 수 있게 하십시오. 자기가 소유한

신권의 권능이 블로소득이 아닌 의의 산물 이 되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 가진 신전 모임에서, 롬니 부 대광장님은 간증을 마치면서 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영원히 충실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오늘 밤 이 신권의 군대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일의 우두머리로 구세주가 계시다는 간증과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흄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교성 4:2)고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친구로서 또한 형제로서 여러분이 이전에는 결코 하지 못했던 정도로 준비하시도록 간청합니다.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침실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





로버트 월 빅먼 장도 전기인 죽는 것의 회

## 교회의 청남에게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되겠다”  
“신전에서 결혼하겠다” “교회에서 언제나 활동적으로봉사하겠다.”

지난 여름에 내 사위가 손자에게 신권을 부여할 때 거기에 같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로서 큰 영광이었으며, 로비(손자)가 나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때부터 그의 생애에 일어난 이 영광에 관해서 또한 할아버지로서 그의 아버지가 주님의 영감을 받아 행한 축복에서 약속한 것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말할까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로비와 내 앞에 앉아 있거나 온 세계에서 듣고 있는 이 숭고한 아론 신권의 군대의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면서 선교사들이 임무를 시작할 때 그들과 겹친하는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훌륭한 경험입니다. 때로는 선교사들의 충격적인 배경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 마을 주정뱅이의 아들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부름을 받고 솔트레이크시티의 선교 본부로 오기 위하여 버스를 탈 때, 그의 아버지가 전송하려 나와 그에게 “네까짓게 뭘 하겠니.”라는 마지막

말을 한 것을 보면 술이 취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 선교사와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린 시절에 여러 차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까짓게 뭘 하겠니.” 그리고 주님의 대변자로서 부름받은 그 훌륭한 선교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선교사가 훌륭한 선교 활동을 하도록 돌보아 줌으로써 그 아버지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훌륭한 동반자와 짜지어 주고, 비상한 관심과 매일매일의 기도로 보살폈습니다. 그는 그동안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나는 해임 날짜가 가까워졌을 때에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제 그 젊은이는 선교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름인 지역 관리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경험이 많은 감독처럼 그 지역의 대회를 감리하였습니다. 나는 그 젊은이와 동료 선교사들 사이에 깊은 사랑의 유대관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헌신적인 봉사와 간증에 힘입어 교회로 개종 한 수십 명의 개종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모임 중, 적당한 때를 골라 팔로

그를 간싸고는 목메인 소리로 “누군가 너에게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똑바로 나의 눈을 쳐다본 뒤에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장님?”하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그 장로의 생활에 그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 와서 소심한 시골 소년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성장시켰습니까? 그는 인생의 시련에 대처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무장할 준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모든 젊은 말일성도들이 성장하면서 이곳에서 또한 내세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모두 성취시키려면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력과 위엄과 함께 하나님과 똑같이 될 능력이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성 84 : 38)고 약속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이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큰 발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장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의 권리와 복음의 원리를 함께 나눔으로써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이 지성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미국 동부에 사는 훌륭한 청남 한 명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는 말일성도가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스물 다섯 명의 비회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종별 파티를 갖도록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파티 도중에 “행복의 추

구”라는 필름스트립을 보여 주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이유를 설명한 뒤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그를 열싸안고 그를 사랑하고 치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선교사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지만 친구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영원히 감화시키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청소년 대회에서 다섯 명의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최근에 비활동 회원이었으나 친구들의 강력한 권유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그 친구들이 그를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 대회의 영과 네 친구들의 사랑에 감화된 그 소년과 그들은 서로 올바른 생활을 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오늘 그는 주님을 위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를 놀보아 준 동반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젊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봉사의 기회가 신징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보상받는 생의 큰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실로 부를 이룩하거나, 명성을 얻거나, 좋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행복은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자기 본래의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신권의 권능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이런 지식은 남에게 봉사하고, 주님의 대표자로서 그들을 축복하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은 멜기세덱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따르는 위대한 영적인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함에 따라 그 성신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천사의 성역을 베풀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성 84 : 39 참조)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

셨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88) 심지어 축구장에서, 교실에서, 서재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오끼나와에서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 아론 신권 형제들이 성찬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태도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순서를 맡았을 때에 두 집사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그중 한 형제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구세주처럼 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에게 “아론 신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꿰고 단상 너머로 내려다 본 뒤에 “그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영광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인 형제들이 그 성스러운 부름에 긍지를 가지고 성찬식에서 했던 것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집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랑하는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서 그를 돋도록 그의 모든 아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으시며, 실제로 그분을 대표하는 위대한 과제를 잘 해내리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며, 다른 소년들이나 젊은이들보다 더 낫지는 않더라도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신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동료들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복음의 쇠막대에 매달리고 성스러운 부름에 대한 궁지를 갖는다면 유혹과 사탄의 힘에 저항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충실히 아론 신권 소유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요소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원숭이 몇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그들은 코코넛의 상부를 잘라 내고, 속을 긁어 내어 그 상단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코넛을 땅에 줄을 매어 고정시키고 그 안에 땅콩을 넣습니다. 원주민들이 차리를 비키면 맛있는 땅콩 냄새를 맡은 원숭이들이 다가와서 안에 땅콩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넣어 움켜くなります. 그러나 땅콩을 천 채로 빼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 원주민들이 와서 원숭이를 자루에 담아 가는데 원숭이들은 할퀴거나 물거나 소리를 지르지만 절대로 땅콩은 놓지 않습니다.

하찮은 일 때문에 중대한 일을 희생시키는 원숭이 함정에 빠진 분은 안 계십니까?

청소년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유혹적인 노래나 소위 친구라고 하는 자들의 놀림이나 부추김에 의하여 또는 여러분의 앞에 있으며 결국에는 속이 빈 것을 알게 될 유혹의 상자에 사탄이 집어 넣은 음흉한 악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기가 믿는 것을 수호하고 신앙에 충실할 수 있는 용기를 발전시키십시오.

최근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에 아주 영적인 후인 소년이 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닥쳐온 새로운 진리에 도취된 나머지 열심히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려고 노력했읍니다. 그들은 복음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응을 보였읍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선봉하는 데 엄격한게 다 뭡니까?”라고 대

답한 그가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나는 살아오는 동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앤마는 “죄 한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앨마서 41:10)이라는 엄연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의 말을 믿으십시오. 인생 행로를 계획할 때에 자기가 신뢰하는 형제 자매의 경험과 신앙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지런히 진리를 추구하고 그 훌륭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려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롭고 윤택하고, 보상을 받으며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왕국을 전설할 강한 형제를 필요로 하시며,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야말로 그가 바라는 가장 훌륭한 형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이스라엘 시온 군대 언약된 날의 자녀들”(찬송가 152장)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관한 노래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킴볼 대관장님이 그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임무를 지닌……고귀한 세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엔사인 1976년 5월호, 45페이지)

여러분이 해야 할 특별한 일에는 나라의 통치자나, 입법자, 사업가, 선생님, 무역업자, 농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임무는 시온의 왕국을 건설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준비하면서 닥치는 대로 수립하는 계획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장기적인 목표와 또 성취하려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5년 또는 10년 또는 25년 동안에 할 일을 생각해 보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인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장애가 될 것은 아무 것도 없읍니다.

내가 여러분이라면 바로 지금 자신의 중요한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이 첫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젊은이가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킴볼 대관장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을 예언자로 지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까짓게 월 해라는 말을 들은 그 선교사처럼, 선교사로서의 경험은 여러분의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목표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하기만 한다면, 신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며, 또 누구와 어떻게 메이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모든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활동적으로봉사하겠다.”는 것이 세번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달이되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참된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형제애에 대한 것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타는 듯한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표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다음의 목표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 “신전에서 결혼하겠다.” “교회에서 언제나 활동적으로 봉사하겠다.” “그리하여 유혹에 굴복하지 않겠다.”



김볼 대관장 부처와 디 아서 헤이코크 장로가 대버내를 밖에서 방문자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

일단 그런 기본적인 결정을 하였으면,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집회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복음을 공부하는 등의 목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원칙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화평과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자자 유일하고 중요한 임무가 있고, 이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소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이해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깊은 신앙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고, 유혹과

사악함 앞에서 온전하고 굳건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은 성장하고 배우고 봉사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주어진 바로 여러분의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 대한 사람의 표시로 일생 동안 바치는 고귀한 봉사 정신으로, 또한 여러분이 훌륭한 모범과 이웃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일부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여 좀더 훌륭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시온 군대……힘차게 일어서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대가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매리온 지 룸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 신권에 따르는 맹세와 성약

“영생을 향하여 최대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대회 일정에 따라 이 시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성대한 대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신권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교성 84 : 39)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교회 조직 150주년 기념 행사 중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교회가 조직되기 10년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성약의 백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새롭고 영원한 서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성약의 백성을 이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맷는 성약에 의하여 교회에 들어옵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에 따른 새롭고 영원한 서약은 해의 왕국의 승영에 이르는 판문입니다. 우리는 맹세와 성약에 의하여 멜기세덱 신권을 받습니다.

서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의 협정입니다. 맹세는 협정에 있는 약속 사항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신권 성약에서 당사자들은 주님이신 아버지와 신권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약의 당사자들은

자기 일정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신권을 받는 사람은 자기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신권 소유자에게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된다는 맹세와 성약에 따르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성 84 : 33-34, 38)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을 받아들이고 영화롭게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저들의 손에 맡기신 자니라.

“저들은 제사와 왕이요 그의 충만하심과 영광을 받은 자요,

“가장 높으신 이의 제사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요, 에녹의 반차를 따른 자요, 독생자의 반차를 따른 자니라.

“그런고로 기록된 바와 같이 저들은 신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교성 76 : 55-58)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릴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교성

84:40)고 하신 맹세와 성약으로 뗐기 세속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식만으로 이러한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축복받기 위한 선결 사항이지만 그 축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축복을 얻으려면 신권을 받을 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맹세와 성약이 밝혀질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신권 소유자에게 “천군의 나의 천사들에게 너희를 맡기노라.”(교성 84:42)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권을 받는 자를 천군의 그의 천사들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언제나 나에게 감명 깊은 성스러운 성구였습니다.

계속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너희[신권 소유자]에게 계명 하나님을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성 84:43-44) 신권 소유자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교성 84:39)에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과 보상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권을 받아들인 후에 그 성약을 깨뜨리는 자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교성 84:41) 성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벌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고 성약에 따른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할 만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런 사람은 그 벌에 대한 말씀 다음에 나오는 성구를 읽을 때까지는 그 의문

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구를 보고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인 뒤에 깨뜨리는 자보다 별로 더 나은 위치에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받은 이 신권에 이르지 못한 모든 자에게 화있을지어다.”(교성 84:42)라고 하셨습니다.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은 그만큼 중요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4편 33절부터 읽어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를 보면 이 지상 생활의 목표인 영생을 향하여 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뗐기 세속 신권을 받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영생은……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교성 14:7)이므로 자신의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최소한도로 다음 세 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복음의 지식을 얻는 것.
2.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
3. 현신적으로 복사하는 것.

복음 지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교성 131:6)고 하셨습니다. 그가 복음의 진리에 무지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음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악마의 힘에 의하여 함정에 빠지게 되며, 악마는 지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보다 지식이 있으며’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교회 정사 4:588)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식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초창기에 총판리 역원들에게 “너희는 은혜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여야 하느니라”(교성 50:40)고 말씀하셨습니다.

1847년 1월 원터워터스에서 브리감 영 대판장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자는 그 눈을 떠 볼 수 있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도록 자기를 낫추며 주저의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으라.

“이는 나의 영을 세상에 보내어 겸손하며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정죄하려 함이니라.”(교성 136 : 32-33)

그보다 14년 전에 주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때로부터 기도와 금식을 계속할지어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교성 88 : 76-78)

복음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경전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엘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물문경을 읽도록 권고하는 이유는 거기서 많은 복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문경을 열심히 상고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교성 20 : 9) 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거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총관리 역원들에게 물문경은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교회의 종석이며, 다른 어떤 책보다도 그 책의 훈계의 따라 생활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교회 청사 4 : 461)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경전을 통하여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상,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과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것입

니다. 그들은 서로 병행하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고는 온전히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점점 발전합니다. 조금 배우고, 실천하고, 다시 조금 더 배우고, 또 실천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완전에 이른 방법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 요한은 보았나니, 처음에는 그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으시더라.

“또 처음에는 그가……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더니, 마침내 충만함을 받으시더라.”(교성 93 : 12-13)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임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리라.”(교성 93 : 20) 또 다른 성구를 보면,

“무릇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충만함을 받을자는 없나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아 드디어 진리로 영광을 얻으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교성 93 : 27-28) 어떻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도 가슴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경전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교성 42 : 29)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의 왕국의 비밀을 주리라. 왕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그 안에 생명수의 샘이 있겠고 생명수가 솟아나와 영생을 얻게 되리라.”(교성 63 : 23)



왼쪽에서 오른쪽: 롤니 부대관장, 스벤시 더블류 김봉 대관장, 키밀라 김봉자매

우리의 개인 행위에 대한 계명이 교리와 성약 42편에 많이 나와 있으며, 예언자 요셉은 이것이 “교회의 율법을 포함한”(교성 42편, 머리말)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는 59편과 특히 88편 117절에서 126절 사이에 있는 계시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여 “신권에 속해 있는 성약”(교성 84:39)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신권 소유자는 개인의 행위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문자로 된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로부터 받는 모든 지시 사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마귀의 궤계를 놓히 대적하여”(엡 6:11 참조) 자신을 강화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개인의 행위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은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봉사할 책임을 줍니다. 그 봉사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신권의 모든 축복과 함께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서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강화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의 성격은 계시와 살아 있는 예언자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신권에 이런 짐을 부과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알며, 그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리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교성 58:27-28)라는 성스러운 말씀의 정신에 의하여 혼신적으로 열성껏 봉사하는 신권 소유자에 의해서만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여,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교성 84:39)에 따라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킴

자기 가족을 등한시하지 말고, 적절하게 위임하고, 교수법을 향상시키고, 소수 그룹과 우정을 나누고, 특별한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는 권고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권회 모임에 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곳 솔트레이크 텁풀 스퀘어의 태버내를 과전세계에서 2,000이 넘는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인과 청소년이 나타내는 막강하고 신성한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함으로써 갖게 된 수많은 축복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중 선거 연령에 있는 분들은 모두 돌아오는 11월 4일 화요일에 실시되는 투표에 보다 많이 참가하여 이 나라의 권리와 자유를 가장 잘 수호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투표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어느 특정한 후보자를 후원하지는 않으나 다만 훌륭한 인품과 자질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건물이나 교회 조직이 어떤 후보자의 정치 유세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연구할 때 구세주께서 항상 개인과 집단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백성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형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교회 회원들을 둘보고 보살펴 주는 원리입니다.

감독님과 지부장님, 놀 와드나 지부의 커중한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백성을 양육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지시를 받아 봉사하고 일하는 보좌와 그 외의 사람들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관리자가 되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아직 문제나 시련이 고질화되지 않는 초기에 그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주의와 권고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가족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시간만 시간을 내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함으로써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그들이 비활동화된 후에 교회시키기 위하여 소비하는 수백 시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수차 말해 온 것처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위임하십시오. 가정 복음 교사가 양례를 돌보는 일을 돋게 되어 있읍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감독이나 지부장처럼 훈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단의 지시 아래 적절한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읍니다.

스테이크 부장, 감독, 지부장 여러분, 교회의 교수법을 향상시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읍니다. (요 21:15-17 참조) 나는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와서 공파나 모임에 참석하여 별로 배운 것도 없이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혼하지 않는가 하고 걱정하고 있읍니다. 특히 그 회원이 긴장과 유흥의 위험한 시기에 들어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양육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교육이야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그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것을 얻게 되나 하는 것에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혼히 있읍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 지역 대표들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 문화 그룹 및 소수 그룹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우정 증진을 행할 때 우리 모두가 접하게 되는 목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 훌륭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을 잊게 됩니다. 나는 1977년 4월에 레이맨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이 “단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한다.”(지역 대표 세미나, 1977년 4월 1일)고 말했읍니다. 이 말씀은 모든 문화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언어권 및 문화권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 동안에 기본 단위 조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읍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지도서, 교재 및 보고서는 완전한 교회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것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이용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이 필요 사항에 알맞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작은 건물들을 세울 것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기본 단위 조직 프로그램에 속한 부부들이 훈련을 받아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읍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개요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읍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해서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도록 헌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는 저들이 아직 고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유라야 받아 먹을 수 있음이니”(교성 19:22)라고 말씀하셨읍니다.

형제 여러분, 특히 스테이크 부장, 감독, 지부장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읍니다. 슬프고, 외롭고,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회원들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특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등한시 하여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약 1:27)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 합시다.

우리는 교회를 짓는 백성으로 널리 알려져 왔읍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정을 건설하는 백성으로 더 잘 알려졌으면 좋겠읍니다. 형제 여러분, 자기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가 주어졌으므로 잘만 계획한다면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에 의한 모든 모임과 필요한 행정적인 모임을 갖고서도 매주 일요일마다

몇 시간씩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권을 지닌 형제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훌륭한 스테이크부장, 감독, 지부장, 정원회 회장 및 기타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혼신과 진리와 구세주에 대한 사랑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백성에 대한 사랑을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라며, 이곳 본부 역원들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화평이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에서 1980년에 뚜껑을 닫고  
2030년에 재개봉" 할 상호부조회 50년제 상자를 들고 있는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매리온 지 룸니 부대판장 대판장단 제 2 보좌

## 회 개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평화’와 ‘안식’의 축복과 더불어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장로……들은 성 경과 물본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교성 42 : 1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에 따라, 나는 성경과 물본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회개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회개와 거기에 따른 침례와 성신의 안수는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신앙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물본경에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앤마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이제로부터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회개의 침례를 받을 자들은 구속하시려 오시나니.”(엘 9 : 25-27)

앤마는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구속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회개하고 침례받는 자에게 한정됩니다.

앨마의 선교 동반자 앤율레크는 그 제한에 대하여 똑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범법을 대신하시며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에게 강령하실 것을 아노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라.

“이렇게 하여……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내려 주시리니, 이 마지막 회생은 곧 공의를 다스리시며, 사람이 능히 회개 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자비를 내려 주시려는 데 뜻이 있느니라.”(엘 34 : 8, 15)

이런 방법에 의하여 자비에는 “공의의 요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저들(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안전히 보호될거나, 회개에 이르도록 신앙을 쌓지 않은 자들은 공의의 요구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지니, 신앙을 갖고 회개한 자에게만 크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엘 34 : 16) 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인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 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 서도록 하라.”(니삼 27:19-20)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영생으로 세우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바탕으로 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모로 7:41 참조) 이 회개야말로 인간이 개인적인 문제나 지역 사회 및 전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는 현대의 제자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으로 너희를 치지 않게 하고 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고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꾀로 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지지 않고 물려서 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성 19:15-19)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신앙과 회개를 통하여 자기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게 하려고 공의의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런고로 나는 또다시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니,

내가 나의 전능한 힘으로 너희를 낚추게 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리하여 내가 말한 형벌 중 가장 작은 것이라도 겪지 않게 할지니, 곧 내가 나의 영을 물려가게 하였을 때 텔 끝만큼이라도 다시 겪지 않게 하라.”(교성 19:20)

인간의 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의 복음을 참된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으뜸되는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성 59:21)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대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교성 1:16)

주님께서는 회개의 본질에 대하여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43)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별로 불확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백의 필요성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 세상에서는 죄의 고백에 대한 혼란과 거짓 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이 주제에 관하여 이미 언급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반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에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죄로서 자기 자신과 주님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범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주님

에게 온전히 고백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다른 누구에게 고백하여도 전혀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비밀로 하십시오. 또한 사적인 죄는 가능한 한 조용히 놔 두십시오. 가능한 한 남의 눈으로부터 가려 두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웨소,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41년, 158페이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오일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범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회개를 하려면 그 회개하는 죄인은 감독이나 기타 합당한 관리 역원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권세는 주님 자신과 특별히 주님이 그 권세를 위임한 사람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합당하게 임명한 역원 (그 권세는 역원에게 있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을 통하여 그 사실을 완전히 알아내고 교회의 규율과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일단 자기 죄를 버리고 합당한 회개를 함으로써 주님과 그 피해를 입은 사람과 필요한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자기 행위를 깨끗이 해결하였으면 확신을 갖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활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4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몰몬경에 있는 다음 예를 인용하겠습니다.

우선 이노스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나의 죄 사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한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 하노니,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나의 부친께서 생영과 성도들의 기쁨에 판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듬을 느꼈고,

“내가 영으로 굽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여 하늘에 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니,

“한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기를, 이노스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로다 하시니라.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알아,

“주여 어찌 이 일을 이루시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네가 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오래지 않아 친히 나타내 보이시리라. 그러니 이제 가라. 너의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동포 니파이인들의 번영을 비는 마음이 솟아나, 하나님께 나의 온 심령을 기울여 저들을 위해 간구하였다.”(이노스서 2-9절)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며 화평이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감명깊은 고별의 말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 무리를 둘러보니, 보라 저들은 주님이 저들에게 임하실까 두려워하여 모두 땅에 엎드려졌으며,

“저들은 스스로가 육욕의 상태에 있으며 땅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느껴 모두 한 소리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궁휼히 여

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인간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오니이다.

“저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매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에 평안을 얻으니, 이는 베냐민 왕이 저들에게 이른 대로 저들이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은 신앙으로 인함이라.”(모사이야서 4 : 1-3)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마음의 기쁨과 화평은 앤 마가 자기 아들 힐라맨에게 자신이 개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구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앤 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에 내가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나아갔으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사 바로 (나를) 멈추게 하시었나니,

“보라 천사가 천둥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매 우리가 더딘 땅덩이가 혼들렸고, 우리에게 몰려온 하나님께 대한 공포로 인하여 우리는 땅에 엎드려졌었느라.

“그러나 음성이 내게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하신고로 내가 일어나 우뚝 서서 천사를 보았느라.

“그리하여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신이 멸망되기는 바랄망정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 하지 말지라 하셨으니,”

그리고 앤 마는 다시 말하기를 “이에 내가 땅에 넘어져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입도 열지 못하고 사지를 움직이지도 못하였느라.

“천사는 내게 더 말씀하셨으나, 내 형제들이 들었을 뿐 나는 듣지 못하였으니, 네 자신이 멸망되기는 바랄망정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멸망되거나 않을까 하

는 공포와 놀라움으로 땅에 엎드린 채 더 들지 못하였느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으며 영원한 고통에 쌌어 있었느라.

“참으로 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한 나의 모든 죄와 간악함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성스러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살해하였고 저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 넣었으며, 나의 죄스러움이 말할 수 없이 컷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힌 바 되었느라.

“그리하여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나의 영과 육체가 한꺼번에 없어져 주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했느라.

“그러나 사흘 낮 사흘 밤 동안을 저주받은 영으로의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느라.

“내가 이처럼 지은 죄를 기억하여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려 세상에 내려오시리라고. 나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였느라.

“여기에서 생각이 미치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더 쓴 고통에 빠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찬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라.

“나의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고통보다 더 쓰며 괴로운 고통은 없었느라. 내가 네게 거듭 말하노니, 나의 아들아

그 후에 느낀 나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쁨도 없으리라.”(엘 36:6-21)

나는 이러한 증거에 더하여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화평”과 “안식”的 축복과 함께 용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힘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하고 또한 끝까지 참음으로써 안식을 얻도록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



물론 청소년 합창단의 남성 합창단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회복의 주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며,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그분은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를 갖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며,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평화는 이미 지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교성 45 : 26 참조) 시대입니다. 곧 역병과 황폐가 세상을 휩쓸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병들어 가고, 모든 일들은 통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며,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성 45 : 26 ; 110 : 16 참조)

우리는 거짓과 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육욕적이며 관능적이며 악을 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육체의 욕망 속에서 환락을 일삼습니다. 범죄, 부도덕, 낙태 및 가증스러운

동성애 등은 이미 사악하고 불경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곧 노아의 시대만큼이나 타락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앞에 놓여 있는 위난으로부터 해어나고,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을 능히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화평을 얻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려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여 그 속에 들어 있는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그 메시지, 즉 세상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복음의 윤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평화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며,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인봉할 권세를 지닌 합당한 통치자가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교성 27 : 13 참조)

마지막 날 사악한 자 위에 쏟아져 내릴 가증한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교성 84 : 117 참조) 복음은 평화의 메시지이며,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 하늘 저편 왕좌에 앉아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교리와 진리와 원리 및 모든 권리와 권세와 열쇠 등 가장 높은 하늘에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승영케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들은 고대에 신앙심 깊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시키고 영혼을 일깨워 주었던 좋은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이거나 자신의 면전에서 직접 보내신 천사의 성역이나 성신의 은사로써 아담과 애녹과 아브라함과 모세 및 모든 고대의 성도를 구하셨던 계획과 체제를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임무, 즉 우리의 주인이신 그로부터 받은 계명은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 영원한 진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과장되지 않은 말로 우리가 받은 이 훌륭한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진실한 종교는,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 종교는 언제나 거짓 신들을 예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성 6 : 13 ; 17 : 3 참조)

오늘날의 세계는 각양각색의 거짓 신들을 예배하느라고 야단 범석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초상화나 형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소나 악어를 숭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담이나 알라나 부처를 초월자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물질이 아니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알 수도 없고, 광활한 우주를 꽉 채우고 있으

며, 무소부재한 어떤 영적인 존재에 신의 이름을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에는 하나님이 우주의 대학교에 등록한 영원한 학생으로서 바쁘게 새로운 진리를 배우며, 결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롭고도 이상한 진리를 배우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상으로, 형상으로, 동물로, 영적인 존재로서 또는 결코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공부하는 분이라고 말함으로써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얕보는 것으로 이것은 불경스럽고도 참람한 일에 가까운 것입니다. (딤후 3 : 7 참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질과 상태를 아는 것이 계시된 종교의 첫째 원리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에 계심을 아나니(간증하나니),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영세 무궁토록 불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니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교성 20 : 17)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며, 육체를 지니신 인격체입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교성 130 : 22)습니다. 그분은 전지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며, 그의 영의 권세에 의하여 만물을 안에 계시고 만물을 페롭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교성 20 : 18 참조)하셨음을 알고 이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해의 왕국의 부모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영광스러운 곳에 살고 있었

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을 정하시고 세우셨으며, 이것은 우리도 진보하고 발전하여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상에 인간을 두셨을 때 “유일하시고 살아 계시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섬겨야 할 이는 이분뿐이니라는 계명을 주셨”(교성 20:19)다는 것을 알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엘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을 놓게 하려 함이라는 것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생긴 육체적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대속하기 위하여 “천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특생자를 주셨”(교성 26:21)다는 것을 알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능하신 힘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아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교성 20:23-25)는 것을 알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으며, 구원은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오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알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시고, 그분의 회생의 속죄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또한 그분은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써 생명과 죽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는 기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헌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을 섬기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짓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

떠한 형태의 파오일지라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이 혼자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썩어가는 자기 육체를 무덤으로부터 불러 내어 영원한 영광 속에서 다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영원한 빛 속에서 살 수 있는 해의 왕국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모든 우상과 초상과 형상이 결합하여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완전하게 할 권세는 결코 갖지 못할 것입니다.

아담도 알라도 부처도 또는 실제 인물이거나 가공의 인물이거나 간에 그 어떤 사람도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창조되지도 않았으며, 형체도 없고 존재도 없는 영은 인간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 적도 없고, 앞으로 줄 수도 없으며, 영원한 해의 왕국의 가정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적어도 나로서는 한정된 권세를 갖고 단지 영원한 실험실에서 실험만 하고 있는 학생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마음이 내키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종교에 관한 진리와, 구원에 관한 진리 등과 같은 것은 계시에 의하여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인간은 결코 이 세상에서 평화나 안전이나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쟁과 역병과 멸망이 계속하여 홍수처럼 지상을 휩쓸 것입니다.

범죄와 죄악이 증가하고, 부정이 만연하고, 서로를 향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입니다.(마 24:12 참조)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로운 시대를 맞이할 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의 복음을 믿고 그의 교회에 가입하여 그의 유행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은 평화와 안정

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요 16:33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방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우리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하여,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밝혀 주는 성신의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이시며,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며,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언덕 위의 빛과 같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말할 때, 우리의 말은 경전이 되며,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음성과 마음과 뜻이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의 왕



국에 사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그분의 참된 아들이시며, 거룩한 메시야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개체로서 영으로 된 성신이 그들의 대행자이고 증인이며,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가운데서 충실한 자들은 그의 계시와 은사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명을 받은 그대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때가 가까왔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균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교성 133:3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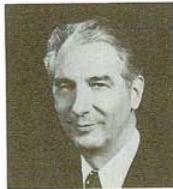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와서 전능하신 창조주이며,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그분과 그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와서 요셉 스미스와 말일의 예언자들에게 주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들은 이 말일에 그리스도의 계시자들이며,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인 주님에게로 돌아서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거짓 교리를 버리십시오. 거짓 신들로부터 빠져 나오십시오. 진리를 구하십시오.

인간의 교리나 악마의 교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지상의 시험 기간에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이 갈라졌던 옛 사람들처럼 진리를 고수하고 믿으십시오. (벧후 1:10 참조)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 모든 곳의 자녀들을 사랑과 자비로 보살펴 주옵시고 회개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영생을 통하여 화평을 얻을 수 있게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칠십인 계일 정원회 회장단

## 일곱 가지의 위대한 사건

“고대에 시내산에서 온 영적인 힘과 오늘날 하늘에서  
내려온 모두 시대의 회복의 권세”

나도 여러분처럼 세인트 헬렌즈 산의 화산 폭발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서 읽었고, 라디오에서 들었으며, 텔레비전에서 이 엄청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직접적인 체험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3주 전에 세인트 헬렌즈 산기슭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는 워싱턴의 통류에 있었습니다. 이 화산으로부터 80Km의 강이 떨어집니다. 나는 거대한 준설기가 강바닥에서 깊어낸 것이 수 에이커의 땅에 보통 사람의 키 이상으로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인트 헬렌즈 산의 거대한 불협화음으로 나타난 힘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했습니다. 그 화산에서 뿐어져 나오는 것은 6평방 킬로미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는 세인트 헬렌즈 산이나 베스비우스 화산 등과 같은 모든 지진이나 천재지변을 능가하는 다른 힘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 비회원인 친구들에게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물론 친구들이 뭘 믿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물론 사상이라는 산으로 가서 여

러분의 친구가 뭘 믿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산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여러분의 인생, 특히 영원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시각과 측각에 의해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건 1 : 1820년 어느 아름다운 봄날 아침에 이 위대한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진리를 구하는 한 소년이 후에 이 사건으로 성스러워진 작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산과 계곡과 대양과 낮에 볼 수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별빛과 밤에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으며, 이 위대하고 고결한 요셉 스미스는 하늘에서 오신 분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최소한도 부분적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십시오.

“바로 이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헛빛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무렀을 때 클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6-17)

불확실성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성스러운 존재들의 실재성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간직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스미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건 2 : 이 첫번째 위대한 시현이 있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1823년이었죠. 다시 빛이 나타나고 한 천사가 소년 예언자를 가르쳤습니다. 함께 들어 볼까요?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우러러 간구하고 있을 때 한 줄기 광채가 내 방에 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 방은 한 낮의 햇빛보다 더 밝아지더니 훌연히 누가 내 침대맡에 나타나는 것이었읍니다. 그때 그분의 발이 마루바닥에 닿지 않은 것으로 나는 그분이 공중에서 계심을 알았읍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신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말하였읍니다.

“그분은 이 대륙에 먼저 살았던 백성들의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금관에 기록된 책이 문혀 있다고 전하면서 이 책에 구세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온전한 복음이 또한 적혀 있다고 하였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 30, 33-34)

사건 3 : 4년이 더 흘렀습니다. “마침내 금관과 우림과 둑밈과 가슴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1827년 9월 22일……그 하늘의 천사는 이 금관 등을 내어 주면서 내가 이에 책임을 지며……”(요셉 스미스 2서 : 59)

번역 능력이 있는 성스러운 도구를 통하여 티끌에서 속삭이는 값진 메시지가 담긴 금관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하면서 받은 영감을 적은 것입니다. “‘이 가슴에 한량없는 감사를 일깨워 주신 하늘의 영감이 명하시는 바를 들으며 앉아 있었던 그 날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날이었다. 물론 경이라 하는……’”

사건 4 :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또다시 하늘 나라의 권세를 가져다 주는 방문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열쇠를 지닌 아론 신권이 지상에 회복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번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음달(1829년 5월)의 어느 날 판을 번역하는 동안 번역 중에 나타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에 관하여 주께 기도하고 묻기 위하여 숲 속으로 들어갔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사자가 빛의 구름에 싸여 내려와 동시에 그의 두 손을 각각 우리들의 머리에 얹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들을 성임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의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느니라……”

“이때에 우리를 방문하여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신약성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우는 그 요한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자며 이 멜기세덱 신권도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며……”(요셉 스미스 2서 : 68-69, 72)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에게 와서 성신의 이름으로 집행 할 권능이 있는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읍니다.

요셉 스미스를 잘 아는 사람이 재미있는

관찰을 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요셉에게 아담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는다면 즉시 대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만 하고 자기처럼 생겼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으시면 그것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테일러, 설교집, 18 : 326)

비회원 친구 여러분, 그는 그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건 5 : 1836년이었읍니다. 드디어 구세주께서 친히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걸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헛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교성 110 : 1-4)

이 몇 가지 사건에 대하여 목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며 몇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이 마음에 일어난 감정이나 그때 우리를 둘러싼 장엄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여러분에게 억지로 알리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세상, 사람, 당대의 웅변가라 할지라도 이 거룩하신 분이 하신 것 같이 마음을 사로잡으며 숭고한 생각을 품게 하는 말은 할 수 없으리라고 내가 말할 때에는 여러분은 나의 말을 믿으리라. 아니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주며, 평화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나 성령의 힘으로써 전달된 하나님나의 금언에 내포된 지혜를 이해할 능력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으리라.……우리

가 한 분의 천사 앞에 있었다는 확신파,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는 확실성파, 하나님의 명령으로 파견된 순결한 분으로부터 흘러 나온 더럽히지 아니한 진리는 나로서는 필설로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사건 6 : 성경의 예언자들은 여러 세기 동안 이스라엘의 집합을 예언했읍니다. 모세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집합의 열쇠를 위임한 사실을 알아봅시다.

“이 시현이 달하고 나서 하늘이 또다시 우리에게 열리더니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세계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며 북방 나라에서 열지파를 인도하여 내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더라.”(교성 110 : 11)

사건 7 : 말라기의 예언을 직접 성취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왔읍니다. 이 하늘이 보내 주신 진리를 들어 봅시다.

“이 시현이 달하고 나서 다른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시현이 갑자기 우리에게 열리더라.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 간 예언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 계심이라. 또 이르시되,

“보라, 진실로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얹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때니라.”(교성 110 : 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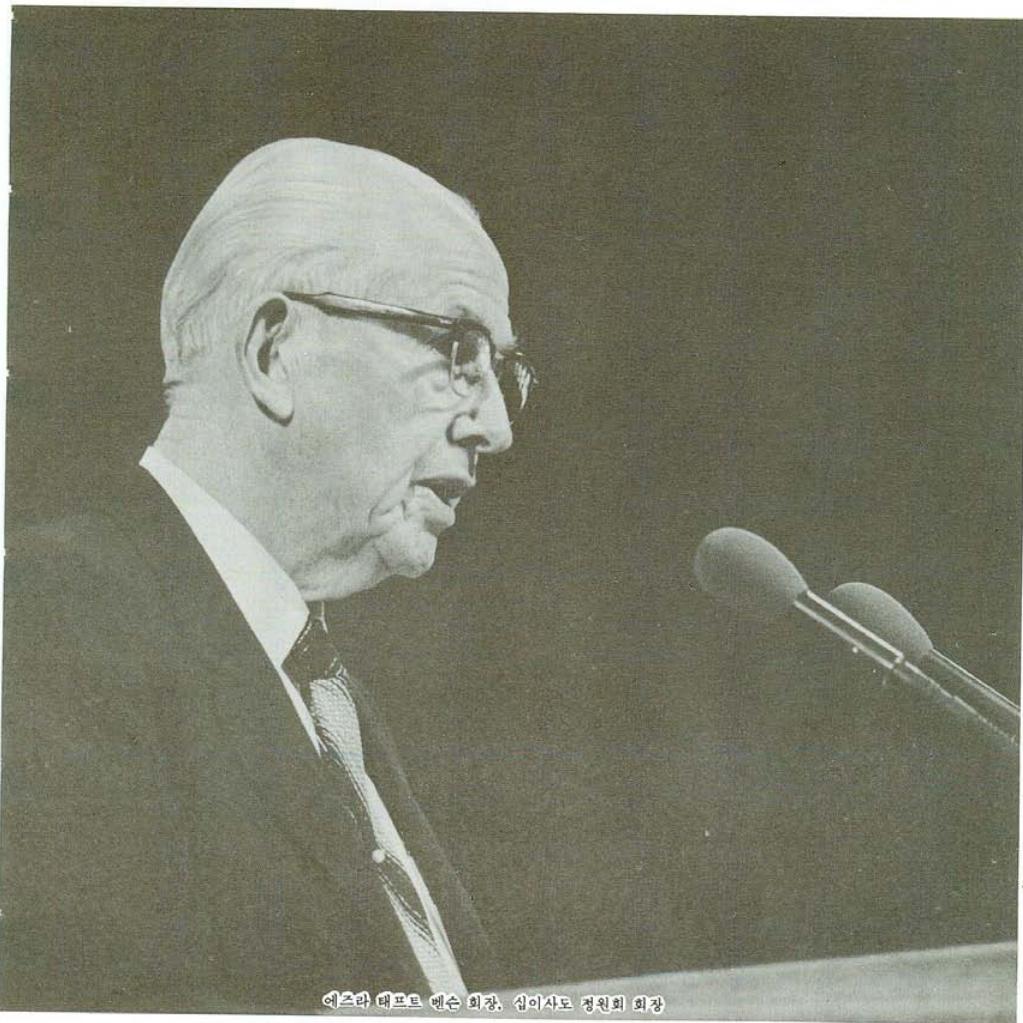
엘리야의 권능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리리라던 신권의 인봉권능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에서 이 권능의 열쇠가 작용하여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모든 복음 의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에서 위대한 힘이 나왔읍니다. 물리적인 힘은 세인트 헬렌즈 산에서 나왔지만 그 것은 곧 사라지고, 오랜 세월 동안 잡잡해

질 것입니다. 고대에 시내 산에서 온 영적인 힘과 오늘날 하늘에서 내려와서 회복된 모든 시대의 권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교성 1:2)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38)

나는 음성을 높여 지상과 하늘에 모두 관계되는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구세주가 문자 그대로 살아 계시며, 그의 권능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행동을 개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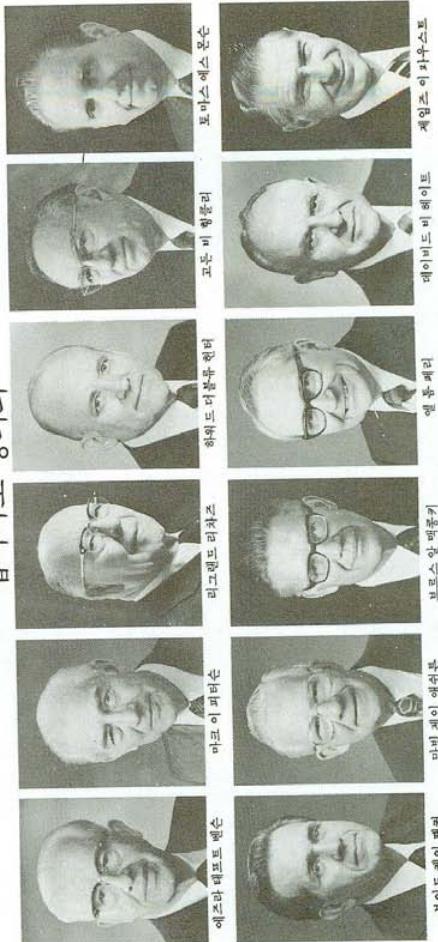


에스라 태프트 앤슨 회장, 십이사도 정권회 회장

#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 관리 역원 대관장단



## 십이사도 평의회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역경과 우리들

“역경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닥쳐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축구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팀이 전국 상위 랭킹을 석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소는 대진 일정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답니다. 그들은 그 팀이 그 팀 자체를 위해서 더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축구나 인생에 있어서, 적대자나 우리의 경쟁 대상이나, 우리가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대상이나, 반대자나, 우리의 원수나, 적이나 문제 등이 우리의 궁극적인 힘과 업적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역경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닥쳐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경에서 좌절할 수도 있으나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헨리 필дин은 “역경은 시금석이다. 그것 없이는 자신이 정직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새명언 사전, 스텐다드 출판사, 1957년, 랄프 에미슨 편, 6페이지)고 말했습니다.

역경에는 고통이나 가난이나 고뇌나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그

것을 개인적인 성장이나 발전의 기회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어떤 특별한 친구의 생애에서 있었던 일을 그 친구로부터 직접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경험에서 힘 있는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일월 세째 토요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로 둘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니던 브리암 영 대학교에서 있은 농업 세미나였습니다. 나는 하와이의 호놀룰루 선교부에서 돌아와 여섯 달 동안 집에 있었으며, 귀환 선교사로서 해결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과 여자와 학교에 대한 중압감과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처럼 동전 한 잎도 아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리하고 진취적인 25,000명의 학생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중압감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주 초에 철공소에서 수압기를 조작하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수압 장비용 뚜껑을 만들었답니다. 나는 그날 세미나를 마치고 일터로 갔습니다. 나와 같은 방을 쓰며 선교사 시절에 동반자였던 김 볼이 그날 아침 일찍 일하러 가서 새 뚜껑

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 20분 후에 조그마한 뚜껑 하나가 판 위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왼손으로 그것을 떼어 내려고 애썼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기 위하여 돌아서서 오른손을 사용하였을 때, 팔목 바로 아래가 부서지는 소름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 기계가 왼손 위에서 짹 달렸습니다. 아득한 순간이 지난 다음, 거대한 프레스가 올라갔습니다. 내 손을 보는 순간, '엉망이 되어버렸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에 '제리야, 네 손이 없어진 거지?'라고 늘 고맙게 여겨 왔던 친숙한 내부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뒤 네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실에서 맨 처음 들은 것으로 기억되는 것은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제리, 내 말이 들리나?'하고 말했습니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네 손을 잘라낼 수 밖에 없었네."

"그 다음의 나흘은 눈물과 고통과 친구들과 카드와 편지와 가족들로 뒤범벅이 된 날들이었습니다. 염려해 주는 사람들, 특히 킴볼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그 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그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로 나를 도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범과 후원으로 이 새로운 시련에 직면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날들은 고통스럽고 잠못 이루는 시간과 밤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밤들을 통하여,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구세주와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하여 예언자 요셉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가 거둔 훌륭한 승리에 몹시 경탄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시간에

나도 요셉 스미스처럼 나의 시련에 순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님에게 약속했습니다.

"물론, 첫날 밤에는 '하필이면 왜 나인가? 과거에 뭐 잘못한 것이 있었나? 이런 일을 당할 만한 무슨 일이라도 했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로메오(카우보이의 말타기 대회)도, 축구도, 스키도 못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나를 남편으로 맞이해 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이전까지 자신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나 큰 자부심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은 나의 걱정을 더 크게 했습니다.

"주말에 어머니가 오셔서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리야, 나의 왼손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삼 어머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급식일이었습니다. 나는 짧은 팔에 붕대를 감고 서서 모든 사람들의 염려와 기도와 응서를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신앙심이 강한 가족들이 시련을 멀어 준다고 하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사실을 느꼈습니다.

"간증 모임 후에 존경받는 친구 한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는 내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한 벌도 아니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며,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특성들을 발전시킬 기회를 부여해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이 시련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과 세상과의 인생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둘이켜 보면, 그의 축복과 격려 말씀의 각 구절이 매우 실질적인 면에서 나를 도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를 두려워하거나, 능력을 의심하거나, 나 자신을 입증하기도 전에 가망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매들이 레이트를 거절하거나 않을

까? 나와 함께 있으면 자매들이 거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를 마친 뒤 몇몇 자매들과 레이트하였지만 줄리와는 두 번밖에 레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한 다음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켜 달라고 한 뒤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나를 단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음으로써 곤란하거나 창피하다면 앞으로 더 이상 레이트를 지속할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분노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동정이나 의무감으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돋겠지만 불쌍히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에 우리는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직업을 얻기 위하여 면접한 후에 편견 때문에 고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스런 첫 딸 브래컨을 낳았을 때에는 학교에 보낼 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 먹고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인사 관리에 관한 경험을 얻었으며, 그것은 나의 목표 달성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역경은 발전의 발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경험은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꼼짝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이 역경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곤란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또는 그들이 실제로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 자신도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최근에 역경을 주제로 토론을 한 뒤에, 훌륭한 어머니가 겪는 시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한 젊은 형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를 고통 중에 방치해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형제님의 어머님의 시련은 주님께서 그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님께서 자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련입니다. 그녀가 역경 중에 자신의 힘을 알며 체험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여러 형제들과 함께 수개월 동안 미주우리의 리버티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상태는 비참했습니다. 행정부와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와 호소문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한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헤아림과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나의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교성 121:7-8)

요셉 스미스의 고상한 성품은 꾸준히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겪은 모든 시련 가운데서 독특한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균형을 이루할 수 있었음을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를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8-9)

우리가 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역경은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은 실패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련에서 적절한 자기 관리와 극기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때 성공적으로 인생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음을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 등의 모든 환경에서 항상 충실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나는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아름다운 영성을 발견해 왔다. 대부분의 경우에, 순경에 있는 사람보다 역경에 있는 사람이 보다 나은 발전을 한다. 대부분의 가망없는 환자에게서 마지막 병고를 통해서 불굴의 정신과 기백이라는 보배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을 보아 왔다.”라고 의미있게 자신의 경험을 피력했습니다.

나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병으로 얼룩지지 않은 날이 없는 좋은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암흑과 시련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펌니다. 지난날의 모든 어려운 시련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 시련이 오늘의 그를 만드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도 옛날 갈렙처럼 “나의 힘이……일반이라……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 14:11, 12)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읍니다. 우리가 오르고자 한다면 더 많은 산, 그 중에서도 역경 중에 더 높은 산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동 동기와 방향 설정을 위하여 시련과 극복의 생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강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도 도와 주십니다.

우리가 충실하면 원수의 불화살을 모두 막을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합당한 매일매일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충실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이 우리를 조롱하여 곤경에 빠뜨리며, 품위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는 타락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말다툼과 싸움을 피하여 일보 전진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위엄을 갖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는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읍니다. 복수하는 데 시간을 소비 할 필요가 없읍니다. 남을 속이거나 파괴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는 칭찬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 좋지도 않습니다. 모든 도전적인 환경에서 평정과 위엄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은 그것을 보는 적들로 하여금 상당히 적대감이 가시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경멸과 조소는 오늘날 세상에서 직면해야 하는 가장 큰 형태의 두 가지 역경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논쟁하고 대결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터의 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읍니다. “굴의 가장 특별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이 껍질 안으로 들어옵니다. 굴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이용하여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 역경이 닥친다면, 그 유일한 처방은 그것으로 진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진주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만, 하여튼 진주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신앙과 사랑이 필요합니다.”(보물 상자, 찰즈 엘 윌리스 편, 뉴욕 하퍼 앤드 로우)

역경에 굴복하는 자는 더 약해집니다. 역경은 용감한 자에게는 힘을 키우는 디딤돌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과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시련에서 해방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초조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꾀로운 시련에 대처하고, 극복할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문제는 손쉬운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각 개인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운명에 의하여 어떤 십자가를 지든지 그것을 지기 위하여, 또한 필요한 도움과 용기를 찾기 위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

자는 매일매일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선한 마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리처럼 용감하게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사 48:10)

우리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매일매일의 시련과 싸우고 정복하

여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특별하게 됩니다. 그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의 과제를 감당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진리를 간증합니다. 아멘. \*



십이사도 정원회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고든 비 힙클리 장로,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고든 비 힐러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단단히 뿌리박힌 불만으로 인한 상처를 서로 감싸 주도록 합시다.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송가를 불러 주신 합창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찬송가로 인해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틀이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들은 교회 조직 1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4월 6일, 교회 조직 150주년 기념 모임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했던 보잘것없는 곳에서 이 태버내를에 모인 수많은 회원들에게 행한 연설이 대륙의 방방곡곡에 미쳤이며, 1세기 반에 걸친 역사가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로부터 우리는 말일에 회복된 시온의 전설에 관한 장엄한 이야기를 음악과 무용과 연극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고, 오늘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준 모든 사람에게 경건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스러운 뜻을 수행하신 훌륭한 행적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언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년”(레 25:10)의 정신에 따라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

여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50년마다 회년으로 정하여 기념하며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고 서로 속이지 말라는 (레 25:14, 17 참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1980년도 다 되어 150년이라는 역사의 막을 내리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하여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갈보리십자가에 못박히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를 이 무서운 형장에 끌고 온 악하고도 가증스러운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우리들 중에 누구도 그처럼 판대하게 용서해야 할 경우에 처해 본 적이 없으나, 우리들 각자는 용서와 자비로 대하라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옛 날에 있던 나의 제자들이 서

로 대적하여 기회를 노리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한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해야 하나니, 나와 그대 사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그대 행위에 따라 그대에게 갚으시게 하자 하라.”(교성 64 : 8-11)

둘니 부대관장이 힘주어 말씀하신 바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동등한 원리인 회개를 우리는 일상 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큰 불화가 생기는 가정에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웃 사람 중에 사소한 분쟁으로 둘이킬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된 예를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사업계에서는 서로 소리를 높여 언쟁하고 타협과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들이 기꺼이 함께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원한을 키우고 보복을 계획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가 조직되던 첫해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를 해치려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꾸며낸 죄로 재판을 받을 때에 주님은 계시를 통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송사하는 자는 율법으로 저주받으리라.”(교성 24 : 17)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복수심에 불타 분개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내기에서 이기고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듯 보였고, 실제로 그들은 돈을 뺏을지는

모르나 더 귀중한 것을 뺏었읍니다.

불란서 작가인 기드 모파상은 장날 마을로 온 오치꽁이라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공설 운동장을 지날 때 자갈 위에 끈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읍니다. 마침 이러한 그의 동작이 전에 그와 다툴 적이 있는 마을의 마구 제조업자의 눈에 띠었읍니다.

그날 오후에 돈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읍니다. 오치꽁은 마구장이의 고발로 체포되어 시장 앞에 끌려나가게 되었읍니다. 그는 시장에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가 주운 끈을 보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으려 하지 않고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이 문제의 지갑을 찾게 되어 오치꽁이 아무런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이 밝혀졌읍니다. 그러나 거짓 기소로 그가 당한 모욕으로 마음이 상하게 된 그는 그 일을 잊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용서하고 잊으려 하지 않고, 그는 생각하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농사도 계을리 하게 되었읍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졌읍니다. 그는 슬픔에 얹눌려 절망적으로 앓다가 죽고 말았읍니다. 그는 생사를 혼미는 고통 속에서도 “끈, 끈”하며 계속 중얼거렸읍니다. (기드 모파상 작품집, 블랙스 리더 서비스 : 로스린, 뉴욕, 34-38페이지)

등장 인물이나 환경만 다르다 뿐이지 이와 같은 사건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해를 받을 만큼 양 깊음하기 쉽습니다. 그 양깊음은 물어 뜯어 독한 상처로 변합니다. 우리 세대에 용서와 잊는 미덕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그것을 연약함의 증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합니까? 자기가 억

울하게 받은 상처에 대해 성이 나서 복수하려 한다든지 일생 동안 앙갚음하려 들고, 복수하기 위해 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힘이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악의가 싹트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복수를 한 날에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 악하고 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 4:9 참조) 우리를 해친 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고 획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일생을 끊임없이 허송하는 성질보다 더 악하고 천한 성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셉 에프 스미스는 우리 성도들이 큰 곤경을 당하고 있을 때 대관장적을 말았습니다. 야비한 비난과 이 사회의 논설 위원의 평론까지도 항상 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고, 그림으로 풍자하고 조소하였습니다. 그를 깎아 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여 주었는지 봅시다. “그들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둡시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게 합시다. 마음대로 말하고 스스로의 판결문을 쓰게 합시다.”(복음 교리, 339페이지) 이와 같이 용서하며 잊어버리는 정신으로 무장한 그는 위대하고도 적극적인 힘을 발휘하며, 교회를 인도하여 결국 새로운 성장과 눈부신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운명할 임시에는 그를 비방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한 찬사의 글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내가 앉은 책상에 마주 앉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증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진실하게 사랑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서로 잘못을 헐뜯는 벼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쉽게 범하기 쉬운 실수를 참아 주며 잊으려 하지 않고 잘못을 들추어 내어 결국 그들의 깊은 사랑까지 싫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판결로 결혼 생활은 끝장이 났습니다. 이제는 고독과 비난만 남았습니다. 조금씩이나마 회개하

고 용서하는 생활을 했던들 그들은 아직도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지난날 축복에 찬 반려자의 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마음속으로 남을 증오하는 독소를 키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께서는 주님께 용서하는 힘을 얻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회개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간단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구하고 키워 나가면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준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루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은 마음의 화평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평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나는 어떠한 문학 작품에서도 누가복음 15장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회개하는 아들과 용서하는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아들이 아버지의 충고도 무시하고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박차고 그의 유산을 탕진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자, 그는 굽주리게 되었고, 친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눅 15:17),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눅 15:20)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 글을 되풀이 읽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가정을 깨우치며, 온 인류를 깨우치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회개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용서를 받고 그의 모범을 따라야 할 방탕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우리의 구속주는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할 것을 동시에 명합니다. 진실하고 도량있는 용서하는 마음은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으로 너희를 치지 않게 하고 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 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 만인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고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께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성 19 : 15-18, 23)

이와 같은 것이 계명이요 또한 위대한 모범적인 기도를 해주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 : 9, 12)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무서운 남북 전쟁의 비극에 관하여 참으로 훌륭한 말씀을 하지 않았

읍니까? “누구에게든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합시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감싸 줍시다. (존 바트렉, 명언집, 리틀 부리운 출판사, 1968년, 640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회년 축제의 막을 내리면서 서로 상처를 감싸 주도록 합시다.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단단히 뿌리박힌 불만이나,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양갈음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겨났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복수심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외투와 같이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싸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끈이니라.”(교성 88 : 125)는 말씀과 같이 할 생각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은 이를 용서한다.”(알렉산더, 포프, 비평론 2 : 1711) 지나간 상처의 아픔을 잔진하고서는 마음의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용서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화평입니다. 이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당소하는 한 인상 지역 대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간증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나의 마음은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어, 그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의 생활은 풍요롭게 되지만 여러분 자신의 생활은 조금도 빈곤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신성에 대한 나의 간증은 나의 생명 자체보다 더 귀중한 보배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생활은 풍부해졌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제98차 연차 대회에서 이 연단에 서서 간증을 할 특권을 가졌습니다. 나는 책을 썼고, 나의 간증이 담긴 이 책은 온 세상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은 내가 젊었을 때 권능을 지닌 분의 애수 성임으로 전달된 성신을 통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소년 시절의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주었으므로, 그것은 일생 동안 나를 안내하는 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선교사로 나갈 연령이 되자마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지난 1905년 내가 첫번째 선교사로 나갔을 때 나는 사촌 형과 함께 리버풀로 떠났습니다. 형은 놀웨이로, 나는 화란으로 갔습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수개월 뒤에 나

는 사촌 형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읍니다. “나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교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 나는 그가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를 알고 있다면 그의 교회에 가입하겠다고 말했어.”

나는 사촌 형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써 보았습니다. “바르게 잘 말해 주었오. 그가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런 다음, 나는 오늘 아침 파이안스 형제님도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수세기에 걸친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지난 후 빛이 찬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해 빛 기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영화로우신 신회를 구성하고 계신 분을 나타내 주신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경이 번역된 금관을 가져 온 모로나이 천사의 출현보다 더 훌륭한 것을 갖고 있겠습니까? 죄 사함을 위하여 침수로 써의 침례를 주는 권

능인 아론 신권을 가져다 준 침례 요한의 출현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조직하여 인자가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며, 안수례로 성신을 부여하는 성스러운 사도적인 거룩한 멜기세덱 신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방문한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말일에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를 가지고 와 우리가 이 산의 계곡에 모이게 된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말하기가 엘리야의 오심을 간증한 대로,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오지 않는다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리라는 사실보다 더 훌륭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가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에 가입하십시오.”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세상의 악과 학정과 유혹을 피하고 인간의 그릇된 철학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성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온 것과 같습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춰는 동불과 같으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변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19-21)

그것은 바로 간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후 오순절 다음날, 그리스도를 십자기에 못박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19-21)

태초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유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도였으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함을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개혁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역사의 잘못을 수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서로가 일치되지 않아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찾았다면 당연히 그들은 모두 혼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다시 이 지구상에 돌아와야 된다는 뜻이며, 그것은 바로 이 대회에서 여러분이 들은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지구에 돌아온다면, 그들은 누구에게인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그 누구인가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일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만유가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리며, 오늘 이 대회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들 거룩하신 예언자들의 오심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경전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의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시는 길에 그들이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했음을 아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눅 24 : 25)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증언한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사야의 예언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 지구상에 살았던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늘날 일어나게 될 많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신의 계곡에 정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결연되다시피 한 이 사막 지대가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것(이사야 35 : 1 참조)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그 사막에 우리는 이 위대한 판개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이사야 43 : 19 참조) 그는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여름철 한발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산속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41 : 18 참조) 그는 주께서 이 시온의 높은 곳에 다시 올라오셔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1 : 11 참조) 태버내를 합창단이 오십 여 년 동안 쉬임없이 노래를 불러 온 것과 같이 이 성구를 성취한 것을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일에 산 꼭대기에 주님의 집이 세워져 그 때에 모든 국가에서 물려와 이런 말을 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아름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이사야 2 : 3)

그런데 경전에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 든다는 수많은 예언이 있으니 이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다.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집]의 산에 오르며……”(이사야 2 : 2-3)

이 곳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성전은 이사야가 본 아름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음 성구대로 이루어지는 날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이스라엘 집 자손을……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렘 23 : 7-8)

주님은 많은 어부와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언덕과 산과 암혈에서 그들이 낚고 사냥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렘 16 : 16 참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고 그들을 시온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 온 세상의 흘어져 있는 31,000여 명의 몰몬 선교사들입니다.

그는 그들이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이 모여 주께서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와 그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그들에게 주어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렘 3 : 14-15 참조) 이 대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여 살아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께서 성읍에서 하나요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우리를 모이게 하사 그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날에 보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사야의 예언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사야 29장에서 그가 말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좋아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께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끈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이사야 29 : 13)

-14) 이 세상에서 오늘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이라도 우리 말일성도만큼 모든 예언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회복되었으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또한 이 대회에서 언급된 예언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 같은 29장에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 친 성읍이여[그 성읍은 바로 다윗이 살던 예루살렘이었음] 연부년[다가올 여러 세대의 뜻]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이사야 29 : 1-3 참조) 바꿔 말하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큰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한 지 천 백년 후에 이곳 미국에서도 다른 큰 중심지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파괴된 기록이 니파이이서 26장과 27장에 나와 있고, 그가 바벨론의 파괴를 예언한 지 170년 후에 그것은 파괴되었으며, 그때 그는 이도시가 다시는 재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렘 50 : 9-13 참조)

그리하여 그는 이 장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9 : 14 참조) 이 시대에 들어와 이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리며,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하여 성령의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다섯 명의 신권 지도자



조지 피 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우리는 기도하고 명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참 좋기도 하고 참 나쁘기도 한 시절이었다.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시절이었다. 빛의 계절이기도 했고 암흑의 계절이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무 것도 갖고 있지 못했다.” (두 도시 이야기, 뉴욕 : 웨싱턴 스퀘어 출판사, 3페이지)

그 당시의 시절에 관한 이러한 묘사는 오늘날의 상황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연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안락과 눈부신 화려함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품 속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번영되고 강대국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금이야 말로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편, 참으로 나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이제까지 당면해 온 것보다 더 큰 문제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태만과 범죄와 파괴적인 전쟁과 부도덕과 그 밖에 다른 죄들은 새롭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커다란 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활동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가장 훌륭하게 보낸다면 우리는 하늘 나라로 직접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훌륭한 시기를 가장 어렵게 보낸다면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기적과 가르침과 교리를 알고 있으며,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보여 주신 모범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보여 주신 모범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의 가르침이나 교리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인간이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얻기 위한 그의

뜻에 따르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불행히 주께서 그같이 노력하심에도 인간은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인간 스스로의 계략과 지혜를 추구하여 다른 길로 빠져 나가고 있읍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 17 : 5)

우리의 과거나 현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모자라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시기보다도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께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 : 7-9)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요한복음 7 : 16)

주님의 성스러운 교훈은 우리 앞에 닥치게 될 어떤 문제에도 답이 되어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 시대에도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머거리로 전락했읍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이 인간의 그릇된 교리를 따르기를 택하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인간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운동은 매우 해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가 세상에 만연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미국의 어떤 주의 학교에서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위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성경을 읽거나 성탄절 캐롤을 부를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가르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으나, 현재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가 하면 죄악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미성년과 성년층에 부도덕한 행위도 날로 늘어만 갑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자 오셨읍니다. 그는 죄없이 사셨고, 의로운 일을 하여 모범을 보여 주셨읍니다. 그의 간단한 메시지는 “나를 따르라”(눅 9 : 59)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그의 가르침에 따르고, 의롭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그가 보여 주신 모범을 따르라고 하셨읍니다. 불행하고 슬픈 일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읍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의 가르침과 기적과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따랐읍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악과 폐악에 가득 찬 생활을 하느라 주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읍니다. 그런가하면, 육체적 안락과 교육적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굽급한 나머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재산을 모으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더 많은 향락을 누리고 혹은 여가를 늘리기 위해서, 스포츠와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여유를 내면서, 그를 받아들일 여유는 조금도 없읍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데에는 그처럼 후하면서도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주인이신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경전을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충실한 부모와 친구와 교사들의 중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읍니다. 우리는 대체로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고, 아무런 노력이 필요치 않고,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않는 편

리한 신앙만 찾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따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마 8 : 20)

우리 정부가 당면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점을 다루시는 주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문제점에서 야기되는 영향과 결과를 놓고 보지만, 주님은 근원과 원인에 초점을 둡니다. 주님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반해 인간은 문제가 일어난 후에야 처리합니다. 범죄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더 나은 법을 집행해 나가고, 대문을 좀 더 튼튼히 잠근다거나, 감옥의 벽을 더 두껍게 쌓고, 더 크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난을 해결하는 인간의 방법은 식량 배급이나 대부, 수입 보장, 공공 임대 주택, 기타의 방법을 통한 복지 사업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자급자족을 가르쳐, 스스로 돋는 자를 도와 주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방법은 피임약, 미혼모를 위한 양자 알선, 성병 치료소, 성교육, 이혼 상담 등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자선, 사랑, 순결의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결 방법은 범죄의 기사가 근본적으로 신문에 실리지 않도록 하며, 저녁 뉴스 시간에 방송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의도는 이 나라의 문제와 나아가서 전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개혁하는 데 있음을 넘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훌륭한 기독교인과 훌륭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훌륭한 교훈이 됩니다.

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배를 불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겹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에베소서 6 : 10-11, 14, 17)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충고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공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세에서 해결하려 하는 문제보다 더 크게 되려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위대한 철학입니다. 인간이 그들의 문제를 법과 뇌물과 힘과 교육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 회원인 우리는 하나님과 국가를 위하여 법과 질서를 위하여, 건강과 힘을 위하여, 근면과 용기를 위하여, 진실과 의로움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싸우는 길을 택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명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실제적인 면에서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것을 오늘의 우리도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목적과 그의 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를 받아들일 장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언자 유키 전한 영감받은 충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 하라”(욥 22 : 21)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0-21)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일상 생활 속에서 세상의 구속주를 받아 들일 공간을 만들어 둘으로써 참 나쁜 시대를 참 좋은 시절이 되게 하기를 나는 기원

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뼈임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그는 약속된 인류의 메시아이며 구세주입니다. 그는 인간의 영원한 심판자이며, 죽음과 죄의 정복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는 슬픔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매리언 알 보이어 자매,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셜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



진 알 쿡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 레이맨들에게 일어난 기적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교회 회원이 600,000 명이 넘고, 매달 평균 7,000 여 명이 침례를 받으며, 현재 181개의 스테이크에 2,400 개의 와드가 있고, 2,500 명의 라틴계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나의 가족과 함께 몰몬경의 백성이며, 위대한 약속의 백성인 리하이의 후손, 곧 남미의 레이맨인들 속에서 생활하고 있읍니다. 여러 해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 중에 나는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적을 보았읍니다.

1. 우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게 하신 주님께 개심하여 오는 것을 보았읍니다. (히 8 : 10 참조)

2. 우리는 그들이 수많은 시온의 스테이크로 조직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3. 우리는 그들이 참으로 “장미처럼 피어나” 예언이 그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교성 49 : 24 참조)

4. 우리는 그들의 신앙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실제로 보았읍니다.

어째서 그와 같이 되어야 했읍니까? 어째서 그 백성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까? 그들의 조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남겨 준 몰몬경이라는 책의 표제지에는 “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잔류민인 레이맨인...을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써어 있읍니다. 예언자 모로나이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서 레이맨들에게 작별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읍니다. 이 기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록이지만, 이 책의 첫장부터 끝장까지에는 레이맨인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어,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교성 3 : 18, 19 참조)임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 약속은 유독 레이맨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며, 이 땅을 소유한 모든 국가에 주어졌읍니다. 이 땅은 축복을 받았읍니다. “이같이 저들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믿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기도로 써 이 땅 위에 축복을 남겼느니라.”(교성 10 : 49-50 참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임을 알게 되어 기뻐할 것이요, 어둠의 비늘이 저들의 눈에서 걸 히기 시작하며.....”(나파아이서 30 : 5-6)

지금도 킴볼 대관장과 경전의 말씀은 우리를 그려 한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너는 레이맨인에게 가서 저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저들이 네 교훈을 받아들이

면 너로 하여금 저들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니와…….”(교성 28:8)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 역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 백성은 밀어 주고 끌어 주며, 문을 열어 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그 백성은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열려 있는 왕국의 회원이 되기를 간구합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회 보고, 1954년 4월, 107페이지)

주님은 야곱 지파의 후손인 이 백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음을니다. 예전에는 예 말랐던 들에 오늘날 그들은 힘차게 일어나고 진실로 “장미처럼 피어”(교성 49:24) 났습니다.

이 어찌된 기적입니까! 레이맨인 세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교회 회원이 600,000명이 넘고, 매달 평균 7,000명이 침례를 받으며, 현재 181개의 스테이크에 2,400개의 와드가 있고, 2,500명의 라틴계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신권 소유자, 즉 지역 대표, 선교부장, 축복사, 감독이 있으며, 충실향한 자매들과 앞으로 막강한 세대를 이끌 충실향한 자녀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하이 자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세워 놓은 교회에서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문자로 충만한 복음을 듣게 되리라.”(교성 90:11)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해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떠나 보내는 것을 염려하면서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를 보내, 그 자녀들이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보다 이 백성에게 봉사하는 중에 더욱 많은 것을 받았음을 아시게 된 많은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이방인 가운데서 나의 복음을 믿는 자의 재물을 성

별하여 이스라엘 집에 속한 가난한 나의 백성에게 줄 것임이니라.”(교성 42:39)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여 주님의 사업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게 힘써 주신 수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일로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레이맨인 선조들이 물론경에 들어 있는 기록을 부지런히 작성한 데서 여러분 자신이 얻은 개인적인 간증으로 인해 그 조상들에게 개인적으로 진 빚이 많은 만큼 여러분은 또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말일의 역사를 이루고 예언의 성취를 돋는 일에 그들과 함께 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레이맨인들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예언적인 역할로 인해서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킴으로 인해 우리는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이 그토록 민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개종의 과정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은 복음의 기본, 곧 우리가 승영을 향해 진보해 나가는 데 본받아야 할 신의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으로 교회에 보답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얻은 넘쳐 흐르는 영적인 힘은 보답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생활에서 신앙, 확신, 하나님을 믿음과 같은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아이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은 불과 몇 주일 동안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개종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 서반아어, 아이마리아어, 퀘이추아어, 그 외에 다른 많은 인디언 방언으로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맨인 성도들

은 그들의 사회의 통념에서 보면 자급자족이 전혀 불가능할 때라도 자급자족하라는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방법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들은 회개와 진실한 사랑 등과 같은 복음 원리를 일상 생활에서 실천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여러 형태의 세속적인 상황에서 교회에 들어와 깨끗하게 되어 나오는 그 “순간” 주님의 지도자로서 크게 자리게 됩니다. 그들은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모든 자를 이끌 수 있는 성령으로 곧 배워 알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 말을 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회개하여 침례받고 침례반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겸손, 온순, 온유함의 간단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한 사람도 침례주지 못하였던 곳에서 한 레이맨인 선교사가 약 삼주 동안에 18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온유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씨는 온유 온순하고 개방적이며,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마치 착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비회원이 처음으로 복음의 진실을 배울 때라도 그들의 믿음에는 거의 어려움이 없읍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믿습니다. 그들은 마치 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전세의 존재의 대한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도 합리적으로 믿고 있읍니다. 천사의 출현도 그들에게는 조금도 놀라울 것이 없읍니다. 그들은 진실로 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모 26: 21; 교성 84: 47 참조)

그들의 생활은 기도와 금식과 신권 축복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느 자매는 남편에게 주어진 축복을 통해 간접적으로 은사를 받고 그 약속이 그녀에게까지 전해져 빨을 갖게 되었

습니다. 병든 한 자매가 신권 소유자의 축복을 받는 순간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악마는 공개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려 드나, 필요한 경우에는 신권에 의하여 저지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독이 있는 음식과 물을 먹는다 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어느 자매는 현재 그녀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던 어린 처녀 시절에 받은 축복사의 축복에서 총판리 역원이 그녀의 작은 식탁에서 대접받게 될 날이 이르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한 페이맨인 스테이크 부장과 결혼하여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친절, 오래 참음과 회생이라는 기본적인 진실을 실천하는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총판리 역원이 접견하기를 원하는 형제를 찾기 위해 자기 차에 쓸 휘발유를 사려고 하나님밖에 없는 자기 시계를 팔기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노력한 끝에 자동차를 산 어떤 지도자는 가족과 함께 신전에 가기 위해 그 차를 팔기도 했습니다. 많은 형제와 자매와 아이들까지 그 땅에 주님께 바칠 신전을 세우시려는 주님을 도와 드리는 뜻에서 저마다 반지, 시계, 옥수수, 곡식, 가축, 그리고 자기 치아에 박힌 금까지도 빼어 바칩니다.

성령은 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기적적인 방법, 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지만, 계속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계속합니다. (렘 31: 33 참조)

이 백성들이 바로 리하이의 자손, 예언자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크게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암몬이 레이맨인들에 관하여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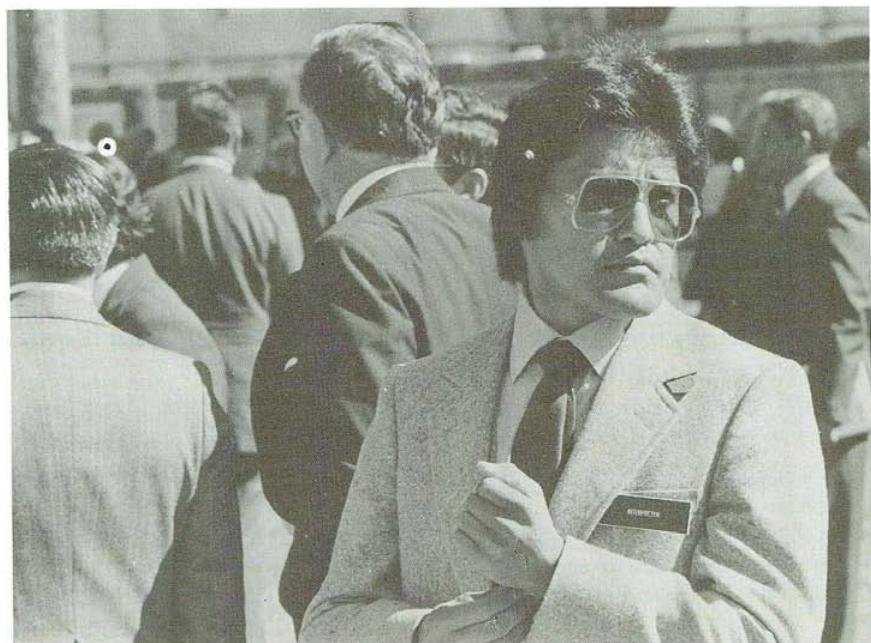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나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려 합이라.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매,  
“……보라 누가 감히 주께 너무 영광드린  
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  
푸신 크신 권능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지  
나치게 칭송할 수 있다 하겠느냐? 보라 [우  
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느끼는  
것 중 극히 작은 것도 다 말할 수 없느니  
라.”(엘 26:11-12, 16)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회에서 하기로 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합  
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더 중한 바 되는  
하나님의 속성, 즉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마 23:23 참조)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본 원리요 정수입니다. 말  
일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풍부하게 간직하  
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적을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렇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  
금은 기적의 날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  
니다.

말일성도는 우리와 모든 인류가 구원받  
을 수 있는 하늘 아래 유일한 존재이신 예  
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기적을  
바랄 수 있습니다. (교성 18:23 참조)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렸습니다.  
아멘. \*



많은 동역자들이  
대회 참석차 여러 나라에서 온 대회 방문자들을 도와 주었다.  
대회의 청중으로 참석한 지도자와 회원들 사이에는 수많은 나라와 언어가 있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게 하라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자기 의무에 진실됨은 주님의 진실한 사도가 되는 표시니라.”

나는 직책상 미국의 동남 지역과 자마이카를 포함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일을 관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아내와 함께 그 아름다운 열대의 섬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그곳에서 상당히 성실한 지도자의 한 분인 빅터 뉴튼트 자마이카 지부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대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뉴튼트 지부장님, 가정 복음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백 퍼센트 하고 있습니다.”

“방문 교육은 어떻습니까?”

“백 퍼센트 합니다.”

“성찬식의 출석은 어떻습니까?”

“백 퍼센트입니다.”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백 퍼센트입니다.”

85명 가량의 회원이 있는 교회 집단이 그처럼 놀랍게 운용되고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의무를 알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첨자리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다음과 같은 훌륭한 계시의 뜻을 진실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무릇 게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107 : 99-100)

명예의 전당(뉴욕 대학교에 있는 미국 유명 인사의 기념관)에 있는 로버트 이 리의 홍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의무란 가장 고귀한 날말입니다. 법사에 의무를 다하십시오. 의무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읍니다. 좀 덜 해야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존 바트렛, 명언집, 보스톤 : 리틀 브라운 출판사, 1968년, 620페이지)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에 간섭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싫든 좋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려면 그 만한 훈련과 숙달이 필요합니다. 의무란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으로 혼히 생각되는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믿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두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만물의 청지기의 직분을 맡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의무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성실한 마음으로 의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을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행복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하나의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그 계명에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마이카 지부의 회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마이카에 있는 한 무리의 선교사들 역시 메시지를 들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의무를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다른 모든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집에서 보내 주는 송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자마이카의 은행 법규에 의하면 은행에 수표를 제시한 후 두 달 후에 라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하고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하에서는 도저히 견디어 나가기 힘들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지배인에게 복음을 가르쳐 침례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표 결재 문제는 신통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그들의 의무를 이해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것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또한 자마이카에 있는 선교사들이 음식을 종류별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영양 보충에 필수적인 기본 식품을 구할 수는 있었으나 힘들여 고생하며 오랫동안 기다린 연후에야 구할 수 있었을

니다. 문제가 생기는 곳에는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식료품 상인을 가르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음식물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마이카에서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와 같이 선교사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주님의 사업을 합니다. 자전거는 부서지기도 잘 하며, 때로는 부속이 달아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부속을 구하고 수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즉 자전거 포 주인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지난 번 보고를 들어 보면, 그는 선교사들의 우정과 간증에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합당한 방법이 우리보다 먼저 간 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지금도 교회 전체를 통하여 혁신적인 교사와 지도자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생의 의무를 중시하는 태도와 정신이 다음 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할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와도 당해 내며  
그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  
을 믿어

바로 그곳에서 참된 위대성을 찾았네.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그곳에서의 그를 필요로 하심을  
믿어

비록 그것이 땀흘려 일하는 것이 될지라  
도

고귀하게 일어섰네.  
높은 자나 낮은 자를 시험하는 것은  
각자 최선을 다할 것이냐는 것이니,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일하는 자는  
결코 인간에게 빛진 채 죽지 않으리라.  
(작자 미상)

역사상 성공한 모든 남녀는 각자의 의무

를 확실히 알아 그것을 성취시키기를 굳게 소망했습니다. 구세주는 철저한 의무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그에게 요구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쫓아 인간의 죄를 속죄하여 신성한 의무를 성취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의 부름에 진실하여 참혹한 박해를 받고 커다란 개인적인 회생을 치르면서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회복을 완수하였습니다.

브리감 영 대광장 역시 그의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봉사와 의무로 일관된 수십년의 기간을 거쳐 오면서, 성도들을 자유의 제국으로 이끌어 내어 위대하고 강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충실히 의무를 이행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킹볼 대광장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충실히 의무를 추구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줍니다. 그 결과 전세계적인 교회가 되어 말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상의 위대한 분들은 모두 선택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무를 떼맡기보다는 좀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의무는 늘 개인적인 안락과 우발적인 편의를 일삼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곧 큰 회생과 개인적 고통을 의미하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무를 택하였고 그것을 완수하였습니다.

살아 나가노라면 많은 의무, 즉 때로는 일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보다 의미깊고 중요하기도 한 수많은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면에서의 의무란 합당한 본보기로 보여 주고 삶의 고된 길을 따라가면서 타인을 돋는 기회를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격려해 주는 말이라든가 칭찬하는 말 또는 악수,

즉 인정해 주는 마음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무에 대한 것을 잘 익혀 놓으면 또한 영원한 의무 수행을 준비하는 것도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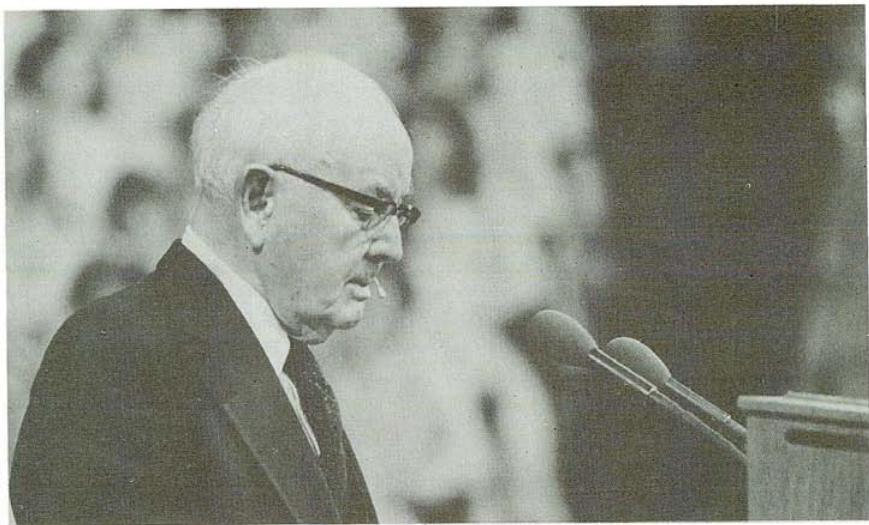
이 교회의 모든 회원, 즉 모든 성인 남녀와 어린이는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감을 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하나님의 윤법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매일 기도하며, 경전을 연구하고, 구세주를 더 가까이 하고, 남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각자 성찬을 함당하게 들며, 일상 생활에서 성신의 영향을 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가장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의 윤법에 순종하는 모범을 가족에게 보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애정이 가득한 가정 주부들은 이러한 생활로 자녀들을 이끌고, 사랑하고 배우며, 서로 돋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영화로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다 함께 그들의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엡 6:4) 양육할 성스러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배우고 집안 일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경전의 말씀대로 서로 싸우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족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선교사로서 봉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돌아가신 선조를 찾아 그들에게 신권 축복을 받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현세적으로 준비하며 불행하고, 가난한 자를 둘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의 비활동 회원을 격려하며,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그들의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맡은 부름을 완수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의무에 속하는 것입



니다. 그러한 것은 반드시 흥미있고 즐겨 할 만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신을 깨끗하게 하며, 영혼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서, 또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의무는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니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철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

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없이 흙 위에 짚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히 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눅 6:43-49)

형제 자매 여러분, “선을 행함에 지치지”(교성 64:33) 마십시오. 자기의 의무에 충실히 주님의 참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굳굳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제 이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실히 의무를 이행할진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을 얻고 왕국의 성장과 번영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 결 심

“목표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든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결심을 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찬송가(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를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은 울렁거립니다. 오늘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나는 이 교회의 청남을 담당하는 직책에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아론 신권 정원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선교사로, 교회 지도자로, 세계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이 거대한 젊은 무리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든지 그들이 갖게 될 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이 훌륭한 2,600명의 아론 신권 청남과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잊지 못할 캠프를 하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천막과 소년단복을 입은 소년단으로 단장한 캠프장은 마치 열두 개의 살로 된 거대한 바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살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메저렛 농원에서 6일 동안 캠프하면서 야영 기술과 특별한 시범과 신체 단련과 영적인 프로그램 및 수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2만 리터의 우유와 3만

킬로그램의 얼음과 1천 상자의 청량 음료와 7백 킬로그램 이상의 빵을 소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청남과 그들의 신권 지도자들은 신권의 목적에 역점을 두고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첫 날, 황혼 무렵에 각 “지파”가 정위치에 선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개최 캠프 파이어를 하기 위하여 경기장으로 행군하였습니다. 청남 회원들이 경기장을 향하여 두 줄로 행군할 때 황금빛 저녁 노을이 거의 5리 가까이 되는 이 행렬을 비쳐주며 장관을 이루었읍니다. 다채로운 것 밭이 공중에 펼려거리며, 현대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소년단 선서인 “명예를 걸고”가 새겨진 아야치 밀을 통과하였읍니다. 보초들은 소년단 선서와 규율과 아론 신권 목표가 헷볼로 새겨진 표지를 들고 서 있었읍니다. 신권 지도자들이 담당 청남 회원들을 인도하여 이 밀을 지나갈 때 모든 청남 회원은 매일매일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되며, 선교 사업을 하기에 합당하게 되고, 신전에서 결혼하기에 합당하게 되겠다는 개인적인 서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 밤에 결정한 것은 그 다음 나흘 동

안에 특별한 “산꼭대기”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기 위하여 종종 지정된 산꼭대기로 갔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인” 신권 소유자들은 영적인 인도와 훈계를 받을 수 있게 캠프장에서 특별히 지정한 곳에 올 준비를 갖추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복음의 기본 원리대로 살기로 서약할 때 그와 동시에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하고 치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 등과 같은 여러 가지에 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서약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여러 가지”는 킴볼 대관장님의 최근의 대회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젊은 남녀가 단 한 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다 일찌기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어떤 일을 멀리하고 청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해야 할 어떤 일을 한 번 결정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서는 안될까를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이 결정된 일을 해 나갈수 있습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아직도 결심하지 않았다면 결심할 결정을 내리십시오.”(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44페이지)

젊은 형제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전에서 꿈과 야망이 바라고 있는 의롭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생의 초기인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선 목표를 선정할 결심을 하십시오. 킴볼 대관장님은 그 대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착하게 결단력을 갖고 개인적인 목표를 진지하게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일을 성취함으로써 향상을 기하는 것

은 멀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론 신권 청년들(나는 여기에 교회의 여성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에게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44페이지)

나의 한 친구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 아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단은 아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며,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한동안 자기가 존경했던 근처에 살고 있는 어느 회원의 이름을 뱉었습니다. 단은 자기 아들을 그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의 재산과 생활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친절함과 관대함과 그의 훌륭한 명성과 인품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이웃이 현재와 같이 되기 위하여 바친 수년 동안의 중노동과 학교 교육과 훈련과 여러 가지 희생을 바친 것과 그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시련 등의 대가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현재 그가 소유한 재산이나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의로운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이 축복하신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외에도 성공적이고 의로운 생활의 표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택하였고, 현명한 아버지로부터 그 사람들의 인생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린 나이에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인생 여정에서 기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지침이 되는 목표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자기가 선택한 진로로 나아갈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 할 결심을 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해야 합니다. 한때 세계 제일의 갑부로 생각되었던 제이 폴 게티는 다음과 같은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여 기름줄기기를 찾아라!” 또한 게티씨는 다음과 같

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시속 95킬로미터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나는 시속 95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 한 가만히 서 있는 것이다.”(케이 폴 게티, 리더스 다이제스트, 1980년 9월호, 94페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이작 스텐은 텔레비전 쇼의 사회자로부터 인생에서 어떤 동기로 콘서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텐씨는 자기가 어렸을 때 켈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연주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큰 감명을 받았으며, 이 유망한 어린 신동의 장래가 축망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아이작 스텐은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1년 후에 뉴욕에서 갖게 된 연주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비평가들이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작 스텐이 독주자로서 성공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젊은 스텐씨는 낙담하고 절망하여 뉴욕시티의 이층 버스를 타고 여러 차례 맨하탄 섬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당시의 위치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애쓰면서 그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속으로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평가들이 옳았습니까? 그는 자기 능력의 한계까지 다 온 것입니까? 그는 다른 교향악단의 평범한 일원이 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그는 네 번이나 버스를 타고 뉴욕을 배회한 후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머니, 노력하겠어요. 음악이 나를 위하여 일해 줄 때까지 음악 공부를 하겠어요.” 오늘 날 아이작 스텐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ニ스트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일은 축복이 따르는 원리입니다. 일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힘과 성품을 모두 증진시켜 주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곳에 그냥 멀어져 내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농구 코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잠재 능력의 정상에 도달하려면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길은 험하고 어렵고 대중의 칭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기꺼이 혼신적으로 일하려고만 하면 성공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믿을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성공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궁극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한 확실한 공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활이 그분의 복음과 일치할 때,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나파이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주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어 일할 때 주께서는 인간들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으심을 어찌하여 잊었느냐? …… 이제 우리는 주께 충실하자.” (니일 7:12)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러한 신앙으로 용기와 낙천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노バス코셔의 탄광에서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온 톡剔 산맥이 (여러분을) 뒤덮을 지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신앙을 보이고 용기를 갖고 온갖 힘을 다하여 꼭대기로 헤치고 나와야 합니다.”(조지 에이스 미스 일지, 교회편에서 프레스톤 니블리, 1950년 3월 12일, 16페이지)

우리의 사랑하는 청남 청녀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에 있읍니다. 청년기는 습관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이상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며, 결정하는 시기

입니다. 오늘 우리 예언자께서 하신 “결정할 결심을 하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선 몰아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며, 자신의 생활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자신의 신성한 운명에 일치하는 목표를 설정할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결심을 하십시오. 진실로 자기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을 믿을 결심을 하십시오. 일 할 결심을 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아래서 기꺼이 일할 때 어떤 일이든지 의롭게 노력하는 가운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복음 빛 안에서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판장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왕국의 열쇠”

“주님은 예언자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늘 그 의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우리는 거룩한 가르침에 따라 이 훌륭한 반연자 대회에 모여,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의 아들되심을 만방에 전하니, 그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3 참조)

이러한 대회에 참석하여 예언의 영을 눈으로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신앙과 의롭게 살아가려는 소망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관리하도록 지명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권고를 받습니다. 이 왕국은 권세로 충만해 있으며, 이 세상에 가득 찰 때까지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그 왕국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영원히 살 것이리”(단 2:44)고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대회가 끝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구세주를 찾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말한 참된 교리를 만방에 전하여, 주님의 교회에 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고자 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 종파 중에서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독특합니다. 우리는 여하한 기독교 또는 비기

독교회와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나 종교 단체와 전혀 어떠한 관계도 맺은 일이 없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하는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권능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16 참조)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인 우리는 충실히 생활한다면, 주님의 사업에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실과 의로움 앞에, 교활한 인간의 악한 영향력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권세와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구세주를 위해 세상을 준비시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다른 교회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신권과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열 두 명의 사도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구세주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로 누구

라 하느냐”(마 16:13)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4-19)

주님은 그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몸소 계시하신 거룩한 진리로 된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시고, 음부의 권세가 그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왕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약속되어, 그는 다른 십이사도들과 함께 그 권능을 행사하고, 그 열쇠를 관리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특별히 영적인 경험이나 가르침을 주어야 할 경우에,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대동하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닉힐 고난에 대비하여 변형의 산에 오르셨을 때, 이 세 명의 사도를 데리고 가 그의 영광,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 주시어, 그들은 하늘의 일을 보면서 마음과 신앙을 크게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약속된 신권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로운 일이 일어나는 동안 모세와 일라이어스도 나타났으며, 그 세 명의 사도들은 예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을 들었습니다.

1830년 8월에, 주님의 계시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사도로 성임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이러한 것이었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너희에 보내어 너희를 성임하게 하였고, 사도 곧 내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 확인하게 하였고, 성역을 베푸는 열쇠와 내가 저들에게 계시한 것과 동일한 일을 수행할 열쇠를 지니게 한 자들이니라.

“나는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나의 왕국의 열쇠와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맡겼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충만한 때를 위한 것이라.”(교성 27:12-13)

왕국의 열쇠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성역을 베풀고 나서, 권능을 전해 주신 세 명의 고대 사도들에 의하여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졌읍니다.

주님은 계시를 통하여 프레드리 지 윌리암스를 요셉 스미스의 보좌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부름받은 바 그 부름 곧 나의 교회의 대제사가 되고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의 보좌관이 되는 부르심을 들으라.

“요셉 스미스에게 나는 왕국의 열쇠를 주었나니, 이 열쇠는 대신권의 대관장단에 항상 속해 있는 것이라.”(교성 81:1-2)

1836년 4월 3일에, 변형의 산에서 구세주와 세 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분들이 커틀랜드 신전에 나타나, 지상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비하여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의 권능을 부여했읍니다. 모세는 나타나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를 주었읍니다.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약과 권능을 회복했읍니다. 엘리야는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는 열쇠와 권능을 주었읍니다.(교성 110:11-16 참조)

경륜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던 이와 같은 왕국의 열쇠는 요셉 스미스와 그 뒤를 이은 모든 교회 대관장들에게 주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에게 들려 져 있습니다. 그가 이 최고의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계시의 권리와 신권과 교회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신권의 통치 권능은 킴볼 대관장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포함하여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속한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성 112: 30-32 참조) 이러한 열쇠와 권능은 이 세상에서 일대에 단 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 조금 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킴볼 대관장은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께서 교회의 대관장이 되어 첫번 기자 회견을 가졌을 때, 교회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극적인 이야기라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주와 함께 걷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여 고대로부터 예언자들이 되풀이해 온 영원 불변의 충고를 재확인시켰습니다.

김볼 대관장을 가까이 접하게 되면,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나 또는 세계사에서 이처럼 위급한 시기에 그에게 주님의 교회를 관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그분이 확인과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영감받은 결정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를 확신하고 신뢰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인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849년의 영국인 개종자인 윌리엄 파울러

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큰 감명을 받고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가 59장)라는 감동적인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킴볼 대관장의 권고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서 오는 고상하고 확신에 찬 권고의 말씀으로 영감받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수개월 후,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자세한 가르침과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명하노니,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는 바를……거룩한 마음으로 행하며……

“……최선의 은사를 구하여 무엇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라.

“……그 은사는 나를 사랑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 또 그같이 행하는자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나니……”(교성 46: 7-9)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나니,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신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아는 은사를 주시며

“다른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어……은 사를 주시며.”(교성 46: 11, 13-14)

하나님의 예언자를 따르고 우리가 드리는 겸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늘 그의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대변인은 스스로 지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그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히 5:4 참조)

150년 전 교회가 조직되면 날, 주님은 새로 부름받은 예언자를 잘 따르도록 회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교성 21:4-5)

주님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약속이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 흘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성 21:6)

우리가 행하도록 지명받은 과업은 전능하

신 하나님이 뒤로 물러설 줄을 모르는 지도자들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지지함으로써, 우리 예언자를 따르기로 성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중에 권능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신으로 감동되는 대로 말하여야 함도 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에너리라.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성 68:3-4)

킴볼 대관장은 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열쇠를 갖고 있읍니다. 즉,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집합을 위해 온 세상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성스런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거룩한 신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말일의 예언자를 통해 계시된 이 거룩한 과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어, 의인에게 보상을 주시고, 강한 왕국을 세우시어, 의롭고 평화로운 통치를 하시리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이 교회는 구세주와 고대 사도들에 의하여 재조직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킴볼 대관장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독생자 역시 살아 계심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중도에서 지치지 마십시오”

“‘진실로 너희가 이 모두를 믿을진대 이를 행하라’고 고  
대의 한 예언자가 훌륭하게 우리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여 총관리 역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언제나 이 연차 대회에서 받는 권고와 격려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 회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합창대 여러분이 이 기간을 더욱 훌륭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주의깊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축복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을 폐회 찬송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흘려 버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있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의 마지막 아멘 소리를 늘 기억하면서 지난 이를 동안에 배운 원리들을 실천하며, 더욱 잘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갑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정확한 원리를 배운 한 항상 동일합니다. “진실로 너희가 이 모두를 믿을진대 이를 행하라.”(모사이아서 4:10)고 고대의 한 예언자가 훌륭하게 우리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과 일상적인 일의 세

계, 즉 소요와 투쟁의 세계로 돌아가 우리의 책무에 임할 때, 이 대회 기간 동안에 다짐한 내적인 결의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몇 시간 동안 세상과 동떨어진 채 연차 대회를 가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에 화평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에 있는 자기 처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개선할 준비를 더 잘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침차게 더욱 자신있게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합시다. 머뭇거리는 발걸음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생긴 꾸준한 혼신으로 무장하여 굳건하고 확고하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대회 기간 동안 기쁨이 넘치는 훌륭한 시간을 가졌고, 친구들을 만났으며, 성도들은 많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받아들인 의무를 완수하려는 결심을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런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도전해야 할 여러 가지 세상사와 풍조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서 조금도 혼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닷도

없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통할”(엡 4:14) 필요는 없읍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에서 우정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현대 예언자들이 있읍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우기 현대 통신 수단은 세계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고 있읍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되겠읍니다. 낙담계 하는 보도를 듣거나, 세상의 사건들로 인해 침울하게 될지라도 겉장이가 되지 맙시다. “중도에서 지치지 맙시다.”(요한복음 4:6 참조)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실패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성공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더미 속에서도 주의 사업은 중단없이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온 땅을 채울 때까지 널리 펴질 것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나 확신을 심어 주었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움직이며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더욱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레이멘인의 계획에 대단히 감명을 받았읍니다. 나에게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진실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며, 멀리 그리고 널리 세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레이멘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마음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의 훌륭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화를 입었으니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축복하며 교화합시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뭉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읍니다. 내가 방문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들 나라와 국민들에 대해 커다란 사랑을 느낍니다. 그들은 각 개인의 자격으로 또한 한 국민으로서 어느 때나 우리를 맞아 주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이 대회가 끝나면 주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모든 방문자들을 통해 그러한 사람이 멀리 또는 가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독생자요, 구세주요,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중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그가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모든 것과 우리에게 행하고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활력에 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평생 동안 하려고 계획해 온 일들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하게, 전에 해오던 것보다 더욱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복음이 여기에 있으며, 주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사업에서 그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우리의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과 국민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 십일조의 법

“이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범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나의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들이 십일조의 법과 그것에 관한 복음의 원리들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태초로부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고전 10 : 26)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주님은 이 충만한 것으로부터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도 이 주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교리와 성약 119편에 실려 있습니다.

때때로 대관장단 사무실에서는 합당한 십일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교회 회원들과 회원들로부터 문의를 받습니다.

즉, 교회 회원들은 수입을 뜻하는 “총 이익의 십분의 일을 매년” 바쳐야 한다고(교성 119 : 4 참조) 하신 주님의 단순한 말씀이 곧 우리의 대답입니다.

때때로 주님을 섭기는 것이 헛된 것이라 는 생각이 들 때엔 우리의 믿음에 자극을 주고, 하나님의 풍요한 약속을 믿고, 순종

하며 끈기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풍요한 약속들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전 2 : 9)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위대한 축복들이 약속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자에 대한 약속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뜻이 없도록 봇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말 3 : 10-12)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38년 7월 8일 미주우리주 파웨스트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 경륜의 시대에 십일조의 법을 확립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제시되었으며, 이

것이 교리와 성약 119편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10일 후에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에게 교리와 성약 120편을 제시하심으로써,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교회 십일조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계시로 지명된 18명의 총판리 역원으로 구성된 십일조 사용에 관한 평의회가 주님의 교회의 십일조의 지출을 결정하고 승인하기 위해 주님의 영감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적자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스러운 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조심성 있게 세워져 절대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게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1897년 10월 대회 때 바로 이 연단에서 십일조의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의 법의 목적은 세계 모든 주와 국가와 차치 단체에서 제정한 세법의 목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 인간이 만든 조직으로서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조직은 없읍니다. 십일조의 법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세법입니다. 이것 없이 주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복음교리, 203페이지 참조)

시간이 없어 나의 삼촌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으로부터 들은 십일조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이며 축복사인 하이 랍 스미스의 미망인 메리 필딩 스미스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온 이후에 겪은 경험담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슴을 뜨겁게 하고 믿음을 발전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지금은 유타 호멜이 들어선 걸 건너편의 십일조 사무소에서 그녀가 십일조를 내는 것을 책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부끄럼지도 않습니까? 나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셈이에요? 만일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축

복을 거두어 가실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내가 십일조를 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법과 다른 법들을 지침으로써 번영하여 나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스미스 대관장님의 저술과 말씀이 있는 복음 교리의 204, 205, 206페이지의 이야기를 읽으시도록 권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일조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는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이며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십일조의 법은 신성한 계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적용됩니다. 성경을 믿는 자는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일성도와 같이 그것을 이해하고 생활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예언자들에 의해 우리에게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말씀이 몇 번이나 울려 퍼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고 신성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어 같은 간증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요즈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더욱더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깊이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기 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40년이 넘도록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복지에 대한 첫번째 책임은 우리 자신의 어깨에 놓여 있으며,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있다고 배워 왔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교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더욱더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감독들이 분배한 금식 헌금과 생활 필수품의 양은 경종을 울릴 만한 것입니다. 현재의 수요대로라면 조만간에 교회의 재원은 거의 다 소모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필수품은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불경기는 곧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준비에 관한 가르침이 잘못 이해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우선 순위

를 올바르게 설정했더라면 스스로 대비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서 도와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두 스테이크를 방문하면서 내가 강조하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두 스테이크가 모두 훌륭한 말일성도 지역 사회에 속해 있었으며, 둘다 일시적이거나 극심한 고용 침체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나는 보통 스테이크 대회를 위해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의 유형을 알기 위해 인근 지역을 둘러봅니다. 예를 들면, 뜰은 손질이 잘 되어 있는가? 집을 잘 돌보고 있는가? 낡고 허물어진 외양간이나 부속 건물이 있는가? 또는 소유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울타리는 쳐 놓았는지 살펴봅니다. 달리 말하면, 주민들이 자신과 지역 사회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스테이크에서는 잘 손질된 집과 뜰을 보았습니다. 다른바 번창하는 중류층 지역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유한 지역이라고도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단을 만났을 때 의견상으로 보이는 주민들의 부유함에 대해 언급

했읍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복지 문제를 검토하면서, 금식 현금과 감독의 창고에 대한 요청을 보고 충격을 받았읍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대기업주들이 한두 주 일간 휴업을 하는 동안 많은 가족들이 감독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축물이 너무 적었읍니다. 그는 또한 그 스테이크에는 자신의 비축물로 자신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 일부 이웃 사람들까지 도와 주는 신앙심 깊은 회원들도 있다고 말했읍니다.

두번째 스테이크는, 첫번째 스테이크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으나 똑같이 고용 문제로 심한 타격을 받았읍니다. 비록 소유물들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긴 했으나 부유한 혼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읍니다. 여기서는 금식 현금이나 감독의 출고증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고 놀랐읍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에게 감독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알고 이행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읍니다. 그는 몇몇 가정은 감독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자신의 복지에 대해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둘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스테이크 회원들의 우선 순위는 상당히 달랐읍니다. 첫번째 스테이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회에서 돌보아 줄 것으로 기대했읍니다. 반면에, 두번째 스테이크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읍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사항에 대처할 준비를 했읍니다.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개인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볼까요?

몇 달 전에 한 젊은 부부가 의료 보험을 해약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들은 그 보험료를 렬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엄청 난 인플레이션 시기인데 대학원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 총판리 역원의 권고를

경시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조산아를 낳아 엄청 난 의료비가 들었읍니다. 그들은 놀라고 상심한 나머지 먼저 가족에게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그 다음엔 감독에게 가서 금식 현금으로 추가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들이 보험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실업 학교가 너무 요구 사항이 많고 학비가 비싸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 두고 결혼을 한 후 식료품 가게에서 보수가 적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읍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 그의 수입으로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 사항마저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찾아가기는 너무나 난처해서 감독에게 도움을 청했읍니다.

또 어떤 가족은 가정의 밤을 갖지 않고 텔리비전으로 월요일 밤 스포츠를 보기로 했읍니다. 몇 달 동안 가족 기도와 복음 토론과 경전 읽기와 기티 의미있는 가족 활동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심대의 딸이 가출하게 되어 그 부모는 감독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예에서, 회원들이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원리를 응용했더라면 주된 문제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복지 사업 프로그램은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 원리는 전세계 모든 회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스테이크 지도자 여러분께서 이 복지 사업 모임의 메시지를 감독과 정원회 지도자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전달하여, 교회 회원들이 충분히 배우고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이야기한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생

활하여 가정에 질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교성 90 : 18 참조)

감독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 도움을 받을 것이며, 어떤 형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의 판단은 이 프로그램을 현명하게 집행하는 근본이 됩니다. 그는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단순한 의연품에 불과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마땅히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찍이 나는 이러한 원리는 40년 동안이나 가르친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킴볼 대판장님은, 사실은 훨씬 더 오랫동안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리감 영 대판장님께서는 1868년 7월 25일 밀크리크 와드에서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나는 말일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대단히 태만하고 게으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느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주실 것으로 믿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베푸기 폐가 물려와서 농작물을 해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예언자 학교에서 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나는 사람들이 재산을 낭비하고 주님께 며여 살려 달라고 요청하느니 좀더 지각있게 행동하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론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이 권고를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으며, 궁핍한 날에 풍족할 수 있도록 해마다 곡식을 비축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인 기근을 보낼지 모릅니다. 우리 이웃에게 기

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때를 당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가올 시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말일성도의 행동과 그들이 받은 권고를 등한시 한 것에 대하여 검토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 베푸기 폐가 이번 철과 다음 철까지 농작물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얼굴에는 죽음과 비참함과 궁핍함이 비칩니다. 혹자는 ‘주님께서 죽어 버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휘두를 수 있는 칼과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팔과 두뇌를 주셨는데, 무슨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분께 ‘나의 싸움을 싸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나의 싸움을 싸워 주시길 요청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권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일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은 몇 년 동안이나 들판에 풍성하게 곡식을 가꾸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족했더라면 창고는 차고 넘쳐 7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했을 것이요, 베푸기 폐의 피해를 개의치 않고 이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싸우고 일하는 데 시간을 바치는 대신 협곡으로 가서 목재를 베어 생활 용구를 마련하고, 집을 짓고, 단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전물을 개량하고, 시온을 단장하고, 땅을 쉬게 하며, 이 베푸기 폐들이 지나갈 때까지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일성도들은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빈궁하며, 어려움에 처하여 당황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읍니다. 그들은 해야 할 바를 들었으나 이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교집, 12 : 240-41)

영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종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우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 : 13 참조) 권고에 순종했더라면 오늘 날 꼬물 창고를 갖게 되었을 것이요, 그곳에 곡식이 넘치게 되었을 것이요, 몇 년간 우리와 가족들이 먹을 밀과 커리와 보리를 저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집, 12 : 241)

영 대관장님의 말씀을 좀더 인용하겠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아론에게 달려가서 모세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섭길 신을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귀고리와 팔찌와 패물을 가져 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읍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 주위를 둘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을 얼마 만큼이나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풍요하게 수확했을 때 비축하지 않고서 메뚜기 폐가 오자 ‘주여, 저들을 쫓아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소리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정도의 신임밖에 받지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넓은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배의 갑판에 서서 믿음을 보여 주겠다고 말하고서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는 ‘주여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무모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재산을 탕진하고서 궁하게 되자 자신이 낭비한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 만큼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왜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고 있는지 물고 계십

니다.” (설교집, 12 : 243)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일년간 먹을 것을 비축해 두고,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 충실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며 준비할 때 생기는 평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족들이 일년간의 양식과 의복과 다른 필수품을 마련하기 위해 소체원을 경작하며 일하고 있는 것을 편지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전 가족을 물질적인 복지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어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식품 창고를 갖고 있어요. 저는 열 살입니다. 저는 형제님의 ‘가정 비축과 생산’(PGWE1125KO)이라는 소책자를 갖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또 다른 것을 함께 보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갖고 싶어요. 트라비스 릴 올림.”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나의 예세지의 요점은 이 설교단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듯이 복지 프로그램은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지, 교회 예비 프로그램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에 생산 사업, 통조림 공장, 감독의 창고, 레져 렛 산업 및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회원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자기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매신해 주는 것으로 잘못 믿게 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지난 몇 달 동안 금식 현금과 창고 물자에 대한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근래의 역사에서 나타난 기간만큼이나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경제는 통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도처에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집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은 매월 지불 금액이 너무 높아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은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을 비축해야 한다고 배워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채를 졌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물건들을 사 두어야 하며 그것을 사용하고 사용한 것 만큼 돈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독립하여 자립 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상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극단론이나 광신주의와는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다음에

인용할 브리검 영 대관장님께서 언급하신 사람들과 같을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이전에 메뚜기 폐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2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 재앙에 대해 지금 생각하는 것 만큼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해에는 더욱 적게 생각할 것이며, 4년이나 5년이 지나면 거의 완전히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뚜기 폐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만 섬의 밀파 귀리와 보리를 저장하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즉 메뚜기 폐들] ‘와 불려면 와 봐. 너희들을 위하여 경작하지는 않겠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땅을 갈고 거름을 주어 땅을 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뚜기 폐들은 우리가 시온을 단장하고 아름다운 주택지를 건설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여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을 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설교집, 12 : 242)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앞에 더욱 어려운 시기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백성들의 복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교성 88 : 119)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교성 104 : 16)고 말씀하셨으므로 각 개인 및 가족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궁핍과 고난을 겪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다시 한번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도처에 있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복지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우리 백성들이 준비되고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아론 신권 회복을 기념하는 조각물을 살펴보고 있는 어린 소녀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 신앙의 권속

“복지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자기 가족내에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세대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은 예언자들의 음성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읍니다.

1. 개인적인 의로움을 증가시키고,
2. 수입 이상으로 소비하지 말며, 부채를 청산하고,
3. 일년 동안 쓸 충분한 양식과 의복과 가능한 곳에서는 연료까지도 생산하여 저장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간단한 권고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권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 사람들이 어린 양치기에게 “늑대가 오는 것을 보거면, ‘늑대다! 늑대다!’라고 소리쳐라. 그러면 우리가 총과 쇠스랑을 들고 나오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튿날 소년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멀리서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자다! 사자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

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는 양을 몇 마리 물어 죽였습니다. 그 소년은 슬펐습니다. “왜 내가 소리칠 때 오지 않았습니까?”

“이 지방에는 사자가 없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늑대란다.”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린 양치기는 다음과 같은 아주 가치있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만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종관리 역원들은 경제의 실상과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고난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대재난의 시기로 해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매점 매석을 일삼는 자보다 먼저 구입하려고 식품점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1976년 4월에 페더스토운 관리 감독이 회원들에게 일년간 쓸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하는 연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까지 가정 비축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던 일부 회원들은 수백 달러 어치의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빚더미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선지자 요나처럼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주시했던 것입니

다. 그것은 마치 페더스토운 감독이 1977년 4월 1일로 운명의 날을 공식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가 뜻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언제나 질서 있게 준비하는 길이었으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방식이나 혼란과 당황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역사가 준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보며,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웁시다. 기번스, 토인비, 듀랑 및 유명한 역사가들은 위대한 문명이 몰락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것을 반복한다면 단조로울 뿐입니다. 어떤 미국 교육가는 원인과 결과를 요약하여 각 문명이 몰락한 여섯 가지 공통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 종교적인 신념을 상실했으며 기본적인 윤리를 업신여김.

“2. 성의 노예가 됨.

“3. 돈의 고유한 가치를 저하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만연시킴.

“4. 정직한 일은 더 이상 미덕이 되지 못함.

“5. 법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지고 폭력이 개인 및 집단의 욕구를 성취하는 당연한 수단이 됨.

“6.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와 자신의 재산을 방위하기 위해 기꺼이 군인이 되려 하지 않음.”(샌프란시스코, 페르몽 호텔에서, 미국 석유 협회 연차 종회 때 케네스 맥파랜드 박사가 한 “2백년만의 미국의 기회”라는 연설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현대의 국가들이 이런 파멸을 면할 수 있을 만큼 혁명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전로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또한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와 개인적인 의로움을 통해서 힘 닿는 데까지 전제 정치와 경제적, 도덕적 파탄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예언자를 따름으

로써 만이 영구한 안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교리와 성약 101편에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그의 말씀에 귀기울이기를 더디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 기도 들으시기를 더디하셨고 저희 환난의 날에 저들에게 응답하시기를 더디하셨”라고 상기시키면서

“저들이 평화로운 날에는 나의 후계를 가버이 여기더니 환난의 날에는 부득이 나를 찾는도다.”(교성 101:7-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동일한 계시 속에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 매우 강력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농부들을 고용하여 감람원에 열두 그루의 감람나무를 심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 그 위에 파수꾼을 둔 것을 기억하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 상의할 때 “지금은 평화로운 때”(교성 101:48)인데 왜 주님에게 망대가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임을 열어 논쟁하며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저들은 심히 게을러”졌으며

“원수들이 밤에 와서 울타리를 쓸어 뜨리는”지라, 놀란 종들은 달아났으며 “원수는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파괴하며 감람나무를 꺾어 버렸”(교성 101:50-51)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를 배우는 무서운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히 주님의 간단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복음의 경륜의 시대마다 참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족인 용감하고 충실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 한개인이거나 한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을 받고 기억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고 놀라운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섬기는 데 자신을 바쳤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뼈요,

근육이요, 힘의 원천이었읍니다. 그들은 “신앙의 권속”(교성 121:45)을 이릅니다. 그 여러 경전 구절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모세서 5:6)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나는……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곧 내게 이러한 문제점을 주십 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온 힘과 능력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헌겠습니다.”(스펜서 더블류 킹볼, 성도의 벚, 1980년 3월호, 119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시는지를 늘 알 수는 없읍니다. 그분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의 방법이 끝다는 것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구부러진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행하고 후에 확신을 받을 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읍니까? 혹자는 그것을 맹종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다호주의 어떤 감독은 “어떤 형태의 순종일지라도 그것은, 어떤 형태의 불순종보다는 낫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은 후에도 증거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난날에 불순종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우리 집에 질서를 세울시다.

나는 우리가 예언자들의 권고를 응용함으로써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의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즉,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

다. (1) 개인의 수입 및 저출 관리, (2) 사업의 질과 생산성의 감소, (3) 현금 및 일용품의 불충분한 비축.

나는 여러분들이 재정 관리의 필요성에 관해서, 1979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태너 부대관장이 말씀하신 “변화 속의 불변성”(성도의 벚, 1980년 3월호, 120페이지)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주목하여 그것을 주의깊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잘 세우는 것은 전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산을 세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읍니다.

우리들은 부채를 청산하라는 권고를 들어왔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지시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당황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빚지지 않고, 집을 사고, 학비를 내고 혹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전염병을 피하듯이 부채를 피하라고 권고하셨을 때 그는 위대한 현세적인 조화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빚은 언제나 짐이지만 어떤 빚은 필요합니다. 전전한 사업을 위한 부채, 주택 저당, 그 외의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전한” 빚은 대부분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친지나친 신용 대부는 짐이 됩니다.

대개 의상 거래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원하는 것 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유혹적인 광고에서는 사치가 우리의 권리며,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시킵니다. 기호를 채우던 사치품이 어떻게 곧 필수품이 되는가 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 아닙니까?

신용 대부에 대한 우리의 관리 지침은 마땅히 이려해야 하겠습니다. 즉, 꼭 필요한 액수만을 가능한 한 최저리로, 가능한 한 최단기 동안만 빌려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억제해야 하며, 시간을 존중하는 미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빚더듬으로 뛰어들고 인플레이션에 편승하여 쉽

개 빚을 청산하라는 교활한 무리들이 있읍니다. 나는 이 주장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만일 전술한 대로 따른다면 우리의 경제 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빚을 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장래의 소득을 담보로 빚을 지면 재정적으로 곤경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체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수입을 얻는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소비를 줄여 조정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그들의 임시 변통적인 지식과 기교만을 일삼는 “범인의 솔책”을 그대로 답습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술에 대한 공지는 경쟁적인 자유 기업 제도의 핵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기술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수많은 기술자들, 가르치지 않는 교사들, 수선하지 않는 수선공들 경작하지 않는 농부들, 이끌어 주지 않는 지도자들 또한 온갖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 해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정직하며, 훌륭한 노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의 부를 명예스럽게 공용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의 상품과 용역을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탁월함으로 인해 유일한 질적인 몰몬 표준을 세우려는 마음으로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도처에서 성도들을 요구할 것이며, 최고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의 일부입니다.

태초로부터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반복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경제에 관한 주님의 첫번째 교훈의 일부로서 머리를 쓰고 근육을 움직여 땀을 흘림으로써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신성한 근로의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계으름을 저주하셨으며 시온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라고 명하셨

습니다. 탁월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보상과 영혼의 만족은 참으로 가치있는 것입니다. 능력 이하로 일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심한 공부 상태를 유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보의 교리에는 직업적인 발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

끝으로, 불충분한 비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궁핍한 때를 대비하여 잉여분을 저장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수확한 것을 모두 함부로 낭비하며, 장래에 필요한 것을 운명에 맡기거나 타인에게 맡겨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율법에 상반되는 것입니다. 점약은 의의 원리입니다. 결코 생산을 초과한 소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우리가 창출한 잉여분에서옵니다.

양식과 마찬가지로 현금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자녀들에게 우리가 버는 모든 것의 일부분을 보관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축하지 않는 가운데 구매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주요한 비축은 주택에 있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염려하는 것은 수많은 가정들이 너무 확장해서 빚 부담으로 주택 소유의 이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혼동하지 맙시다.

비축 결핍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잠재적인 손실에 대한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야말로 최대의 자산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 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양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은 자기 가족을 위한 장래 수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때 아

닌 죽음으로 우리의 생애가 단축되었을 때 아내가 주부인 동시에 부양자로서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는 적절한 보험 계획으로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 보험에 들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의료비가 급속히 인상되고 있으므로 보험없이 저축에 의존하여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저축이 증대하는 것보다 의료비가 더 빨리 인상됩니다.

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고 있읍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가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것인가를 설명하기 전까지는 집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 변방에 왔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큰 자동차 회사들이 문을 닫았을 때 미시간주 주민들은 경제 지원을 축소하고, 많은 실업자가 속출할 만큼 전면적인 불황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오랫동안 무능력자가 되어 버린다면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것과 똑같이 나의 수입이 멎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역겨운 상황을 다소 초연한 자세로 지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이 “이웃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경기가 침체된 상태이지만, 내가 직장을 잃으면 경제 공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식을 구입할 돈이 있는 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양식은 아닙니다. 만약 창고나 상점에 식량이 없어진다면 돈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읍니다. 롤니 부대관장님과 클라크 부대관장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생산한 것으로 연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읍니다.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교회의 복지 사업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여러 분과 내가 자기 가족내에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창고 제도는 가난하거나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소수의 회원들과 비상 사태나 재앙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정당하게 개인에게 속한 의무를 떠맡으려는 의향은 전혀 없읍니다. 복지 프로그램은 결코 그렇게 하려고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단결하여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고, 교회의 사업과 통조림 공장에서 나오는 물자를 공급하여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비축에 곁들여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를 쌓아 둡시다. 1833년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놓으라. 의롭게 생활하는 자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성결을 위하여 만사는 협동하여 유익하게 되리라.

“이는 나를 의롭게 섬기고자 하는 순결한 백성을 일으켜 내게로 세우려 함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교성 100 : 15 -17)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권속”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가운데서 발견되기를 기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 기쁜 마음으로 따릅시다

“우리 자매들이 주어진 권고를 희생이나 의무에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받아들여 따른다면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자매들이 희생 정신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오늘 아침에 주어진 지혜로운 권고를 받아들여 온 마음으로 따른다면 각 가정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태도는 기쁨과 믿음과 모험과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을 방문하여 나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때 그분은 애급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는 중이었으니다. 캠볼 대관장님은 요셉이 위대한 복지 프로그램 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경험에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복지에 관한 이야기의 하나가 되게 한 그의 성품과 정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급에서 고역을 치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창세기 39:1, 4 참조)를 맡았을 때의 상황을 상기해 봅시다. 부당하게 옥에 갇혀 있는 동안의 믿음의 시험을 기억합시다. 마침내 바로 왕궁의 총리가 되게 했던 꿈의 해석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땅이 이 흥년을 인하여 멀망치

아니하리이다.”(창 41:36)라는 임박한 기근에 대한 주님의 경고에 순종한 것을 주목 합시다. 요셉은 일곱 해 풍년 동안 일곱 해 흥년에 대비하여 “바다의 모래같이”(창 41:49)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이야기가 발전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그에게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는 것을 지켜 봅시다. 요셉은 그들을 구원하는 대리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가족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혔을 때의 심정을 같이 느껴 봅시다.

끝으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와 혈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냉은 요셉의 수련 기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교회에 속한 여자로서 믿음과 순종심에 있어서 또한 주님께서 택한지도 자들을 통해 주시는 지시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요셉처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인 불안과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인 압박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상호부조회가 복지 문제에 더욱 깊이 참여하여 회원들이 복지 원리를 더 온전히 수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미 이 조직에서는 더욱 용의 주도하고 효율적으로 복지 문제를 다룰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로 1979년 4월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교회 관리하에 각 계층의 신권 평의회 설립을 발표했을 때, 이러한 주요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신권 평의회에서 상호부조회의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관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이 지시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 사이에 좀더 상호 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봄에는, 상호부조회가 그 책임을 수행하며 복지 프로그램에 더욱 효과적으로 공헌하기 위한 두번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테이크와 와드 상호부조회 임원회를 온전히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각 임원들은 와드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지시 아래 특별한 분야별로 일을 담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장단이 계획을 수립하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도우며 담당한 부분을 수행합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 회장의 지시 아래 움직이는 임원은 복지에 관한 모든 면을 이해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장단을 도와야 합니다.

1. 복지 사업 자료 해석. 즉 연구하고 편집하여 복지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평가합니다.
2. 자원 조사, 즉 교회와 지역 사회를 파악합니다.

3. 이해를 증가시킵. 즉 복지 사업에 관한 상호부조회의 역할을 토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장단과 모임을 가집니다.

4. 목표 설정을 지원함. 즉 상호부조회 회장과 함께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5. 승인된 계획을 수행하며 지시가 있을 때는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 임원은 승인된 복지 계획을 수행하게 할 때 자신의 일을 다른 임원들과 연관시킵니다. 임원은 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장

과 그 보좌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그들의 책임을 떠맡거나 복지 사업 위원회에서 그들을 대신하거나 인비 사항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회장단은 신권 지도자의 지시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책임이 와드나, 스테이크의 복지 사업에 대한 상호부조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창고 자원 제도를 철저히 알고 그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 사항을 알아서 감독의 출고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감독이 서명하기 전에 모든 감독의 출고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두 서명으로 생산물의 종류와 양이 정확 하며, 교회 자원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히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지도자로서 이제 우리 일에 있어서 복지 분야의 활동이 증가되는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즉시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목표와 걸잡이로서 이것을 제시합니다. 개인과 가족이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겸소한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 널리 알려 모든 회원들이 완전히 실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자들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결약하도록 권고합니다.

1. 가능하면 돈 대신에 기술을 교환하십시오. 이 소채원에서 생산해서 남는 채소를 다른 소채원에서 낸 과일과 교환하십시오. 책이나 악기나 소년단 유니폼 등을 사는 대신에 교환하십시오.

2. 좀 더 유식한 정원사가 되십시오. 즉, 자기 밭에서 수확한 질이 좋은 생산품에서 종자를 개량하십시오.

3. 집을 효율적인 작업장 및 저장소로 개

조하고 자신이 마련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여 시간과 돈을 절약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활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자원을 보다 더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첫째 단계는, 효과적이며 편리한 예산안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에게 더없이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산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 외에도, 처음엔 얼마 안 되더라도 저축의 형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불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책에는 경제적인 성공의 공식을 알려고 그 부자와 교섭했던 어떤 가난한 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빌로니아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대답을 했습니다. 즉, “돈없이 사는 것보다 훌륭한 지갑에 돈을 채우는 것이 더 쉽다.



브루스 알 애讼기 장로와 스페서 더블류 김볼 대판장

“……당신의 보화가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라. 그것을 당신의 노예로 만들어라.

“당신이 먹고 입는 것에 대해 지불하라.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지불하라.”  
(조오지 에스 클라손,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뉴욕 : 호오손 서적, 1955년, 31페이지)

가정에서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합시다. 보다 나은 식단 계획자, 보다 알뜰한 가정 주부, 보다 훌륭한 실내 장식가가 됩시다. 바느질하는 법과 웃만드는 기술을 배워 우리 의복이 맞춤복처럼 보이게 하며, 잘 손질하도록 합시다. 부엌을 창조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그곳으로부터 집안 일 중에서 가장 즐거운 것들이 흘러 나오게 합시다.

나는 이미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가족은 단 한 끼라도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님의 탁월한 요리솜씨와 음식이 차려지는 초대용 테이블 때문에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식사 시간에 자녀들과 유익하고 활기찬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절약하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어머니는 특히 부엌에서 다음과 같이 하는 어머니를 일컬습니다.

요리를 할 때는 당장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다른 끼니를 함께 생각하여 다양으로 요리합시다. 음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뼈와 수우프 용 고기를 이용하여 말린 완두콩 수우프, 양파 수우프, 미니스트로우너, 콩소에 등과 같은 영양이 많은 수우프를 끓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맛있는 양념이나 장식과 함께 고기를 주식으로 내놓습니다.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음식이 되도록 다채롭고 신선한 야채가 침가됩니다. 때로는 통닭을 준비하여 맛있는 통닭찜이나 타고기 샐러드, 타고기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주부는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목과 등과 기타 살이 적은

부분도 다음날 국을 끓일 때 향기로운 육수를 제공할 재료로 사용합니다. 가정의 정원에서 나는 아름다운 과일과 야채와 양념용 식물로써 음식이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교성 59:18)게 하며, 맛과 냄새가 좋게 하며, “육체를 강건케 하며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교성 59:19) 주게 합니다.

나는 이러한 주부에게서 절약하는 생활을 풍요한 생활 방식으로 만드는 행복하고 창조적인 정신을 느낍니다.

그들은 생활이란 것은 매일매일의 자그마한 행위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 예산의 절약은 단지 몇 달러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센트씩 이루어집니다. 의복 예산은 한 펌 한 펌, 한 솔기 한 솔기 수선함으로써 줄어듭니다. 집은 하나하나의 뜻에 의해 잘 손질이 됩니다. 법령이나 강력한 규칙에 의하여 겸소한 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겸소한 가정은 나날이 행해지는 자그마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위대한 비

전을 갖게 되면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신을 훈련하여 그것을 실현시킵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속한 여성으로서 가정에서 행복하고 절약하는 생활 방식을 창조합시다. 도전과 혁신과 감사의 정신으로 이 목표에 접근합시다.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고 높이며, 인색하거나 옹졸하지 않으면서도 겸소해지는 데 있어서 창의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선물 안에 많은 아이디어들을 전시해 두고 여러분이 오셔서 보시도록 초청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역 평의회나 복합 지역 평의회 모임에 참석할 때 또한 이 중요한 복지 사업에서 봉사하게 될 때 복지 사업 원리에 대한 훌륭한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옛날에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생명을 보존하고……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창 45:7)라고 선언했듯이 선택된 신권 지도자의 인도하에 우리 모두 함께 일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





더글러스 더블류 디핸 포트랜드 오레곤 동 스테이크 부장

##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영적인 경험 : 포트랜드 오레곤 동 스테이크의 복지 사업

때로는 교회의 복지 생산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주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농장에서 걸고 무더운 날 무엇을 속아 내거나, 김을 매거나 뽑는 일로 하루를 보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통조림 공장에서 저녁 내내 일한 후, 다음날 아침 7시에는 자기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정이 가까워서야 집에 돌아간 일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한 중에도 속으로는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부분이 영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리와 성약 29편 34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분은 “어느 때에도 결코 나는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꼭 3년 전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 위대한 원리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포트랜드 오레곤 동 스테이크에서는 6년 이상 낙농장을 경영해 왔습니다. 그것은 콜롬비아 강 내부의 산에 위치해 있으며, 교회 단일 스테이크 사업으로는 가장 큰 것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의 맨주먹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

성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는 해마다 빚을 지게 되었지만, 1977년은 우리에게 전환의 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사료를 만들 약 9만 평에 심어진 옥수수 수확에 달려 있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9월 중에는 거의 매일 비가 왔으며, 우리의 수확 예정 날짜인 10월 1일까지 비가 내려 농작물이 못쓰게 될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섭은 지하 수면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땅은 다량의 물로 흡뻑 젖게 되면 진흙이 많이 생겨 중장비는 진흙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그 땅이 물에 잠기게 되면, 약 한 달간 날씨가 건조해야 차량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 6월까지 그 옥수수 밭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농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내 차에는 고무 장화 한 켤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10월 1일에 농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 장화를 꺼내 신고 옥수수 밭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즉시 도로까지도 진흙 투성이로 변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왜 50센티미터나 되는 장화 꼬대기까지 진흙이 올라

오는 곳을 계속해서 걸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구름이 끼었으며, 도처에 드러난 진흙밭에 빛방울이 뛰기고 있었읍니다. 며칠 전에 농장 인부들이 옥수수 수확 기계를 들판으로 몰고 들어 갔었는데 긴 옥수수 밭고랑 어디쯤에서 차축까지 진흙 속에 빠져 있다고 일려 주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밭고랑마다 3-4미터 높이로 자라 있는 옥수수 자체는 훌륭한 작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좀체로 우울해지지 않지만 그날은 정말로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며, 그 훌륭한 농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옥수수 수확 기계가 있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밭고랑을 내려다보니 그 기계는 진흙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깊임인지 나는 옥수수 수확 기계가 있는 데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고 진흙과 물을 뒤기면서 밭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가 오직 마음속으로 내게 들렸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통해 킴볼 대관장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 18:14)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그 말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관장님, 이 경우는 주님에게도 너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수수 수확 기계에 가까이 가자 그 위에 올라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올라가니 내 머리가 9만 평의 그 크고 훌륭한 옥수수 위로 60센티미터 가량 쏟아올랐습니다. 실의에 찬 눈으로 둘러보고 있을 때, 그 목소리가 다시 내게 들려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엄격한 어조였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곧 자신의 침울한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려다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나는 미쳐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내어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간구를 끝낼 때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으로 그 농작물과 그 추수를 주님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나는 옥수수 수확 기계에서 내려서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나는 방금 내가 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나가는 동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며, 그렇게 해야 할 정당한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주님의 의로운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의 영적인 성질로 인해서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일요일에 우리 스테이크내의 어떤 와드 성찬식 모임에서 단상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10분을 남겨 놓고 감독이 다가와서는 “디핸 부장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눌 영적인 경험을 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이고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했으며, 회중이 모두 나와 함께 믿음으로 결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내에는 굉장한 간증을 가진 성도들이 있읍니다만, 나의 경험은 다른 와드로 굽히 퍼져 나갔습니다. 나는 몇 주 후에 우리 회원들이 비회원 친구들에게 까지 소풍 계획과 야외 활동 계획을 세우자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레곤주에서는 10월 내내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밭에서의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거의 30일 만에 처음으로 햇빛이 났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햇빛이 났습니다. 곧 기온이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음 3주간 날마다 일기 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했지만 하루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 2주 후에(사업상) 북쪽으로 약 320킬로미터 떨어진 시애틀로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 종일 대단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포트랜드로 돌아오는 도중에도 우리 농장을 감싸고 있는 콜롬비아 강에 이를 때까지는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그곳에 이르니 기적같이 구름이 걷히고 비가 멎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 강에서 비가 그치는 것을 보여 주는 기상도를 신문에서 오려 내서 믿음을 지켜 주도록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냉장고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들판에서 최초의 경험을 한 3주 후에 다시 차를 타고 농장으로 가 보았습니다. 장화를 신고 옥수수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부드러웠으며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으며, 우리의 훌륭한 농장 인부들은 벌써 다음 월요일에 추수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온 한 친구가 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물론들이 소비스 섬에 훌륭한 낙농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신있게 대답하자, 그는 “거기에 무슨 화제 거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있다고 말했지만 그가 결코 <진정한> 이야기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월요일에 추수를 시작했을 때 사진기자들이 몇 시간 동안 농장에 와 있게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훌륭하게 교회를 선전한 셈입니다.

우리는 많은 회원들의 충실한 도움을 받아 다음 5일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다음 토요일까지 수확한 싱싱한 옥수수들을 모두 안전하게 사일로에 넣고 그 위에 플라스틱으로 덮어 일을 끝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 겨울 동안에 필요한 사료를 얻은 것입니다. 농작물을 덮은 후, 한 시간도 안되어

내 기억으로는 가장 맹렬하고 오래 지속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빙금 옥수수를 거두어들인 들판은 물이 넘쳤고, 바로 그날부터 다음해 6월까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비 속에 서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해가 성취될 때까지 보류해 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기꺼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 일과 그 외에 내 인생의 다른 경험에서 얻은 영적인 기억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열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 회원들에게 세상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매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부분과 그 이상을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음부터 그 목적을 모르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대부분이 두번째 단계에서 옵니다. 첫번째 단계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결의로 첫번째 단계를 넘어설 때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확고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 감독—복지 사업의 중심 인물

“복지 사업에 관한 감독의 성스러운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책임은 궁핍한 자들을 축복하도록 하늘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오래 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감독이 지녀야 할 자격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이와 같이 덧붙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며” 그는 또 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부당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참으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딤전 3:1-3, 7, 흠정역)

나는 30년 전에 새로운 감독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 구절을 읽고 영혼이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겨우 22세의 젊은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와드는 1,050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큰 와드였으며, 그들 가운데 무려 87명이 미망인이었습니다. 전 교회를 통하여 이 와드만큼 복지 사업이 철저하게 필요했던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와드에 속한 지역은 대부분 빈민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미망인과 재정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아파트의 지하층에 살거나, 윗층에 산다 하더라도 골방에서 살았으며, 이름도 없는 거리의 뒷골목에 위치한 낡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의 목자였고 그들은 나의 양떼였습니다. 나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에스겔 34:2-3 참조)

나를 가르쳤던 교사들은 하늘이 보낸 분들이었습니다. 몇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우리 스테이크의 스테이크부장을 지내셨습니다.

리 형제는 내가 감독으로 부름받은 그 해에 열린 스테이크 대회의 토요일 저녁 신권역원회에서 회중을 들려보시더니 연단에서 내려와 칠판을 가져 오게 하시고는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의 의무를 훌륭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감독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쓰시고 그 아래에 5개의 원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 원에 “와드의 아버지” “아론 신권 회장”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라고 적으시고 복지 사업에 있어서 감독

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찾아 돌보되 사랑과 친절과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톰니 형제는 우리 스테이크와 지역을 자주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분은 우리에게 사르밧에 있었던 엘리야와 과부에 관한 영감적인 기사를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열왕기상 17:8-16 참조) 그분은 그 과부의 환경과 우리 지역에 있는 과부의 환경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는 지침서에서 복지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형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톰니 형제님, 형제님은 그 지침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듯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자, 톰니 형제님은 눈을 꿈뻑이시고는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책을 썼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도 역시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 시절에 그의 원고가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되어 나올 수 있게 정리하는 일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자주 그분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특별하고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려운 와드를 관리하는 새로운 감독이 되었음을 알고는 회원 개개인을 알고 그들의 사정을 알아,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아 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세주의 모범에 관한 기사를 읽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판에 손을 대시니……예

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성경을 넘으실 때 클라크 부대관장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톰, 과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오.”

오늘날 우리의 감독들에게도 이와 같은 가르침과 권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감독들이 새로 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이 프로그램 또는 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종종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가장 하찮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로한 자들을 방문하고, 병든 자를 축복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는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하늘 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으며, 우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인도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복지 사업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에는 여러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감독은 보좌와 신권 정원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예방. 식품 비축을 포함해서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가장이 안정된 직장을 갖도록 계속해서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보수가 적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더 훌륭한 직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책임에는 봉급 생활자에게 보다 숙련된 기술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직장을 구하고 쉽게 해고되지 않게 격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둘째, 생산. 와드 및 스테이크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밭을 잘고, 수확을 거두고,

집을 짓고, 창고를 채워 두어야 할 필요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스테이크 복지 농장에서 사탕무우 꾹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욱 감사히 여기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탕무우의 꾹지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농장은 비옥한 농토가 아니었으며, 오늘날 솔트레이크시티의 산업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스러운 봉사를 했을 때 토양이 성화되고, 풍성한 수확의 축복을 받고, 신앙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세째, 가공. 수확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 복숭아를 통조림하고 달걀을 훠저으며, 채소를 씻는 와드 회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흐르고, 웃은 흙으로 더럽혀지고, 몸은 피로에 젖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새로운 힘을 얻고 하늘을 향해 치솟을 것입니다.

네째, 비축. 주님은 계시를 통하여 자주 그분의 창고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퀘고했습니다. “이 창고는 교회 회원의 현물로 유지되나니, 과부와 고아는 이곳에서 지급을 받으며 가난한 자도 그려 하리라.”(교성 83 : 6) 나는 이 창고가 바로 감독의 창고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뻤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자 감독의 추천을 받아 보내집니다. 그러한 건물 내부에는 사랑과 존경과 참된 경건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창고를 방문할 때마다 영감을 받습니다. 첨탑이나 용단이 깔린 마루나 채색 유리는 없지만 거기에서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분배. 이것은 감독의 판단력이 가장 큰 시험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판장은 복지 사업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감독은 ‘속세에 관

한 일을 모두 집행하며’……그의 부름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며, ‘가난한 자를 찾아 내며……저들의 부족양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교성 107 : 68 ; 42 : 34 ; 84 : 112 참조)

“이와 같이 감독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 이것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와 책임은 그 외의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으며, 이 일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와 역할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명은 유일하게 감독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교회 기금과 와드의 도움으로 와드 회원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감독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몸소 부파하신 높고 엄숙한 책임입니다. 감독은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남에게 전가하여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어떠한 도움을 주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미발행 기사, 교회 역사파, 솔트레이크시티, 1941년 7월 9일, 3-4페이지)

모든 감독에게는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명상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성스러운 숲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은 낡은 와드 예배당이었습니다. 나는 어두운 밤 늦은 시간에, 내가 축복받고, 확인을 받고, 성임되고, 가르치고, 결국 감리하도록 부름받았던 이 건물이 서 있는 곳으로 나아갔던 때를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은 앞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으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방해할 침입자도 없었습니다. 나는 설교단에 손을 얹고 무릎을 끊고 주님께 나의 생각과 관심과 문제를 고했습니다.

한번은 한발이 심했는데 창고의 물품은 질도 좋지 못했고, 더욱이 양도 적었습니다. 많은 생산품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신선

한 파일이 그려졌습니다. 그날 밤 나의 기도는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미망인들은 이 지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분들이며, 그들의 필요 사항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며,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은 이것밖에 없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파일과 야채 생산업자인 와드 회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독님 저는 궁핍한 자들을 돋기 위해 한 트럭 분의 굴과 포도와 바나나를 감독의 창고로 보내고 싶습니다. 감독님이 이 물건을 운반하는 데 도와 주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하지요! 창고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감독은 전화를 받고 모든 물품을 분배하였습니다. 복지 사업 개척자이며, 창고 관리인인 제시 엘 드루리 감독은 전에 그와 같은 광경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그 일을 보고 한 마디로 “놀랐다!”고 감탄했습니다.

그 외의 경험은 그렇게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며,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경험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골목의 끝에 위치한 판자집의 늙은 부부가 생각납니다. 그 집은 수년 동안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깔끔하고 말쑥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이 작은 집의 외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영감을 받아 장로 정원회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복지 지침서에 따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 그 집에 페인트칠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네 명의 사위와 딸이 그 일을 떠맡아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페인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점에서 저급했습니다. 그 결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은 늙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집은 깔끔하게 칠해졌고 가족은 단합되었으며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복지 프로그램의 축복은 감독만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1951년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나의 방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타주 옥든에서 온 한 독일인 형제가 자신을 소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님이 몬슨 감독입니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형과 형수와 그 가족이 독일에서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와드 구역내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내가 세를 얻어 둔 아파트를 구경하시겠습니까? 그는 아파트로 가는 길에 수년간 형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 2차 대전의 와중에서도 그의 형은 교회에 충실했고,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지부장으로 봉사했으나, 그 후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냉냉하고 쓸쓸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벽지는 얼룩져 있었고, 찬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천정에 매달려 있는 40와트의 희미한 전구가 리노륨 바닥의 가운데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비쳤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가족에게 이 얼마나 비참한 환영인가!”

나의 이러한 생각은 그 형제의 다음과 같은 말로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들이 독일에서 살던 집보다 월씬 좋습니다. 그는 그 가족이 3주 후, 즉 성탄절 이틀 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전갈과 함께 나에게 열쇠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와드 복지 위원회에서 나의 보좌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 아파트에 대해서 상세히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대체 사 그룹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그 아파트의 조명이 너무 흐리며, 부엌 살림도 다른 것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기 공사 청부업자입니다. 감독님은 이 와드의 대체사들에게 그 아파트의 전선을 잘 아 끼우는 일을 혀락하시겠습니까? 저는 또한 납품업자를 초빙하여 새로운 스토브와 라지에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혀락하시겠습니까?” 나는 기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칠십인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아시다시피 저는 카페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납품업자에게 카페트를 제공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칠십인은 쉽게 그 떨어진 리노룸을 제거하고 새것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페인트 청부업자인 장로 정원회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페인트를 대겠습니다. 장로들이 페인트칠을 하고 벽 치로 바를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찬장이 비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채우겠습니다.”

다음 3주간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와드 회원들이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약속된 시간에 독일에서 온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옥든에서 온 그 형제가 나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갑격에 북받쳐 형과 형수와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아파트로 가실까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는 이렇게 되풀이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독일에서 살면 집보다 월씬 낫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는 상상도 못했으며 더욱이 이 아파트의 수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좋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 문자 그대로 새로운 생활이 전개되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문과 창문에서 풍기는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우리를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40와트의 전등도 없어졌고, 낡아빠진 리노룸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포근하고 아름다운 카페트를 밟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스토브와 냉장고를 보았습니다. 찬장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속에는 선반마다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특별히 이 일을 맡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성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싸인 밤”(찬송가 9장)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독일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가장 되시는 분이 나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감격하여 나의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나의 형제, 나의 형제, 나의 형제”라고 계속해서 말했읍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밤공기를 마셨읍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읍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읍니다. 그때 한 젊은 자매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감독님, 제 마음속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훌륭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읍니까?”

나는 주님의 다음 말씀으로 대답했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갑자기 나의 마음속에 찬송가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의 가사가 떠올랐읍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들  
그 양을 지킬 때  
주님의 사자 나타나  
큰 소식 전하니.  
이 날에 나신 아기

만민의 구주라.

그 아기 방금

다윗성 구유에 누웠네.

(찬송가 124장)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마음을 주셔서 삶의 동산에는 겨울에도 6월의 장미를 풋퇴우게 하신다.”(시 안케탈 스튜더트 케네디, “12월의 장미” 미국의 애송시, 하젤, 펠레맨 가든 시티, 뉴욕 가든시티 출판사, 1936년, 363페이지) 내 마음의 동산에는 복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풋퇴우게 된 그러한 장미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는 없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스러운 복지 책임을 지닌 우리의 감독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책임은 오늘날 궁핍한 자들을 축복하도록 하는데서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





매리온 지 룰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 복지 사업—구세주의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원리에 따른 생활은 기독교인다운 생활의 최종적인 단계이며 종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위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의 인도와 지지 가운데 이 모임을 마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복지 사업은 구세주의 프로그램이라 는 주제로 말씀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 : 28-30)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영적인 새로움과 육적인 위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 : 35)

예수께서는 요한의 두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

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 : 4-5)

주님의 지상에서의 성역을 잘 아는 사람들 은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의 다음 말씀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지상에 오실 때 두 가지 큰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인류를 타락에서 속죄하는 구세주적 사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차기를 따르는 자에게 다음의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병든 자와 고통 중에 헤매는 자들을 돋을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대회 보고, 1937년 4월, 22페이지)

나는 영적인 면에서나 세상적인 면에서나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하라고 권고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복지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 일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복지 사업은 그의 사업이며 이 원리는 그분의 원리이며, 이 정신은 바로 그분의 정신이며, 그들을 돌보도록 우리를 보내신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 19:19 참조)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할진대 항상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며, 언제라도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

“너희가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며, 남에게 흡족하도록 내어 줄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굽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친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

“또한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너희가 도울 것이요, 궁핍한 자와 더불어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눌 것이요, 구걸하는 자를 버려 두어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모사이야서 4:12-16)

베냐민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은 너희가 날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자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모사이야서 4:26)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 사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의문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가르침을 믿는다면 또한 구세주와 그의 예언자를 따르고 있다고 공언하며, 성약에 충실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을 지니기를 원한다면,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 이요”(요 14:12)

지도자와 회원으로서 이 사업, 즉 그분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제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지도자들까지도 시간과 재능을 바쳐 직접 혼신하기보다는 금전을 바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일함으로써 오는 영적인 힘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의사나 상인이나 변호사나 이발사나 교사나 기술자가 모두 어깨를 맞대고 다 같이 밭이랑을 일구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며, 나뭇 가지를 정리하며, 수확을 하는 것은 전전하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함께 일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단결력과 협동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실과 근면에 그 근원을 둔 물질적 영적 축복은 결코 개인의 노력이나 야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조셉 필팅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79페이지)

둘째,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일하기 위해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독으로부터 그들의 참여나 승인없이 스테이크부장단이 취한 조치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반면에 모든 지도자는 교리와 성약 38편 27절에 나와 있는 정신에 따라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27)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금년 마지막 분기 동안에 상당히 증가된 연례 생산 예산을 할당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 단위의 평의회 조직에서 만장일치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할당액에 기쁨을 느끼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연속적인 종무 조직 단위에서 이 평의회 조직을 통하여 교회를 운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항상 함께 한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함께 상의하는 신권 그룹은 함께 성공을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째, 우리가 지도자로서 자신이 인도하는 자들로부터 도움을 얻으려면 그들과 함께 일을 나누어야 하며, 우리가 지명받은 청지기의 직분이 어떻게 행해졌는가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산 사업에 관해 와드나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단과 스테이크부장단은 각각 자신의 지도자에게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진척 사항과 문제점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돌려주고 보고하는 것은 충실히 현명한 청지기의 최종적인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네째, 이 일에 여러분이 혼신한다 해서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920년, 나의 선교 사업을 성별하시면서 멜빈 제이 밸러드 장로가 하신 말씀의 진실함에 늘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조그마한 것을 바치고 그 보답으로 큰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봄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35 참조) 교회 복지 사업을 통해서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영원한 영혼의 구원과 성결케 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열고니라.” (교성 52:40)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직분을 이런 복음 지식에 비추어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오랫동안 밀어 온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원리에 따른 생활은 기독교인다운 생활의 최종적인 단계이며 종석이 될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울레크에 따르면, 우리의 기도의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둘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구세주 자신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구원은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에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기록에 따르면,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는 모든 백성을 “독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마 25:32) 분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4-36)

우리 각자가 대회의 이 모임에서 복지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이며, 그분의 계획이며, 이 원리가 그분의 원리이며 이 사업을 성취하면 이 세상에서 화평을 주고 다음 세상에서 불멸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큰 확신과 깊은 이해를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김볼 대관장께서 도덕에 관해 강조하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중요 한 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책임이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청소년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깨끗하고 튼튼하고 크게 자라는 것을 볼 때는 기쁘지만, 불행과 후회와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는 슬픔을 금치 못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기선끼리 충돌하거나 또는 빙산과 충돌하면 수많은 재난이 닥쳐오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장사되고 맙니다. 나는 젊은이 여러분이 전전하면, 근본적으로는 홀로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역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위험물과 암초와 빙산과 다른 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내가 탄 제트 여객기가 고도를 높이면서 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때 확성기를 통해서 스튜어디스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 왔습니다. “이제 곧 폭풍 지대를 통과하겠습니다. 위험이 올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진동이 있겠으니 안전 벨트를 꼭 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청소년과 그들의 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위험한 곳과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벨트를 꼭 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난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수천 명의 청소년을 접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과오를 변명하며,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치와 그의 교회에 관해 명백히 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가 하나님과 영의 자녀이며, 그분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곧 지상의 세력과는 동떨어진 순결성, 거룩함, 진실성, 영향력, 힘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영원한 존재임을 알게 되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서 3:22 참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도처에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설과 외설 문학,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야비한 언사 등 저주받을 이단의 방법을 사용하여 도덕 표준을 저하시키고, 이렇게 해서 육욕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극악 무도한 방법을 사용하여 약한 자를 기만하고 모든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집회나 클럽 모임이나 파티나 사교 모임에 참석해서 야비하고 음란하고, 암시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 : 8)

그리고 구세주께서는 루시퍼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시퍼는 그의 논리를 사용하여 혼돈시키고, 변명을 사용하여 멀망시키려 합니다. 그는 조금씩 의미를 변경시키며, 한번에 조금씩 문을 열고, 가장 밝은 곳으로부터 회색의 그늘을 통하여 차차 어두운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청소년 여러분이 오류와 고통과 번민과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몇 가지 단어와 행동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 넥킹, 페팅, 사통

나는 하나의 실화로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균형이 잘 잡혔고 다윗 왕처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삼상 16 : 12)왔습니다.

그 옆에는 아름답고 몸매가 날씬하고 얼굴이 준수한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내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가만히 손을 잡으며 의미있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자 친구를 소개할 때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약간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킴볼 형제님,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민하던 끝에 형제님을 찾아뵙고 조언을 받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무도회 레이트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의 비극이었으며, 고통의 시초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날 밤 그녀가 아랫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녀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춤을 추었고, 그후 우리가 오랫동안 묵묵히 자동차 안에 앉아 있을 때, 나의 생각은 제어하기 어려웠고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키쓰를 자주했는데 점차 페팅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저녁을 함께 지내고 헤어졌으나, 다음날 저녁은 또 전날 밤의 계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에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고, 드디어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해서 서로 의논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을 더 계속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어쩌면 영원히 늦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신이 행한 일에서 깨어났습니다.”

부도덕은 잔음이나 성적 도착에 빠짐으로

써 비로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에 관한 생각이나 토론, 열정적인 키쓰, 애무 등과 같은 부분별한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그마하고 무분별한 행위가 튼튼한 몸과 강한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은 젊은이의 아름다운 정신을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한 자는 약자가 되고, 주인은 노예가 되며, 영적인 성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의 의롭지 못한 행위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나무는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청소년의 생활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킴볼 형제님,”하고 그가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그의 교회는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범범한 자들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눅 12:59)”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사통(결혼하지 아니한 자가 육체적 관계를 갖는 행위)은 심각한 죄입니다. 용서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초 이래로 이 지상에는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대부분은 남에게 피해

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발전을 제한하고 성장을 막으며, 우리를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영향력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의 사도와 예언자들은 그들이 미워하는 수많은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간음, 부정, 음탕, 불의, 무절제, 추잡한 대화, 불순결, 무절제한 애정, 사통 등 성적인 죄였습니다. 거기에는 혼외 성교, 애무, 성도착, 수음, 성에 관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모든 숨겨진 죄와 은밀한 죄, 스스로 못하고 순결치 못한 생각과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근친 상간입니다. 사전에는 이 말을 “법으로 써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가까운 친척끼리 간음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영성은 그와 같은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심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대판장단과 실이사도 정원회는 근친 상간을 범한 자는 파문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근친 상간으로 파문당한 자는 대판장단의 허가서 없이는 재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금지된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의 양심은 자신의 의지나 죄의 반복에 의해 마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도대체 그러한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불경한 행위는 어떻게 불리든지, 어떤 방법으로 행하고 표현하든지, 모두 주님과 그의 교회에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가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는 체하는 자들의 거짓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죄인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들이 옳지 않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것과 교회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것

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표준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교상 한잔쯤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금주하는, 보다 높은 차원에 표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전 성교를 허용하지만 주님과 그의 교회는 결혼 이외의 어떠한 성관계도 모두 명백히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저속한 생각과 제어되지 못한 열정과 욕망의 거룩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롬 1 : 24)

많은 사람들이 구애는 결혼의 전주곡이며, 보다 가까운 교제를 권고해 주는 것이므로 정교는 합당한 것이며, 구애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삐를 풀고 느슨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애정의 표시 대신에 지나친 접촉과 열정적인 키쓰로써 “넥킹”이라고 부르는 행동에 빠지게 됩니다. 넥킹은 이 성스럽지 못한 가족의 어린이와 같습니다. 이 어린이의 큰 언니는 “애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교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은 확실히 구세주가 정죄하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 : 27-28)

누가 애무하는 남자와 여자가 음욕을 품지 않게 되고 열정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대의 계시에서 십계명을 반복하시는 가운데 꾸짖으신 가장 가증한 행위가 아닙니까? “도적질하

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성 59 : 6)

애무가 간음과 비슷한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 여기에 속합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증한 죄는 단지 간음 또는 사통의 최종적인 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의 과정이라고 인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경전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양심을 갖고 애무의 질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이것은 심한 죄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한 바를 여러 번 되풀이 해야 합니다. 사통과 그의 형과 동생과 자매들은 모두 사악한 것이며, 아담의 시대, 모세의 시대, 바울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비난하신 죄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성도착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래의 말씀에서 더 참으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나 주는 텔끝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교성 1 : 31)

경전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누가 부도덕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들을 사랑의 행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겸은 것이 희게 보입니까? 악이 선한 것입니까? 정결한 것이 추악한 것입니까? 우리는 도덕에 대한 교회의 입장 이해시키기 위해서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캐케묵고, 퇴색되고, 유행에 뒤떨어지고, 낡아 떨어진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며 그분의 교리와 성약은 변경될 수 없으며, 태양이 식어지고 별이 더 이상 빛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와 주님의 교회에서는 순결의 법이 언제나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낡은 가치관은 교회에서 높이 들리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런 가치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그 가치관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법칙이 될 것입니다.

### 데이트 표준

어려움과 유혹을 피하기 위해 다시 다음과 같은 표준을 제언합니다. 적어도 16세 이전에는 어떠한 데이트도, 또는 사교 모임에서 짹을 짓는 행위도 하면 안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의 선택에 있어서는 판단력과 신중성이 요구됩니다. 젊은이들은 수년간 밀접한 교제를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자의 경우 19세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특히 한 사람과 계속해서 데이트하는 것은 십대 초반에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계획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으로부터 가치있고 풍부한 경험을 뺏앗아 가며, 우정에 제한을 두며, 현세와 영원을 위한 배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치있는 넓은 교제의 기회를 축소시키게 됩니다.

무도회에 가거나, 여행을 하거나, 교제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또는 한 사람과 꾸준히 데이트할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한 사람과 꾸준히 데이트하는 것은 영원한 결혼을 위해서 젊은이를 성스러운 신전으로 데리고 가는 로맨스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옳은 일이라도 그릇된, 시기에 그릇된 장소에서, 그릇된 환경에서 행해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온의 젊은이들은 분명하고 명백한 나팔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혼란을 가져 오지 않도록 분명하고 정확한 목조를 연주하는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열렬히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과 그의 교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위 행위

“표준”이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무분별하게 혼히 행해지는 수음 행위는 주

님이나 그의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일성도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약점에 매어 있는 사람은 선교 사업을 나가거나 성신권을 받거나 신전에 가서 축복을 받기에 앞서 이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위 행위는 노출증이나 동성애의 중죄를 범하게 하는 판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시온의 젊은이들이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겹은 것을 회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해줄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룩하지 못한 용어와 비난할 만한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동성애

불경한 범법인 동성애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좀더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묵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은 아무나 사통이나 간음에 대한 충동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간음과 기타 유사한 성적인 타락을 정죄하시는 것과 똑같이 단호하게 그런 행위를 정죄하고 금하십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탐닉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파문시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과는 달리 이 죄는 간음과 마찬가지로 극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데, 이 때의 회개는 이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각과 행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의 정부와 교회 및 상당수의 타락한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범법 행위로부터 개인적인 특권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니는 사실로 인하여 이 행위의 본질이나 심각한 상태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방곡의 선한 사람들과 현명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행위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

간은 더럽혀질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 행위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야고보서 1:8, 12-16)

이 가증스런 동성애는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되는 죄입니다. 이에 탐닉한 결과 많은 도시와 문명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인이 방황하던 시기에도 있었고, 회랑인들이 목인하였으며, 타락한 로마의 목욕탕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만, 교회에서 이 그릇된 행위의 부정하고 극악 무도한 본질에 관하여 마음속으로 의문을 갖는 젊은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이에 관하여 말씀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루시퍼는 인간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사탄의 종이 되게 할 논리와 합리적인 구실로 속이고 자극을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혀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디모데후서 4:3-4, 모세서 5:50-55 참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어.”라는 말로 자신의 도착적인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야.”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식의” 존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흠이 굉장히 깊어져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해 나가다 보면 큰 곤경을 겪지 않으면 그곳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능히 그곳에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유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죄인과 합당한 사람의 차이는 대체로 한 사람은 굴복했고, 한 사람은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그 결정과 성취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정신을 똑똑히 차리면 자신의 앞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책임에 대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이때까지 오늘날의 죄에 대하여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활한 유혹자의 습격에 대하여 젊은이들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첨보 부대와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로 속임수와 허위와 거짓 말로 시온의 모든 젊은이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물론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시련의 날에 지혜로우며 너희에게서 부정한 것 모두를 털어버리라. 욕망으로 인하여 구하지 말라. 혼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유혹에 빠지지 말며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물론서 9:28)

친애하는 젊은이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교회는 과오를 범한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고 똑똑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자연히 우리를 밀으로 누르기보다는, 세워 올려 주시어 우리가 영적인 사망을 겪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도와주려 하십니다.

회개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죄에 대한 애통. 우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려면 그 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게 되면, 자신에게서 죄의 결과를 없애 줄 절차를 따를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행실을 고치고 벌을 받고, 필요하다면 파문까지도 감수하게 됩니다.

2. 죄를 버림.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은 감옥에서 자기 죄를 버릴 수도 있으나, 참된 회개를 한다면 체포당하기 전에 죄를 버릴 것이며, 자발적으로 훔친 물건을 돌려줄 것입니다. 자원해서 자신의 불경한 행위를 그치는 성 범죄자는 용서받는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마는 “그러므로 어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지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엘마서 32 : 16)라고 말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죄짓기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반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회개에 관하여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 : 43)

3. 죄를 고백함.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범법

자들 중에는 몇 번만 주님께 기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죄를 숨기고 정당화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인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언 28 : 13)

특히 성적인 죄와 같이 심각한 범법은 주님과 감독에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범법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사람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에게서 용서를 받고, 둘째는 지도자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로부터 용서받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확신하게 되면, 즉시 이노스처럼 주님에게 가서 “간절히 구하여” 자기 죄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결코 간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단 몇 번의 기도로 하나님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범법자가 그분의 모든 필수 요건에 기꺼이 응하여는 마음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회개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범법자는 소속 와드의 감독을 통하여 교회의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도록 권능을 부여받은 제사나 장로는 없습니다. 주님은 지속적이고 질서 정연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스테이크내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독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부름과 성임의 반차에 의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판사”가 됩니다. 감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 들어 주며, 심각한 정도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의 등급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용서가 보장될 수 있는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요, 위대한 의사요, 심리학자며, 정신과 의사로서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충분히 회개한 사람에게는 처벌이 보류될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에 상당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죄를 용서할 권능은 없으

나, 진실로 함께 짐을 나누고 처벌을 보류하며 진장과 암박을 덜어 주고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대한 비밀을 지켜 줄 것입니다.

4. 죄에 대한 보상. 애통하는 가운데 겸손해진 사람이 무조건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에게 고백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가능한 한 그 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도적질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 물건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살인이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살인자가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온전히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조를 유린한 것은 다시 물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는 원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정신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유톤을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에스겔 33:15)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벗으로 갚을지니라”(출 22:1)

자기 죄가 사함받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원한과 비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아무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5. 아버지의 뜻을 행함. 나는 1978년 3월 달에 83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축하 카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4,700명이나 되는 젊은이가 친필로 쓰고 서명한 것을 책으로 류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의 서명이 들어 있었읍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 인

생에 대한 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스펜서 더블류 킹 볼 대관장님,

“저는 한 세상 사람으로서 대관장님과 주님에게 주님의 사업에 임하는 걸음의 폭을 넓히고 발걸음을 빨리 하며, 영혼을 크게 신장시키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온 생애 동안 충실히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저는 대관장님과 주님에게 설령 유혹이 닥쳐더라도 지혜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담배나 술, 커피나 홍차, 마약 등은 결코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주님과 주님의 풍요한 약속과 그의 보호하심과 풍요한 축복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음험한 유혹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생활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떤 성질의 부도덕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경전과 기타 훌륭한 책을 읽고 받았다는 데 있어서 결음의 폭을 넓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결음의 폭을 넓히고, 그들과 함께 일하여 의를 달성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저는 주님의 모든 계명을 알려고 노력하고, 철저하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명을 실천하려 노력하기로 서약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기록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는 모임을 가질 때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나, 또한 침실에서, 매일 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순결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깨끗함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약, 음주, 흡연, 천박한 의설물 등과 같이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밀려들어 오는 온갖 추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에 스스로 빠져 들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감주를 입으십시오. 개인 및 가족 기도와 가족 예배에 정성껏 참여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며 사십시오. 가족에 대한 모든 의무를 정성껏 이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지 못하고 불순한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 깨끗한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설정한 높고 의로운 표준을 훼손하고 비하시키는 교제를 피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한 항해를 계속하게 될 것이며, 화평과 기쁨에 둘러싸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대회 진행 사항을 논의하는 태너 부대관장, 킴벌 대관장, 룰리 부대관장

#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되는 대회 보고

이 도표는 부모와 교사와 진지하게 복음을 공부하는 교회 회원들을 위하여 1980년 10월 대회 말씀을 성인 및 청년 교과 과정과 연관시켜서 정리한 것이다.

##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 공과 총관리 역원

- 1 매리온 지 롬니(신권)
- 2 에즈라 태프트 벤슨, 제이 리차드 클라크
- 3 매리온 지 롬니(복지), 빅터 엘 브라운
- 4 스펠서 더블류 킴볼(신권), 매리온 지 롬니(복지)
- 5 브로스 알 맥콩키
- 6 마크 이 피터슨
- 8 마크 이 피터슨, 로버트 엘 십슨
- 10 조지 피리
- 12 엘 톰 페리
- 15 조지 피리
- 18 엠 러셀 빌라드
- 21 본 제이 페더스토운
- 23 데릭 에이 커스버트, 렉스 시 리브 일세
- 24 에이치 버크 피터슨
- 25 스펠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모임)
- 27 매리온 지 롬니(신권), 제임즈 이 파우스트
- 28 조지 피리, 로버트 이 웰즈
- 30 스펠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모임), 닐 에이 맥스웰
- 33 엘 리차즈, 렉스 디 피네가

## 1981년도 가정의 밤

### 공과 총관리 역원

- 1 스펠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 모임) 엘 톰 페리

- 2 보이드 케이 페커, 조셉 비 워스린
- 5 로버트 이 웰즈
- 8 매리온 지 롬니(신권)
- 11 로버트 엘 십슨
- 15 고든 비 힙클리, 본 제이 페더스토운
- 17 로버트 엘 백맨, 디 더블류 더핸
- 18 진 알 쿡
- 19 엠 러셀 빌라드
- 20 매리온 지 롬니(복지), 렉스 디 피네가
- 21 토마스 에스 몬슨, 제이 리차드 클라크
- 23 에즈라 태프트 벤슨, 빅터 엘 브라운
- 26 스펠서 더블류 킴볼(복지), 제이 리차드 클라크

## 1981—82년 복음 교리반

### 공과 총관리 역원

- 3 마크 이 피터슨
- 4 마크 이 피터슨
- 5 마크 이 피터슨
- 9 브로스 알 맥콩키, 조지 피리
- 10 매리온 지 롬니(신권)
- 11 스펠서 더블류 킴볼(복지), 로버트 엘 십슨
- 12 데릭 에이 커스버트, 디 더블류 더핸
- 14 로버트 엘 십슨
- 15 에즈라 태프트 벤슨, 바바라 비 스미스
- 16 고든 비 힙클리, 엘 톰 페리, 진 알 쿡

- 17 엔 엘든 태너, 제임즈 이 파우스트  
 19 제임즈 이 파우스트  
 20 본 제이 페더스토운  
 21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모임), 엘 톰 페리  
 22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모임)  
 23 본 제이 페더스토운, 에이치 비 피터슨  
 24 로버트 엘 심슨  
 25 매리온 지 롬니(일요일 오전 모임), 조셉 비 워스린  
 26 에이치 버크 피터슨  
 27 고든 비 힙클리, 로버트 이 웰즈  
 28 스펜서 더블류 킴볼(신권), 토마스 에스 몬슨, 빅터 엘 브라운  
 29 데이비드 비 헤이트  
 31 로버트 엘 백맨  
 33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모임)  
 34 제임즈 이 파우스트

- 35 제이 리차드 클라크  
 36 브루스 알 맥콩키  
 37 마빈 제이 애쉬튼,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38 마빈 제이 애쉬튼  
 42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모임), 본 제이 페더스토운  
 44 로버트 이 웰즈
- 주일학교 14반**
- 공과 충관리 역원
- 26 에이치 버크 피터슨  
 28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전 모임)  
 31 엘 러셀 벨라드  
 32 리그랜드 리차즈, 렉스 시 리브 일세  
 35 마빈 제이 애쉬튼  
 36 스펜서 더블류 킴볼(복지)  
 39 엘 톰 페리, 로버트 엘 심슨  
 40 렉스 디 피네가

### 1981—82년 상호부조회

공과	방문 교육 메시지	영적인 생활	가사	어머니 교육	사회 관계	문화의 정수	방문 교육 보조 자료
1	렉스 더 피네가						
2	보이드 케이 페커	매리온 지 롬니(신권)	에즈라 태프트 몬슨 제이 리차드 클라크 바바라 비 스미스		본 제이 페더스토운		
3	마빈 제이 애쉬튼	토마스 에스 몬슨 조지 피리 디 더블류 디핸			로버트 엘 백맨		
4	조셉 비 워스린		바바라 비 스미스				
5	토마스 에스 몬슨(상호부조회 본부 대회)	스펜서 더 블류 킴볼(상호부조회 본부 대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러셀 벨라드		

	엘 톰 페 리 로버트 엘 심슨	데릭 에이 커스버트 렉스 시 리브 일세	
6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이 토마 스 파이안스 디 더 블류 디해	닐 에이 맥스웰 엠 러셀 밸러드 데릭 에이 커스버트	닐 에이 맥스웰
7	보이드 케 이 패커 스웨서 더 블류 킴볼 (토요일 오전 모임)		
8		엘 톰 캐리 엘 톰 캐리	고든 비 헝클리
9	제임스 이 파우스트 일 아침 모임 본 제이 페더스토운	매리온 지 롭니(일요 일) 브라운 브라운 에프 풀저 (상호부조 회본부대 회)	렉스 시 리브
10	토마스 에 스 몬슨 조지 피 리	렉스 시 리브 일 세	에즈라 태 프트 벤슨
11	데릭 에이 커스버트 에 엘돈 태너	브루스 알 맥콩키 브라운	빅터 엘

### 주일학교 15반

- 공과 총관리 역원  
 2 브루스 알 맥콩키  
 5 마빈 제이 애쉬튼  
 8 렉스 디 피네가  
 14 보이드 케이 패커, 로버트 엘 백맨  
 15 스펠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전 모임)  
 18 매리온 지 롬니(복지)  
 24 테이비드 비 헤이트  
 27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30 로버트 이 웰즈

31 매리온 지 롬니(일요일 아침 모임),  
 본 제이 페더스토운

38 스펠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모임)

41 스펠서 더블류 킴볼(복지)  
 44 토마스 에스 몬슨

### 주일학교 16반

- 단위 공과 총관리 역원  
 1 3 마빈 제이 애쉬튼  
 4 보이드 케이 패커

- |    |   |  |                                  |                                    |
|----|---|--|----------------------------------|------------------------------------|
| 2  | 1 | 데이비드 비 헤이트                               | 9. “선교사가 되                       | 리그랜드 리차즈,                          |
| 3  | 3 |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br>오후 모임), 제이 리차드 클<br>라크 | 십시오”                             | 1980년 5월호, 33페<br>이지               |
| 3  | 2 | 로버트 엘 백맨                                 | 10. “졸업 시험에<br>합격할 수 있<br>겠습니까?” | 던 엘 라슨, 1980년<br>6월호, 4페이지         |
|    | 5 | 리그랜드 리차즈                                 | 11. “개인적인 계<br>시를 받는 방<br>법”     | 브루스 알 맥콩키<br>1980년 6월호, 46페<br>이지  |
|    | 6 | 로버트 이 웰즈                                 | 12. “주님의 등대”                     | 토마스 에스 몬슨,<br>1980년, 7월호 16페이<br>지 |
| 13 |   | 리그랜드 리차즈, 렉스 시<br>리브 일세                  | 13. “앞으로 갑시<br>다”                | 폴 에이치 먼, 1980년<br>8월호, 4페이지        |
| 14 |   | 에이치 버크 피터슨                               | 14. “언덕 위의 빛”                    | 빅터 엘 브라운 1980<br>년 9월호, 4페이지       |
| 15 |   | 엘 톰 페리                                   | 15. “수학의 법칙”                     | 엘 톰 페리, 1980년<br>10월호, 4페이지        |

### 주일학교 17반

#### 공과 총관리 역원

- 1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모임), 제이 리차드 클라크
- 3 보이드 케이 페커
- 4 렉스 디 피네가
- 8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아침 모임)
- 10 로버트 엘 심슨
- 12 브루스 알 맥콩키
- 13 고든 비 힙클리
- 16 스펜서 더블류 킴볼(복지)

### 16반 및 17반 보총 공과 주제

1. “결심” 렉스 디 피네가
2. “신앙의 권속” 제이 리차드 클라크
3. “청컨대 나의 본 제이 페더스토운  
죄를 용서하고”
4. “각종 물고기를 널 에이 맥스웰  
모는 그물”
5. “천사장 아담” 마크 이 피터슨
6. “신권에 따르는 매리온 지 롬니(신  
맹세와 성약)”
7. “회개” 매리온 지 롬니(일  
요일 아침 모임)

#### 뉴 이라 기사

8. “여러분의 마음 책 에이치 고슬린드  
이 알려 줄 것 이세, 1980년 5월호,  
입니다” 4페이지

- |                                  |                                    |
|----------------------------------|------------------------------------|
| 9. “선교사가 되                       | 리그랜드 리차즈,                          |
| 십시오”                             | 1980년 5월호, 33페<br>이지               |
| 10. “졸업 시험에<br>합격할 수 있<br>겠습니까?” | 던 엘 라슨, 1980년<br>6월호, 4페이지         |
| 11. “개인적인 계<br>시를 받는 방<br>법”     | 브루스 알 맥콩키<br>1980년 6월호, 46페<br>이지  |
| 12. “주님의 등대”                     | 토마스 에스 몬슨,<br>1980년, 7월호 16페이<br>지 |
| 13. “앞으로 갑시<br>다”                | 폴 에이치 먼, 1980년<br>8월호, 4페이지        |
| 14. “언덕 위의 빛”                    | 빅터 엘 브라운 1980<br>년 9월호, 4페이지       |
| 15. “수학의 법칙”                     | 엘 톰 페리, 1980년<br>10월호, 4페이지        |

복지 사업 자료집과 연관된 대회 말씀은  
신권 지도자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가 복지  
사업의 원리와 정책을 가르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복지 사업 자료집(1980년도판)

##### 제목

- |                                |  |
|--------------------------------|--|
| 1. “복지 사업에<br>기초를 둔 복<br>음 원리” | 총관리 역원/지도자<br>스펜서 더블류 킴볼<br>(복지, 토요일 오전)<br>매리온 지 롬니(복<br>지, 토요일 오전) 에<br>즈라 태프트 벤슨, 토<br>마스 에스 몬슨, 마<br>빈제이 애쉬튼, 엘<br>톰페리, 렉스 디 피<br>네가, 빅터 엘 브라<br>운, 제이 리차드 클라<br>크, 디더블류 디핸, |
| 2. “조직과 임무”                    | 스펜서 더블류 킴볼<br>(신권), 토마스 에스<br>몬슨, 제임즈 이 파우<br>스트, 바바라 비 스  |

미스.

3.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  
을 통한 절약  
생활과 예방”  
스펜서 더블류 킴볼  
(신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빈 제이 애  
쉬튼, 엘 톰 케리, 빅  
터 엘 브라운, 제이  
리차드 클라크, 바바  
라 비 스미스.
4. “도움을 주고  
받음”  
스펜서 더블류 킴볼  
(신권), 매리온 지 롬  
니(복지), 토마스 에  
스 몬슨.
5. “창고 자원 제  
도”  
토마스 에스 몬슨, 제  
이 리차드 클라크, 더  
더블류 디핸,
6. “특별한 도움  
을 필요로하는  
사람”  
마빈 제이 애쉬튼, 엠  
려셀 벨라드.

회원”

7. “제회과 훈  
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신권)

대회 모임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는 영  
어가 통용되는 모든 자재 관리부를 통하여  
집회소 도서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적으로 대회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사용  
될 수 있다. 농아를 위한 수화가 담긴 비데  
오 카세트 테이프는 다음 주소로 신청하  
여 구입한다. Special Curriculum,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또한 많은 상사에서 녹음 테이프를 제작하  
여 개인에게 팔고 있다. 이러한 테이프는  
일반적으로 대회를 마치고, 3주 후면 구입할  
수 있다.

\*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

# 상호부조회 본부 대회

다음의 여러 말씀은 9월 27일 토요일 저녁에 솔트레이크시티의 태버내클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본부 대회에서의 연설 내용이다. 세계의 9개 국가와 2,051개 장소에서 18세 이상의 말일성도 여성들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인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와 상호부조회 본부 일원인 메리 에프 폴저 자매와 애디 퓨리먼 자매와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 2 보좌인 셀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와 본부 회장단 제 1 보좌인 매리언 알 보이어 자매와 실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다. 이 모임의 주제는 “배우고, 가르치자”라는 것으로, 모든 여성이 좀더 부지런히 배워 자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책임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 배우고, 가르치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은 어디서나 필요한 사랑과 진리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밤 전세계에서 모인 이천 여 명도 더 넘는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중상하고 존경하며 또 필요로 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고린도전서 11:11)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지니고 있는 의로움과 선한 영향력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가정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심이 깊고 헌신적인 독신 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가장 고귀한 영이므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충실하고 참되게 생활하면 언젠가는 영원한 축복을 빼짐없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모임의 주제로 선정된 “배우고, 가르치자”라는 제목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나는 평생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추구하는 훌륭한 동반자인 카밀라와 함께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책을 읽고 지식을 추

구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주님의 훈계를 신봉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교성 130:18) 아내는 6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계속해서 공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모범과 가르침으로 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반 세기 이상을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로 일해 왔으며, 그중의 많은 시간을 상호부조회에서 영적인 생활 공파를 가르쳤습니다.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 모두 교회에 가까이 머물러 계십시오. 교회의 예언자를 따름으로써 길을 잊지 말고, 또한 누구든지 길을 잊은 사람을 다시 인도해 줄 능력을 갖추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며, 매주 정규적으로 가정의 밥을 꼭 갖도록 하십시오. 가정은 화평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곳입니다. 또한 선한 이웃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 가더라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은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이 넘치는 봉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항상 좋은 아내와 어머니, 훌륭한 딸과 자매가 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가 사라진다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전히 사랑과 평화가 감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여성을 위한 모임에서 자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이 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내버려 둘시다. 그러나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랑과 진리와 의로운 도법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음성 듣고 주 말씀 밀”(찬송가, 113장)으십시오.

주님이 키를 잡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탄 배를 조종하고 해쳐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업이며 상호부조회는 그 사업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위대한 상호부조회 조직에 충성을 바치십시오. 이 조직은 138년

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주님의 영감을 받고 조직한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조직을 돋고 강화시키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끌어내어 온전히 활용함으로써 훌륭하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계속해서 신앙을 간직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의 유일한 독생자이고, 세상의 구속주이며, 이 교회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간증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 \*



대회 모임을 마친 후 가능한 한 많은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킴볼 대관장



바바라 비 스미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 사랑의 끈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뜻을 같이 하는 자매가 된다면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킵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이 합창단의 잔구하는 듯한 합창을 들으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외투와 같이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싸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끈이니라.”(교성 88:125)

우리는 가장 높고, 고귀하고, 강력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친절한 사랑의 행동으로 서로 보살필 때 이 외투를 입게 됩니다. 사랑, 즉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착한 행위나 자비심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절하고, 사려깊고, 사랑에 찬 행동이야 말로 예수님의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지시하신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궁핍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든 자나 애통하는 자, 아버지를 잃은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펫박하는 사람을 똑같이 사려깊고 따스한 마음으로 보살피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우리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스페인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번역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새겨 보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좀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풍요한 생애를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봉사할 때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룻의 성품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대하는 느낌은 구약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룸은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사랑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은 닥치게 마련입니다. 쓴 맛을 모르면 단맛을 알 수 없습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 ……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의로운 것이나 죄악이나 성스런 것이나 비참한 것이나 선이나 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사에 짹이 없다고 한다면 만사가 하나가 되어질 것이라.”(나이 2:11)

룻은 이 상대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룸은 아직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

이 어려운 것이었으나, 시어머니와 화목하게 지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앙을 키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결혼으로 인하여 그녀의 생활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룻은 밭에서 이삭을 주어 자기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보다는 겨울에 밀을 떨어내면서 얻은 경험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가 끝나면 이 한 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인생의 상황에 처하든지 신앙과 마음의 평화를 키워 주고 성장케 하는 이삭을 주워야 합니다.

이 지상 생활의 시련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련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 계획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내다볼 수 있게 하여, 해야 할 일을 행할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요셉 스미스는 나부에서 처음으로 가진 상호부조회에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을 구원할……책임을 우리는……안고 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팔링 스미스 편, 223 페이지)

여기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점에 유의합시다. 그는 지식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행할 책임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한 걸음씩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딸인 우리를 돋기 위하여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안내자가 되고, 힘과 빛과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을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하이가 말한 선과 악의 혼합

체인 이 세상에서 상호부조회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나는 사랑의 끈을 개발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지침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1. 오늘 밤 우리의 주제는 “배우고, 가르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갯세마네의 수난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제자들에게 “두목은 섬기는 자”(누가복음 22:26)라고 말씀하셨으며, 시몬에게 “시몬아, 시몬아……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아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내 보이신 절차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원리를 알아야 하며, 스스로 돌아온 다음 그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밤 여러분이 상호부조회에서 영감에 의하여 준비한 공과를 통하여 배우며, 겸손히 무릎꿇고 기도하여 배우고, 경전을 연구하면서 배우고, 현대의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배우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기울임으로써 배운 것을 가르치고자 결심을 하고 이 모임을 떠나시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은 자매들에게 가르치고 감화시키며, 자녀와 남편과 친지들을 강화시키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2. 상호부조회에서 활동적으로 일하십시오.

상호부조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고 지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이나 젊은 이든, 기혼 여부를 불문하고 상호부조회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과 자매의 유대를 맺어서 서로 관심과 유익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오. 그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공과 시간의

##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하루는 킴볼 대관장님과 이야기하다가 그의 사무실을 떠나면서, 내가 대관장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는 “있습니다. 자매님들을 상호부조회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호부조회에 참석함으로써 영적으로 강화되고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인생을 살아 나가는 스스로를 구원케 할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에게 무언가 그 문제에 관하여 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현재 초등협회나 청녀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부름을 받고 있는 자매들은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공파를 읽으십시오. 방문교사와 함께 그것에 관하여 토론하십시오. 상호부조회가 여러분의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 3.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십시오.

요셉 스미스가 카테지로 가는 길에 나부의 먼지 나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연설할 때 그들의 사업은 온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절음의 폭을 넓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여성으로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함으로써 선교 사업을 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훌륭하게 진리의 원리대로 생활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좀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활동적인 일일성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침례받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나 되는 우리의 아들딸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치려 나가지만 우리 각 지역의 상호부조회 단위 조직에서도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수많은 다른 사람

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 선교사들과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정규적으로 선교사들에게 비회원의 명단을 전해 주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이거나, 특별한 봉사를 하는 선교사거나 스스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 보십시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보좌 한 분이 자기 남편과 함께 나이제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지 않으면 나는 더 평凡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상 생활의 활동을 하면서 어디서 있게 되든지, 즉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거나, 이웃과 함께 있을 때나 혹은 직장에서 알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허심탄회하게 우정을 나누며 자신이 믿는 바대로 진실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함께 나눌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 4. 복지 사업의 원리를 배우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복음 계획의 본질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살피며,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 자원 제도에 현물을 바침으로써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물자를 마련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특별히 형편이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께 주신 과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복지 사업을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 5.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닥치는 인생의 변화를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삶의 실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독신에서 기혼 생활로, 자녀들이 그득한 가정에서

텅 빈 집으로, 군대 생활에서 민간인으로, 직장 생활로부터 정년 퇴직으로, 결혼 생활로부터 과부나 이혼 상태로, 젊고 원기왕성한 상태로부터 늙고 남에게 의지하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언제나 특별한 압박감과 걱정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다닐 때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호부조회 역원과 교사와 회원은 이런 역경을 헤쳐 나가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 6. 훌륭한 방문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방문 교육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이것을 합당하게 활용할 때 위대한 영감과 힘과 위안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꼭 필요할 때에 방문 교사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물려 살면서도 고독을 느낄 때가 흔히 있는 도시에서는 방문 교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방문 교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접촉하게 해주는 주님의 방법이며, 그들을 통해 모든 가정의 신성함을 주께서 인정하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방문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에게 더 혼신하는 것입니다.

#### 7. 연결 고리가 되십시오.

이 역사적인 일년 동안에 스스로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밤 우리가 잠글 이 50주년 기념 상자를 채우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신 할머니들은 50주년 기념 상자를 마련해 잠가 두었습니다. 기념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매들의 정신과 현재의 활동을 나타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여 50년이 되어서 상자를 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우리의 혼신과 신앙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여러분은 이미 지속적인

위대한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기는 일자와 여러분이 가치를 부여하고 간직하기로 택한 것에 의하여 우리 시대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앞에 간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올 사람을 영원히 함께 연결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되도록 합시다.

#### 8.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경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어떤 창조물보다 그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불사불멸과 영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자매들은 합당하게 생활한 그의 충실한 딸들을 위하여 주께서 마련하신 축복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기혼이거나 미혼을 불문하고 스스로 충실히 준비하여, 우리가 단지 성역을 베푸는 천사로 일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영원한 동반자로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하여 모임과 활동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자매가 된다면,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는 동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외투와 같이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싸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끈이니라.” (교성 88 : 125)는 말씀을 따릅시다.

주께서 우리가 수용적인 마음과 깨끗한 목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온전히 단합하여 주님이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애디 퓨리먼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

## 독신: 상호부조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서로 사랑하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권을 지지하십시오.”

오늘 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커트는 우리 이웃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는 만일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농작물을 망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소채원을 둘러보고 딸기와 과일의 잎이 빛을 잃어 가더니 점점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햇빛이 비치거나 비가 오고 그치는 것은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고 키워 나가려면 신앙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갖가지 상황이나 환경은 어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겨진 곳이나 또는 우리가 자가 자신을 심은 곳에 적응하여 성장하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심는 방법에 따라 여러 모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일하지 않는 여성도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울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서로 큰 차이가 나 융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낙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대체로 비슷하게 만드셨으므로,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과 쉴 곳, 숨 쉴 공기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더 높은 영역에 도달해야 할 필요성을 비슷하게 갖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서로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알고 계시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 지혜로 교회 안에 상호부조회를 마련하여 여여분과 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기혼자나 나와 같은 미혼자 등 모든 여성의 마음 속과 생활에 깊은 감명을 줄 수 있는 복음 원리를 가르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밤 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복음 원리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며 또한 각 자매들이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그것이 큰 잠재 능력이 된다는 점을 밝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원리는 다른 사람

과 함께 있을 때 더 배우기 쉬울 때가 있는가 하면, 혼자서 더 쉽게 배울 수도 있읍니다.

신앙. 혼자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배우는 곳으로 만들기란 내게는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수로 따지지 않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의 성질에 의하여 정의를 내린다면, 공과와 겸소한 생활을 하는 데 따르는 자자분한 일이나,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개념을 적용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정에 초대하여 그 아늑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분위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신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을 느낄 때, 또는 자신에게 반응을 보여 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필요 사항에 대하여 따뜻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가치관을 기꺼이 남과 함께 나눔으로써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앙으로 자신을, 더욱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함께 나누고 따뜻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자매애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소망. 나는 나에게도 땅에 충만하라는 청지기 직분이 있으며, 만물이 열매를 맺고 있으니, 배우자가 없어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때 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힘에 의해 신의 아기를 낳아야만 충만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정서적, 육체적, 지적, 영적 필요 사항에 대하여 따뜻한 반응을 보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돋고 개인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될 때, 복지와 자선 봉사와 방문 교육 개념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그와 같이 헌신적인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인간적인 헌신을 그렇게 주고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과제나 일이나 생명이 없는 어떤 물건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과 소망이 함께 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사랑을 베풀게 되며, 헌신하는 행동에 관련된 위험을 덜게 됩니다. 봉사와 개인적인 관계와 용서와 매일매일의 사랑의 행동이 전하는 교훈에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은, “나는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도록 합시다.

사랑. 내 스스로 가정이나 이와 비슷한 단위 조직을 갖지도 못하면서, 어느 한 단위를 전체 또는 일부나마 현재보다 좀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 올리는 데 공헌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참으로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통가 차매

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및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들이 우리를 불러 함께 일할 기회를 주고, 또한 우리가 이해력을 갖고 자신을 바쳐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는 현재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완전해지기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환영하며, 우리에게 나아와서 의지하는 자매들과 와드와 지역 사회를 이루며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율법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경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원리를 실천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가를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민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서로 짐을 나누자  
서로 함께 기뻐 하며  
서로 가정으로 이끌자.

우리는 모두 “귀향”的 의미와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화평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거나 미혼이거나 서로 짐을 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짐을 함께 쳐 주고, 내 기쁨을 함께 하며,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하고 또한 베풀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귀향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화 방문자



메리 애플 폴저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

## 모성애와 가족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어머니는 늘 ‘자, 이제 이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부름을 받아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능력과 저들의 놀라운 신앙과 선행으로……선을 택”하였다며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스러운 부름을 받은”(엘마서 13:3)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것을 깊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일성도 여성들은 창조의 목적,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 대한 지상의 어머니로서 참여하는 것에 의해 존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영광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로서 우리의 사업이며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큰 사업임을 부정하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약속 그 자체가 자손으로 인한 기쁨과 관련되어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교성 64:33) 참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읍니다.

아직 우리 여섯 자녀들이 어려 모든 면을 둘보아 주어야 할 때, 남편이 사업차 여행을 하게 되어 같이 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때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들만 있는 우리 집을 멀리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기뻤으나 떠날 때가 가까워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떠나기 이를 전에,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들을 돌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나의 희망 사항을 담은 편지를 적느라고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복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나열하고 이렇게 추신을 덧붙였습니다. “자주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을 안아 줄 수 없을 때, 친절한 사랑과 보호로 따스하게 감싸 줄 모성애로 그 사람이 대신 안아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싸 줄 때 두려움과 해침과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나는 어머니로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문화 정도나 국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어머니로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또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따스하게 감싸 줄 때, 주께서도 역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팔은 하루 종일 우리에게 뻗쳐 있으므로 안심하십시오.

존 에이 윈소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성애는 신권과 똑같이 보편적으로 주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신권과 교회 행정, 솔트레이크시티, 베저렛 출판사, 1954년, 85페이지)

아직 아기를 낳지 않은 분들도 모성애를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세주께서 내미는 팔의 연장이 되어 모든 어린이에게 사랑과 안전을 베풀어 주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팔에 의지하는 태도를 배운 어린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도 그와 똑같이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기도의 힘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모범을 보고 주님에게 의지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문제에 관하여 토론한 다음에 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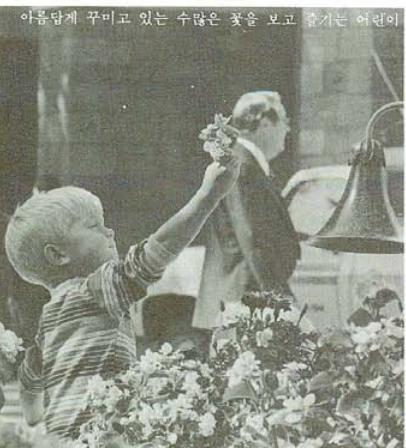
니는 늘 ‘자, 이제 이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집안 일은 버려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친구들이 ‘너의 어머니는 뭘 하시고 계시니?’라고 묻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는 주님께 어떤 문제를 상의하고 계시는 거야.’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팔을 내밀 수 없을 때, 주님의 팔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팔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가르치십시오.

나의 모친은 내가 첫아기를 낳기 3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매애를 통하여 또한 상호부조회에서 받은 깨우침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팔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일성도 여성들에게 자녀들을 말일의 시련에 대비시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학생도 되고, 교사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경전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조그만 악도 침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우리가 거할 거룩한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세에서 기꺼이 받아들인 신성한 의무를 이 세상에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예언자를 주셨다는 것을 배우고, 가르침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은 살아 계시며, 주님의 팔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배우고 가르침시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설리 더블류 토마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 2 보좌

## 왕국의 교리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배** 우고, 가르치자.” 이 노래의 아름다운 가사는 우리로 하여금 수학의 법칙에서 신앙을 찾게 하며, 자라나는 씨앗이 약속된 곡식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당면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을 찾는 데 열중하다가, 때로는 근본적인 진리를 무시하게 되고, 그 결과 확실한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신권을 지지하라는 등의 왕국의 교리는 확고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한 진리의 말씀에 해답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배워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한 친구는 특별히 곤란한 문제에 부딪쳤을 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패커 장로는 충고를 주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기억하신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자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읍니다.

상호부조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은 방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가정 주부로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더 받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모든 여성은 빛과 진리를 추구하고, 스스로 온전하게 되며,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특성을 본받아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려면 우리 자신이 보다 많은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금방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날말을 이야기하려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오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쓰는 어려운 날말이었는데, 그 아이는 자랑스럽게 그 말을 쓰고 읽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에서 철자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때 내가 왜 고쳐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나가서 책을 읽고 계신 아버지에게로 가서 자기가 배운 새 날말을 이야기 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시정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읍니다. “어머니, 왜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알맞은 답을 찾기가 궁색했지만, 훌륭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틀린 것을 고쳐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그들이 하는 말이나 일상 생활에서 혹은 그들이 적응하려 하는 세상에 관하여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아무리 훈련을 쌓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독신으로 사느냐 또는 어머니가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새로 조직된 상호부조회 스테이크 임원회에서는 복지, 자선 봉사 및 각 자매님들의 필요 사항을 크게 강조해 왔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나머지 일은 두 가지 기본적인 여성의 책임 분야, 즉 가사와 교육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나 교육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교육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여성은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가정을 이루는 책임을 받아들여 신성함과 밀접한 판계가 있는 온전함을 이루며, 복음의 빛과 지식을 가정에 가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생활에 나가면서 가능한 한 더 많이 배우고,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키



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여성의 배우는 것은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축복할 때 그녀의 영향력을 영원히 증대 시켜 줄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우리 각자에게 보다 많이 알고, 자신을 잘 표현하고, 굳건하고, 자립하며, 신앙깊은 자가 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최근에 한 젊은 여성이 상호부조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도와 줄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할 게 있어서요.”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 원리로 무장한 상호부조회 자매는 일상적인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음과 활력과 예지로써 그들에게 부여된 커다란 의무와 책임을 맡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과 용기와 순결한 여성인……상호부조회에 판계를 갖기를 바랍니다.”(복음 교리, 351페이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상호부조회는 거룩하게 조직되었으며, 말일에 회복된 교회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고 자매들이 그러한 교리를 각자 자기 생활의 중요한 면에 연관시켜 더 풍성하게 생활하며, 당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줄 책임과 청지기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특권입니다.

이 사업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매리언 알 보이어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 1 보좌

##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우리는 상호부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태버내클에 계신 여러분을 뵙고, 텔레비전을 통해 수많은 회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땅로서 복음 안에서 회원들에게 따르는 풍성한 축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장 훌륭한 생활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교회와 지역 사회와 세계에서 가정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여러분에게 참된 가정 주부의 삶을 심어 주셔서, 여러분이 시온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구원해야 할 운명을 태고났습니다.”(상호부조회지, 1949년 12월호, 798페이지)

그렇다면, 여성이 하는 일에는 깊고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적인 집 안 일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란 사람이 들어가 몸담고 사는 집이

나방 이상의 것입니다.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람이 혼자일 수도 있고, 대가족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가정은 필히 배움의 장소, 기도로 영생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하여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화됨으로써,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진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성 88 : 119)

나는 주님의 이 권고의 말씀을 생각하면 특별한 친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 친구와 함께 일해 오는 통안,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많고 남편은 병약했으나 그런 일이 상호부조회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그처럼 잘해 나가느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많이 도와 준답니다. 낙담할 때는 자매들의 사랑으로 용기를 북돋우게 됩니다. 또한 공과를 통

해 힘과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 점을 나누게 되면, 내 문제는 그다지 크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식구들이 다 잡들고 있는 이론 새벽에 아침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루의 일을 계획해 나갑니다. 그녀는 그날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녀는 매일 하나님과 다정한 친구들이 도와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사랑의 보고로 하루의 일을 끝마쳤습니다.

이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범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가족들에게 기도의 힘과 주변을 정리하는 중요성과 타인과 주님에게 봉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고 권하십니다. 수많은 말일성도 여성들이 독창성을 발휘하여 요긴한 것들을 준비하는데서 큰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 및 친구들을 위한 바느질은 가족을 사랑과 감사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덟 식구를 거느린 어떤 어머니는 최근에 자신이 식구들

의 옷을 짜어 입히지 않았다면, 가족의 생활용품의 일부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상호부조회 소단위 공파반에서 청바지와 티셔츠 만드는 법과 현옷으로 어린 자녀들의 옷을 재생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또 하나의 요긴한 것은 먹는 음식입니다. 킴볼 대관장은 우리에게 작물을 재배하고 우리가 키운 것을 잘 저장하라고 거듭 권고해 오셨습니다. 우리 가사책에는 밭에 씨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해에 뿌릴 씨를 모으는 것에 대한 지침도 들어 있습니다. 소단위 공파반에서는 매일 기본 저장 식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언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저장한 전지 분유를 활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습니까? 가사 소단위 공파반에서는 우유를 넣어 마가린의 분량을 두 배로 늘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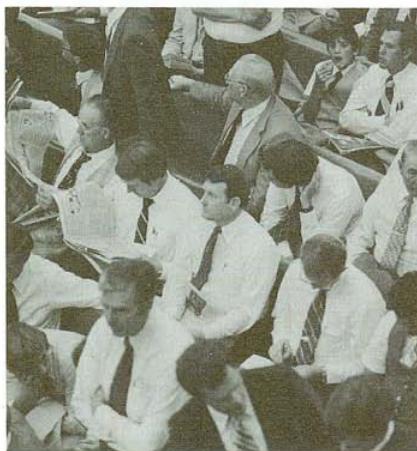
최근에 나는 브리감 영 대학 와드의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학생들이 소단위 공파반에서 빵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빵굽는 냄새가 풍겨 나오자 시장한 남학생들이 문가에 몰려들어, 그들에게 따뜻한 빵과 버터와 물을 나누어 주고 모두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일년 전에 자매를 위한 모임에서 스펜서더 블류 킴볼 대관장은 우리에게 “행복의 방법”에서 세상의 여성들과는 다르게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성도의 벚, 1980년 3월호, 150페이지 참조)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이 씨뿌리고, 수확하며, 가정을 질서있게 꾸려 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으며”(니이 5:27)라고 덧붙였습니다.

말일성도 가정을 세우는 자로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각 가족의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은 교사로서의 역



커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

합니다.

신문 사설에 나타난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란 모든 다른 기구의 양성소입니다.”(상호부조회지, 1965년 1월호, 9페이지) 가정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본질은 새로 편제된 스테이크 임원회 조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가사의 개념에는 음악과 음악이 가정에 가져다 주는 풍요함과 가장 훌륭한 아동 성장 원리에 따라 충비된 자료가 완전히 갖추어진 유아반과 서로 단합하여 하며,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오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가사에는 이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가족이 단합하여 함께 훈련해 나가고, 훌륭한 솜씨와 교양과 지식과 기쁨과 아울러 가정의 대명사처럼 쓰여 온 사랑과 따스함이 함께 구현되는 가정을 꾸밀 수 있게 여성을 준비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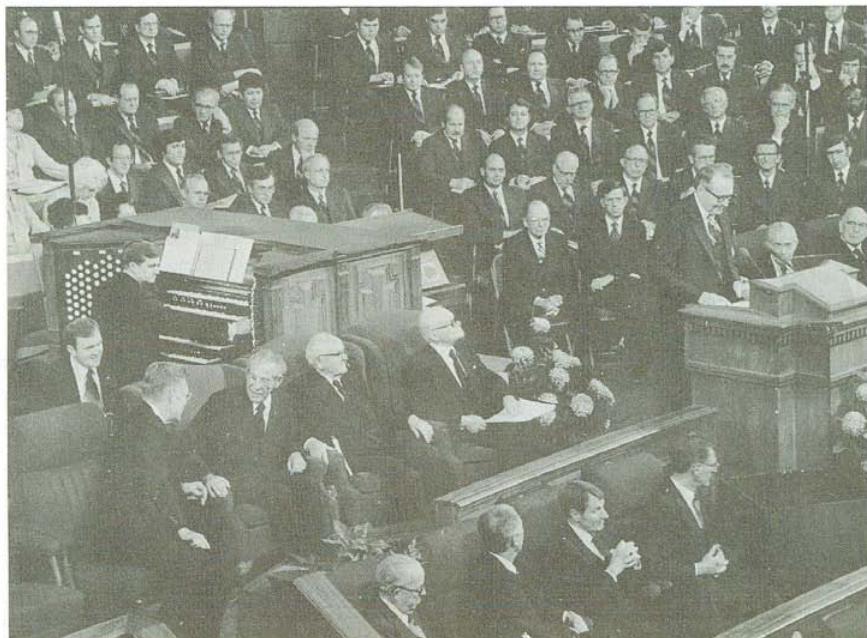
우리는 모든 일일성도 여성이 가정 주부로서의 충분한 잠재 능력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가사 담당 보좌들이 각 자매의 필

요 사항에 맞추어 모임을 계획하도록 권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똑같은 입장에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 각자가 독창적으로 가정을 꾸며 나가는 데서 목적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잘 계획된 두 시간의 월례 모임은 각 자매들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시킬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잘 정돈된 가정에서 간증의 불길을 밝히고, 각 가족의 마음속에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를 통하여 주변을 정리하고,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여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교성 88 : 119 참조)

우리 가정을 모두 함께 즐기는 평안과 행복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우리도 너희가 백성과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한 무리가 된 자매들

“강력하게 잘 조직된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미래와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패커 자매와 나는 동부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 상호부조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는 12명의 자매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 50년 전에 인쇄한, 악보는 없고 가사만 있는 노래 책을 보며 시온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손으로 만든 교재에 의하여 경건하게 영적인 생활 공과가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자매들에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면으로 보거나 가장 크고 위대한 여성 조직에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총관리 역원들이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면서 행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여성을 위해서] 열쇠를 돌립니다.”

상호부조회는 “여러분의 본질에 따라” 조직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간직한 동정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특권을 실천한다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상호부조회가 교회 관리 역원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 가운데 있는 여왕들에게 명할 권리

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4 : 607, 605)

그 모임에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품위있고 경건하게 모임을 사회한 아름다운 자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으며, 그들은 큰 힘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오늘 저녁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몇몇 자매가 자신의 의사표를 표시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그만 무리를 이룬 자매들의 진심을 모든 자매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무리가 된 자매들”이라는 말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여러분과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거대한 무리를 이룬 자매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계셨던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 한 무리에 속하여 양쪽에서 오고 가는 신앙과 용기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는 신전의 인봉실이 생작났습니다. 거기에는 양쪽 벽에 거울이 아주 걸려 있습니다. 제단 가까이에 서서 양쪽을 바라보면, 거울에 비친 상이 점점 작아지며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한한 세계, 곧 영원한 세계를 들여다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볼 수 있는 한 멀리 까지 볼 수 있으며, 시야의 한계점 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내다볼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잠시 여러분과 한 무리가 되어 서 있는 동안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매들은 그 무리의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느 쪽이든 볼 수 있으며,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든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내어 보이며 되돌아오는 영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무리가 된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가고 되돌아와 곧 다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상호부조회가 신권 방식에 따라 조직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권을 소유하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것으로, 완전히 혼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혼신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맹세와 성약과 관련됩니다.

형제들은 신권회 회원이 되면 영화롭게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사람과 사귀든지 신권을 존중하게 됩니다. 일요일에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신권회 회원의 책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권회에서 온전히 활동함으로써 모든 합당한 소망이 성취되며, 인간의 모든 욕구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총판리 역원들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으며,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입니다. 그러한 욕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신권 소유자를 보호하며, 그가 완전히 생을 충족시키도록 이끌어 주는 자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총판리 역원들은 계속해서 욕구에 대하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신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당한 생각입니다.

신권이 제대로 조직되어 기능을 발휘한다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합당한 소망이 충족되게 됩니다. 형제들은 신권을 통해서 그들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모든 자매들과 합당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권은 교회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신권회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상호부조회를 통해서 신권에 속하는 특권과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신권 소유자는 여러분이 없으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매 여러분이 그러한 방식을 따른다면, 여성들이 갖는 욕구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직, 곧 커다란 무리를 이루는 자매들의 상호부조회를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태만이 사라지고, 잘못된 것은 모두 시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호부조회에 혼신할 때, 이 모든 것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자매들은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함으로써 영화롭게 되고 성결케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상호부조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에 참여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참여할 때, 곧 상호부조회의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자매들을 축복하는 대업을 지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은 신권 방식에 따라서 또한 그 권능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습니다.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를 결정짓기 위한 연구를 할 때, 내가 가장 염려하고, 또 논

의 할 때마다 강조한 것은 상호부조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도 주일학교·공과반 뭇지 않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특히 역원과 교사가 되시는 여러분에게 상호부조회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닌 임무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호부조회가 수십년간 지켜온 자매애, 곧 상호부조회의 사랑과 현실적인 면을 제쳐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그것을 모아 들여야 합니다. 이 일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상호부조회의 우애 정신인, 자매애를 되살려 내고 키워 나가는 방법을 찾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애와 실제적인 차원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두번째 모임을 더 갖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협회나 청년회에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신권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아론 신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가 대신권을 강화하듯이, 여러분의 봉사는 상호부조회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직분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상호부조회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처럼 큰 무리를 이룬 자매들이 여러분 각자와 가족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장소, 곧 고대의 성소인 피난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막아 주는

벽과 같이 각 자매들을 감싸 줄 것입니다.

금년에는 구약을 공과 교재로 삼게 됩니다. 바빌론에서의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 나온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도시가 폐허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적이 큰 세력을 미쳐 이스라엘인들은 적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성을 건축하는 자”로 알려진, 예언자 느헤미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인들을 규합하여 스스로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도하에 그들은 다시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적은 처음에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비웃으며, “저들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느 4:3)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처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느 4:9)

자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잘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적은 성벽이 점차 높아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벽이 온 도시를 둘러싸, 성문을 달 곳을 제외하고는 틈이 없었습니다. 적이 조동했던 것이 거의 다 복구된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적들이 위협하거나 쳐들어 올 수 없었습니다. 적은 그들이 강해진 것을 보고는 불안해져서 다른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성경이며, 경고가 됩니다. 여기에는 상호부조회에 속한 모든 자매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본부 회장단과 그 임원, 스테이크와 와드의 역원 및 교사 나아가서는 모든 회원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계셀이 느헤미야에게 전갈을 보내 꾀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서 그를 빼어 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들의 심증을 헤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느 6:2)

그들은 다섯번씩이나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유혹이 닥치는 것과 같이, 끈덕지게 꾀롭혔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가담하시오.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오. 세상에 나와 우리와 한 패가 됩시다.”

그들에게 들려줄 그의 대답은 상호부조회에 속한 모든 자매들에게 주는 권고가 됩니다. 그것은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에게도 훌륭한 메시지가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 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느 6:3)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를 세우십시오! 그 조직을 강화하십시오! 유혹을 받아 그 일을 떠나 세상적인 오노 평지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것 말 아래 도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 밑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궁극적인 권능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위대한 조직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100주년 기념일에 교회 대관장단이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주님의 영감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므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조직이라는 것을 한 순간

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여성 조직 단체도 이렇게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신성하게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으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신권과 서로에게 가장 충실하게 행하는 등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회원들은 어떤 종류의 적개심이나 경쟁심을 품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 위대한 상호부조회 회원에게 따르는 특권과 명예와 기회와 성취감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그룹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철저히 만큼 함께 있는 회원이나 그 조직에 충실합니다. 회원들은 다른 조직에 가입해도 안되며, 이 상호부조회의 사업을 막거나 저지시켜도 안됩니다. 그들은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다른 모든 사회적인 단체나 비슷한 조직의 일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의 일은 다른 어느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적, 문화적,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회원들의 전반적인 욕구를 충분히 채워 주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자매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여성 조직인 상호부조회에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호부조회 100주년 기념제”, 페저렛 뉴스 프레스, 1942년, 7페이지)

대관장단의 이 충고 말씀은 오늘날에도 지속됩니다! 상호부조회의 대업을 뒷받침 합시다. 상호부조회를 강화시키고, 빠짐없이 참석합시다! 스스로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비활동 자매들을 찾아내고 비회원 자매들도 그 영향을 받게 합시다. 지금은 전 세계의 자매들이 한 무리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강력하게 잘 조직된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미래와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어려운 시기를 향해 조심스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의 귀에는 폭풍우가 물려오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거의 어려운 문제는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시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경륜의 시대의 주요 관심사가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운 손길로 의로운 빛을 들고 있으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을 축복하여 우리 자녀들을 살찌게 합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뜻이 남성보다 적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합당한 남성이 아내에게 품고 있는 공경심에 가까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없이는 충만한 신권을 지닐 수 없습니다. 예언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주님의 신전 밖에서는 충만한 신권을 가질 수 없느니라.”(교



태버네클 오르간 반주자 존 봉기스트 형제

성 131 : 1-3 참조) 여성은 성스런 곳에서 남성의 곁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은 남성이 받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셋음 의식과 기름부음 의식을 받고, 엔다우먼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은 동반하지 않으면, 최고의 의식인 인봉 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가르침은 참으로 부드럽고도 강하며, 우리 자매들의 지혜를 다져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조용한 대답에서 상호부조회의 정신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호부조회 자매가 일년치 식량을 비축하기로 결심한 것을 비웃었읍니다. 그 자매는 자신과 남편이 충분히 쓸 만한 양과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생활이 넉넉지 않고 비축해 둘 장소가 마땅치 않은 자녀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량을 비축했읍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예언자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축했노라고 말했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가당치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태가 이르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할 거요. 당신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라고 하면 어찌겠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어야 할 거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적어도 갖다 바칠 것은 갖고 있겠지요.”하고 그녀가 말했읍니다.

가져 올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고 영원한 무리를 이룬 자매들 — 이 지상의 여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조직 —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상호부조회의 일부인 동부 유럽에서 작은 무리를 이룬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가 이 사업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